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Ⅶ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책임연구원 이종원

공동연구원 이순래 정윤미

N

Y

P

T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 책임연구원 :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순래(원광대학교·교수)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발 간 사 ■ ■ ■

아동·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단계에서 가장 많은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급속한 신체 변화와 인지 발달, 생활 반경과 사회 관계의 확대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 등의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발달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청소년들이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는 일은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는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로서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한 종단적 연구는 드물었다. 2003~2008년 기간 동안 본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는 청소년의 생활·행동·의식 전반에 대한 국내 최초의 종단조사로서 청소년 연구의 활성화와 관련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대상과 연구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 선정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 총 7,071명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데이터의 일반 공개, 학술대회 개최,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 7차년도인 올해에는 제6차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3개 패널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 경과를 정리한 사업보고서와 더불어 영역별 조사결과를 분석한 기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한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실태와 추이를 분석하고, 두 비행 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패널의 중학교 2학년(2011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2015년)에 이르는 5개년 간에 걸친 종단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비행 조사항목 19가지를 현실 비행(지위비행, 불법행동)과 사이버비행(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으로 유형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고등학생 시기에 청소년들은 학령이 올라감에 따라 현실비행의 경험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사이버비행 경험률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비행이 중학생 시기에는 사이버비행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고등학교 진학과 더불어 현실비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 시기에는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등학생 시기에는 현실비행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흡연과 음주는 다른 현실비행이나 사이버비행에 동반하여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지속 기간도 긴 편으로서, 청소년들의 비행 수준을 파악하는 일종의 지표비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가정배경에 따른 비행 경험률은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모두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거주지역별로는 시군부가 서울보다, 부모의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고졸이나 대졸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현실비행 경험률은 하위층이 중간층이나 상위층보다 높았지만, 사이버비행 경험률은 상위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시기에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은 인과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현실비행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인과적 효과가 그 반대방향의 인과적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비행을 되풀이 할 확률은 현실비행이 사이버비행보다 높은 편으로서, 현실비행의 지속성이 사이버비행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중·고등학생 시기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실태와 추이를 파악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비행 경험의 차이와 그 변화양상을 분석함.
- 중·고등학생 시기의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인과적 관계에 있는지, 또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인과성의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 “현실비행”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일상적인 현실의 생활공간에서 전개되는 비행으로, “사이버비행”은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공간에서 전개되는 비행으로 규정하였음.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비행 조사항목 19가지를 현실비행(지위비행, 범법행동)과 사이버비행(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으로 유형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 분석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패널의 중학교 2학년(2011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2015년)에 이르는 5개년 간에 걸친 종단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3. 주요 연구결과

- 중2에서 고3에 이르는 기간 중 한 번 이상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현실비행이 52.4%, 사이버비행이 64.6%로 나타남. 학령별 비행경험율을 비교하면 현실비행은 점진적으로 증가(중2: 18.4% → 고3: 32.7%)하는 한편, 사이버비행은 급격하게 감소(중2: 46.9% → 고3: 13.0%)하는 추세를 보임. 청소년기의 비행이 중학생 시기에는 사이버비행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고등학교 진학과 더불어 현실비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들의 배경변인별 비행경험률은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모두 대체로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거주지역별로는 시군부가 서울보다, 부모의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고졸이나 대졸 이상보다 높은 수준임. 가구소득별로는 현실비행 경험률은 하위층이 중간층이나 상위층보다 높았지만, 사이버비행 경험률은 상위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행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사이버비행이 현실비행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즉, 비행경험자 중 중학생 때 처음 비행을 경험한 비율은 사이버비행이 90%에 달했지만, 현실비행은 60%에 머물렀음. 중2~고3 기간 중 비행을 경험한 기간은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모두 1년인 경우가 약 40%로서 다수였고, 5년 내내 경험한 비율은 5% 남짓한 수준이었음. 비행항목별로는 흡연, 음주의 경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서 다른 비행에 비해 오랜 기간 지속됨을 알 수 있음.
- 중학생 시기에는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등학생 시기에는 현실비행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특히 흡연과 음주는 다른 현실비행이나 사이버비행에 동반하여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서, 청소년들의 비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비행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인과적 관계를 형성하는지, 또한 그 인과성의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학생 시기와 고등학생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그 결과 두 시기 모두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간에는 인과적 연관이 존재하며, 현실비행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인과적 효과가 그 반대방향의 인과적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한편 동일한 비행을 되풀이 할 확률은 현실비행이 사이버비행보다 높은 편으로서 현실비행의 지속성이 사이버비행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대응하는 비행예방 교육 수립” “가정배경에 따른 낙인효과 방지 대책 마련” “청소년 사이버 멘토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였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	5
1) 연구내용의 구성	5
2) 비행의 유형과 개념정의	6
3. 연구의 방법	9
1) 조사대상	9
2) 연구방법	11
3) 이탈표본 검토	14
II. 선행연구 분석	19
1. 청소년비행의 통합이론	22
2. 현실비행의 연구결과	26
1) 긴장이론 연구	27
2) 학습이론 연구	32
3) 통제이론 연구	33
4) 통합모형 연구	35
3. 사이버비행의 연구결과	39
III. 현실비행의 실태와 추이	45
1. 비행유형별 분석	47
1) 현실비행의 추이	47
2) 하위집단별 비교	49

2. 비행항목별 분석	55
1) 지위비행	55
2) 범법행동	77
3. 요약	109
IV. 사이버비행의 실태와 추이	113
1. 비행유형별 분석	115
1) 사이버비행의 추이	116
2) 하위집단별 비교	117
2. 비행항목별 분석	123
1) 사이버사기	123
2) 사이버폭력	140
3. 요약	149
V.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관계	151
1. 비행 경험률과 비행 특성 비교	153
1) 비행 경험률 비교	153
2) 비행 경험 특성 비교	156
2.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인과관계 분석	163
1) 분석방법	163
2) 분석결과	165
3. 요약	178

VI. 결 론	181
1. 연구요약	183
1) 현실비행	183
2) 사이버비행	185
3)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관계	186
2. 정책방향 제언	188
참고문헌	191

표 목차

〈표 I-1〉 청소년비행의 유형 구분과 개념 정의	7
〈표 I-2〉 KCYPS 제1~6차 조사 조사인원과 원표본 유지율	9
〈표 I-3〉 표본의 특성	10
〈표 I-4〉 독립변인 구성과 하위집단별 분포	12
〈표 I-5〉 종속변인의 구성과 조사문항	13
〈표 I-6〉 조사 참여 표본과 이탈 표본의 비행경험 차이 검증 : 제3, 4차 조사	16
〈표 I-7〉 조사 참여 표본과 이탈 표본의 비행경험 차이 검증 : 제5, 6차 조사	17
〈표 II-1〉 현실비행에 대한 KCYPS 데이터 활용 연구의 분포: 2012~2015년	26
〈표 II-2〉 현실비행에 대한 KCYPS 데이터 활용 연구 - 긴장이론	28
〈표 II-3〉 현실비행에 대한 KCYPS 데이터 활용 연구 - 학습이론	32
〈표 II-4〉 현실비행에 대한 KCYPS 데이터 활용 연구 - 통제이론	34
〈표 II-5〉 현실비행에 대한 KCYPS 데이터 활용 연구 - 통합모형	36
〈표 II-6〉 사이버비행에 대한 KCYPS 데이터 활용 연구	39
〈표 III-1〉 현실비행 경험 유형	49
〈표 III-2〉 현실비행 경험률: 성별	51
〈표 III-3〉 현실비행 경험률: 지역별	52
〈표 III-4〉 현실비행 경험률: 부모학력별	53
〈표 III-5〉 현실비행 경험률: 가구소득별	54
〈표 III-6〉 흡연 경험률: 하위집단별	57
〈표 III-7〉 흡연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59
〈표 III-8〉 음주 경험률: 하위집단별	62
〈표 III-9〉 음주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64
〈표 III-10〉 무단결석 경험률: 하위집단별	66
〈표 III-11〉 무단결석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68
〈표 III-12〉 가출 경험률: 하위집단별	70
〈표 III-13〉 가출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72
〈표 III-14〉 성관계 경험률: 하위집단별	74
〈표 III-15〉 성관계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76

〈표 III-16〉 집단따돌림 경험률: 하위집단별	79
〈표 III-17〉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81
〈표 III-18〉 심한 놀림/조롱 경험률: 하위집단별	83
〈표 III-19〉 심한 놀림/조롱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85
〈표 III-20〉 패싸움 경험률: 하위집단별	87
〈표 III-21〉 패싸움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89
〈표 III-22〉 구타 경험률: 하위집단별	91
〈표 III-23〉 구타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94
〈표 III-24〉 협박 경험률: 하위집단별	96
〈표 III-25〉 협박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98
〈표 III-26〉 갈취 경험률: 하위집단별	100
〈표 III-27〉 갈취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102
〈표 III-28〉 절도 경험률: 하위집단별	103
〈표 III-29〉 절도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105
〈표 III-30〉 성폭력 경험률: 하위집단별	107
〈표 III-31〉 성폭력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108
〈표 IV-1〉 사이버비행 경험 유형	117
〈표 IV-2〉 사이버비행 경험률: 성별	118
〈표 IV-3〉 사이버비행 경험률: 지역별	119
〈표 IV-4〉 사이버비행 경험률: 부모학력별	120
〈표 IV-5〉 사이버비행 경험률: 가구소득별	122
〈표 IV-6〉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률: 하위집단별	125
〈표 IV-7〉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127
〈표 IV-8〉 성별/나이 속임 경험률: 하위집단별	129
〈표 IV-9〉 성별/나이 속임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131
〈표 IV-10〉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 하위집단별	133
〈표 IV-1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135

〈표 IV-12〉 허위정보 유포 경험률: 하위집단별	137
〈표 IV-13〉 허위정보 유포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139
〈표 IV-14〉 욕설/폭언 사용경험률: 하위집단별	142
〈표 IV-15〉 욕설/폭언 사용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144
〈표 IV-16〉 해킹 경험률: 하위집단별	146
〈표 IV-17〉 해킹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148
〈표 V-1〉 비행의 경험유형	154
〈표 V-2〉 비행의 항목별 경험률	155
〈표 V-3〉 비행항목별 시작시기	157
〈표 V-4〉 비행항목별 경험년수	158
〈표 V-5〉 비행항목별 동반비행 : 중2 시기	161
〈표 V-6〉 비행항목별 동반비행 : 고2 시기	162
〈표 V-7〉 연구모형의 잠재변인, 관측변인 구성	165
〈표 V-8〉 변인의 평균값 : 중학생 시기	166
〈표 V-9〉 변인 간 상관관계 : 중학생 시기	166
〈표 V-10〉 구인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 : 중학생 시기	168
〈표 V-11〉 인과관계 모형의 적합도 지수 : 중학생 시기	170
〈표 V-12〉 변인의 평균값 : 고교생 시기	171
〈표 V-13〉 변인 간 상관관계 : 고교생 시기	172
〈표 V-14〉 구인동일성 검증 모형의 적합도 지수 : 고교생 시기	174
〈표 V-15〉 인과관계 검증 모형의 적합도 지수 : 고교생 시기	176

그림 목차

【그림 II-1】	애그뉴의 통합이론 모형	23
【그림 III-1】	지위비행, 범범행동, 현실비행 경험을 변화	48
【그림 III-2】	흡연 경험을 변화	55
【그림 III-3】	흡연 경험 빈도 변화	58
【그림 III-4】	음주 경험을 변화	60
【그림 III-5】	음주 경험 빈도 변화	62
【그림 III-6】	무단결석 경험을 변화	64
【그림 III-7】	무단결석 경험 빈도 변화	66
【그림 III-8】	가출 경험을 변화	68
【그림 III-9】	가출 경험 빈도 변화	71
【그림 III-10】	성관계 경험을 변화	73
【그림 III-11】	성관계 경험 빈도 변화	75
【그림 III-12】	집단따돌림 경험을 변화	77
【그림 III-13】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 변화	79
【그림 III-14】	심한 놀림/조롱 경험을 변화	81
【그림 III-15】	심한 놀림/조롱 경험 빈도 변화	83
【그림 III-16】	패싸움 경험을 변화	85
【그림 III-17】	패싸움 경험 빈도 변화	87
【그림 III-18】	구타 경험을 변화	90
【그림 III-19】	구타 경험 빈도 변화	92
【그림 III-20】	협박 경험을 변화	94
【그림 III-21】	협박 경험 빈도 변화	96
【그림 III-22】	갈취 경험을 변화	98
【그림 III-23】	갈취 경험 빈도 변화	100
【그림 III-24】	절도 경험을 변화	102
【그림 III-25】	절도 경험 빈도 변화	104
【그림 III-26】	성폭력 경험을 변화	106
【그림 III-27】	성폭력 경험 빈도 변화	107

【그림 IV-1】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사이버비행 경험을 변화	116
【그림 IV-2】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을 변화	123
【그림 IV-3】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빈도 변화	125
【그림 IV-4】	성별/나이 속임 경험을 변화	127
【그림 IV-5】	성별/나이 속임 경험 빈도 변화	129
【그림 IV-6】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을 변화	132
【그림 IV-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빈도 변화	134
【그림 IV-8】	허위정보 유포 경험을 변화	136
【그림 IV-9】	허위정보 유포 경험 빈도 변화	138
【그림 IV-10】	욕설/폭언 사용 경험을 변화	140
【그림 IV-11】	욕설/폭언 사용경험 빈도 변화	142
【그림 IV-12】	해킹 경험을 변화	144
【그림 IV-13】	해킹 경험 빈도 변화	146
【그림 V-1】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학령별 추이	154
【그림 V-2】	구인동일성 검증 모형 : 중학생 시기	167
【그림 V-3】	인과관계 검증 모형 : 중학생 시기	169
【그림 V-4】	인과관계 모형의 모수 추정 : 중학생 시기	170
【그림 V-5】	구인동일성 검증 모형 : 고교생 시기	173
【그림 V-6】	인과관계 검증 모형 : 고교생 시기	175
【그림 V-7】	인과관계 모형의 모수 추정 : 고교생 시기	177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 | 장
서 |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소년비행은 사회과학의 전통적인 연구주제의 하나로서 서구의 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특히 90년대 중·후반부터는 각국의 연구기관과 정부부처의 주도하에 비행을 포함한 청소년 성장·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포괄하는 패널조사¹⁾가 시작되었고 조사 데이터의 일반 공개를 통해 청소년 비행과 범죄 연구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반복하는 패널연구는 비행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변인과의 교차분석을 통해 비행에 이르는 과정과 원인을 구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날 청소년 비행·범죄의 이론이 가장 정교한 사회과학 이론 분야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은 풍부한 종단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비행 연구가 패널 데이터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비해, 우리 학계에서는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의 횡단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점차 높아가고 있는 학술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반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종단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이하 “KCYPS”)는 다년 간에 걸친 종단조사 자료의 구축과 일반 공개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비행 연구를 활성화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이 장은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 청소년비행 관련 조사내용을 포함한 대표적인 패널조사는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1997; 노동통계국),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 (PSID-CDS; 국립과학재단·미시간 대학교),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ADD Health; 국립보건원),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Kindergarten(ECLS-K; 국립교육통계센터), 영국의 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in England(LSYPE; 아동·학교·가족부) 등이 있다(김지경 외, 2010 : 50-58 참조).

KCYPS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연령집단(패널)을 대상으로 2010년에 첫 조사를 시작하여 올해 연말에 7개년에 걸친 조사를 완료하였다. 청소년비행 조사는 2011년부터 시작되어, 중1 패널의 경우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2011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2015년)에 이르는, 청소년기를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하였다²⁾. 조사내용에 전통적인 의미의 비행(현실비행)뿐만 아니라, 최근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비행의 조사항목을 반영하여 청소년비행의 종합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KCYPS의 제6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로서, 중1 패널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개년 간에 걸친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실태와 추이를 분석하고, 두 비행 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현실비행”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일상적인 현실의 생활공간에서 전개되는 비행으로, “사이버비행”은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공간에서 전개되는 비행으로 규정하였고, KCYPS의 비행 조사항목 18가지를 현실비행(지위비행, 범법행동)과 사이버비행(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으로 유형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 시기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실태와 추이를 파악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비행 경험의 차이와 그 변화양상을 분석한다.

둘째, 중·고등학생 시기의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인과적 관계에 있는지, 또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인과성의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2) KCYPS는 비행조사 문항은 선행연구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2008) 중2 패널의 문항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두 조사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할 경우, 총 12년 간(2003~2008, 2011~2016)에 걸친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이 가능하다.

2. 연구의 내용

1) 연구내용의 구성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실태와 추이를 KCYPS의 중단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고서 구성에 따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통합 이론모형의 시각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KCYPS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비행의 연구성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제Ⅱ장). 사회과학 분야에서 청소년비행의 이론은 다양한 갈래로 전개되어 왔는데, 점차 긴장이론과 학습이론, 통제이론, 개인특성이론으로 수렴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Agnew, 2016).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이론의 관점을 하나로 통합한 Agnew(2016)의 TCRS 이론모형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5년까지 KCY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된 총 49편의 논문을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으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정리·분석한 뒤, 후속 연구를 위한 이론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2)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비행의 실태와 추이를 현실비행(제Ⅲ장)과 사이버비행(제Ⅳ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KCYPS의 비행 조사항목은 모두 20가지로서 현실비행 14 항목, 사이버비행 6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현실비행을 지위비행(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과 범법행동(집단따돌림, 심한 놀림/조롱, 패싸움, 구타, 협박, 갈취, 절도, 성폭력)으로, 사이버비행을 사이버 사기(허위정보 유포, 아이디 도용, 신분 속임,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와 사이버 폭력(욕설/폭언, 해킹)으로 유형화³⁾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하위 유형별, 항목별 경험 유무와 빈도는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주요 배경변인별 차이는

3) 비행 조사항목 중 “도박”은 2012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3)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인과관계 분석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어떠한 인과적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비행 경험률의 추이, 경험시기와 경험년수, 비행의 동반관계 등 행위 특성상 나타나는 두 비행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검토한 뒤(제 V 장 1절), 자기회귀 교차지연 패널설계 (autoregressive cross-lagged panel design)에 따라 두 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네 가지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제 V 장 2절). 연구모형을 중학생 시기(2~3학년)과 고등학생 시기(1~3학년)로 나누어 설정함으로써, 성장단계에 따른 인과관계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비행의 유형과 개념정의

(1)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개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청소년 “비행”(delinquency)은 “일탈행동”(deviant behavior), “범죄(행동)”(criminal behavior) 등 유사개념과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대체로 사회규범이나 도덕적 관습에 어긋나거나, 실정법(소년법, 형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용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절도, 구타, 성폭력 등과 같이 법령에 위배되는 행동, 또한 법령과는 무관하게 사회 규범·관습에 따라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행동(흡연, 음주, 성관계 등)을 모두 “비행”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비행의 개념과 범위는 고정적이지 않고 사회적·문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따라 이른바 “사이버비행”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비행은 넓은 의미의 비행의 한 갈래이지만, 행위가 전개되는 공간과 매체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비행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현실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비행을 “현실비행”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공간에서 전개되는 비행을 “사이버비행”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기로 한다.

(2)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유형 구분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비행의 하위유형 구분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비행의 심각성(경비행, 중비행), 적용 법령(재산범, 폭력범, 강력범 등)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지위비행과 소년범죄의 구분을 활용하여 현실비행을 “지위비행”과 “범법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지위비행은 청소년(미성년)이라는 신분 특성상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의미하며, 범법행동은 소년범죄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비행의 형태 중에서 지위비행에 속하지는 않지만, “범죄”로 단정할 수 없는 행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KCYPs의 비행 조사항목 중 “집단따돌림”과 “심한 놀림/조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 행동은 절도나 갈취, 구타, 성폭력과 같은 “범죄”라기 보다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비행의 하위유형의 하나로서 범법행동을 설정하고 “형벌 법령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표 I -1 **청소년비행의 유형 구분과 개념 정의**

	개념 정의	적용 사례(KCYPs 비행 조사항목)
비행	형벌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 규범이나 관습에 따라 금지된 행동	
현실비행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일상적인 현실의 생활공간에서 전개되는 비행	
지위비행	청소년이라는 신분 특성상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범법행동	형벌 법령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행동	집단따돌림, 심한 놀림/조롱, 패싸움, 구타, 협박, 갈취, 절도, 성폭력
사이버비행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공간에서 전개되는 비행	
사이버 사기	가상현실 공간에서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행동	허위정보 유포,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신분 속임,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이버 폭력	가상현실 공간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공격적 행동	욕설/폭언, 해킹

사이버비행의 경우에는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현실비행의 유형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행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폭력”으로 유형화하였다. 모두 가상현실 공간에서 전개되는 비행으로서, 전자는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행동으로, 후자는 타인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공격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유형구분 및 그 적용사례(KCYPS의 조사항목)는 <표 I-1>(p. 7)과 같다.

3. 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이하 “KCYPs”)의 중1 패널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KCYPs의 조사대상은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학령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 차례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중학교 1학년 표본(이하 “중1 패널”)은 2010년 기준 전국의 남녀 중학교 1학년생을 모집단으로 지역(시·도 및 도시 규모)과 남녀공학 구분을 기준으로 한 학교 단위의 확률표집(층화다단계집락 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0년에 조사를 완료한 원표본은 2,351명으로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제6차 조사(2015년)에는 2,056명이 참여하여 87.5%의 원표본 유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I-2 KCYPs 제1~6차 조사 조사인원과 원표본 유지율

	제1차 조사	제2차 조사	제3차 조사	제4차 조사	제5차 조사	제6차 조사
조사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표본의 학령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조사인원(명)	2,351	2,280	2,259	2,108	2,091	2,056
원표본 유지율(%)	100.0	97.0	96.1	89.7	88.9	87.5

중1 패널의 비행 문항 조사는 첫 해에는 실시되지 않았고 제2차 조사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2차에서 제6차 조사까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개년간의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2차, 제6차 조사의 주요 배경변인별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I-3>과 같다.

표 I-3 표본의 특성

		제2차 조사(중2)		제6차 조사(고3)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계	2280	100.0	2056	100.0	
	남자	1152	50.5	1041	50.6	
	여자	1128	49.5	1015	49.4	
거주지역	계	2219	100.0	1961	100.0	
	서울특별시	217	9.8	174	8.9	
	부산광역시	127	5.7	120	6.1	
	대구광역시	150	6.8	142	7.2	
	인천광역시	147	6.6	114	5.8	
	광주광역시	91	4.1	77	3.9	
	대전광역시	99	4.5	91	4.6	
	울산광역시	106	4.8	99	5.0	
	세종특별자치시	0	0.0	1	0.1	
	경기도	302	13.6	272	13.9	
	강원도	105	4.7	81	4.1	
	충청북도	126	5.7	119	6.1	
	충청남도	88	4.0	86	4.4	
	전라북도	113	5.1	100	5.1	
	전라남도	115	5.2	94	4.8	
	경상북도	157	7.1	147	7.5	
	경상남도	143	6.4	133	6.8	
	제주특별자치도	133	6.0	111	5.7	
	부모 구성	계	2220	100.0	1961	100.0
		양친 가정	1958	88.2	1728	88.1
부자 가정		99	4.5	84	4.3	
모자 가정		129	5.8	123	6.3	
양친 모두 안 계심		34	1.5	26	1.3	
최종학력: 부친	계	2042	100.0	1797	100.0	
	중졸 이하	66	3.2	65	3.6	
	고졸	831	40.7	752	41.8	
	전문대 졸	201	9.8	179	10.0	
	대졸	853	41.8	720	40.1	
	대학원 졸	91	4.5	81	4.5	
최종학력: 모친	계	2073	100.0	1836	100.0	
	중졸 이하	59	2.8	56	3.1	
	고졸	1122	54.1	967	52.7	
	전문대졸	216	10.4	211	11.5	
	대졸	635	30.6	570	31.0	
	대학원졸	41	2.0	32	1.7	

성별은 제2차 조사에서 남녀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였고 6차 조사에서도 이 분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거주지역별 분포⁴⁾는 두 기간 중에 서울과 인천, 광주,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가 감소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변함이 없거나(전북) 소폭으로 증가(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부모 구성은 양친 가정이 88%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한부모가정은 모자 가정이 부자 가정보다 다소 많은 편으로서 이 분포는 두 기간 중 변함 없이 유지되었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부친이 모친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제2차와 6차 조사 모두 부친은 고졸과 대졸이 40%대의 유사한 분포를 보인 반면, 모친은 고졸이 50%를 상회하여 30%대의 대졸보다 많았다.

2)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변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행 경험과 빈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한 독립변인은 인구사회학적 속성인 “성별”과 거주지역(이하 “지역”), 가정배경 속성인 부모의 최종학력(이하 “부모학력”)과 가구의 연 평균 소득(이하 “가구소득”)의 네 가지이다.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은 응답결과를 리코드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지역은 17개 시·도를 광역자치단체 분류 기준에 따라 “서울”과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군부”(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부모학력은 부친과 모친 각각에 대하여 조사한 응답결과를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하였다. 총 5단계의 응답척도 중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졸 이하(1), 고졸(2), 대졸 이상(3)으로 리코드한 뒤, 부친과 모친 각각에 대한 응답값을 합산한 평균값이 2.0 미만일 경우 “중졸 이하”로, 2.0에서 3.0 미만일 경우 “고졸”로, 3.0 이상일 경우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한부모 가정일 경우 해당 부모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였고, 양친 모두 안 계신 경우(제2차 조사 1.5%, 제6차 조사 1.3%)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구소득은 매년 만 원 단위로 측정한 응답값의 10분위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2분위 기준점에

4) KCYPS의 지역별 표집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제곱근 비례할당 방식으로 이루어져 모집단의 거주지역별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다.

미달할 경우 “하위층”(20%), 2~8분위에 해당할 경우 “중간층”(60%), 8분위 기준점을 초과할 경우 “상위층”(20%)으로 3단계로 구분하였다.

제2~6차 조사기간 중 각 독립변인의 하위집단별 분포는 다음 <표 I-4>와 같다. 성별 분포는 5개년 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다소 감소한 한편(9.8% → 8.9%), 시군부가 증가(57.8% → 58.3%)하였으나 그 차이는 1% 미만에 머물렀다. 부모학력은 중졸 이하와 고졸이 증가(4.1% → 4.6%; 44.5% → 45.6%)하고 대졸 이상이 감소(51.4% → 49.8%)하여 저학력화 경향을 보였지만 변화 폭이 크지 않아서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 어렵다. 가구소득의 경우, 제2차, 4차 조사에서 2분위와 8분위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가구가 많아서 다른 해보다 중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었다.

표 I-4 독립변인 구성과 하위집단별 분포 (단위 : 명, %)

		중2		중3		고1		고2		고3	
		사례수	비율								
성별	계	2280	100.0	2259	100.0	2108	100.0	2091	100.0	2056	100.0
	남자	1152	50.5	1140	50.5	1075	51.0	1067	51.0	1041	50.6
	여자	1128	49.5	1119	49.5	1033	49.0	1024	49.0	1015	49.4
지역	계	2219	100.0	2225	100.0	2109	100.0	2031	100.0	1961	100.0
	서울	217	9.8	212	9.5	187	8.9	173	8.5	174	8.9
	광역시	720	32.4	725	32.6	689	32.7	663	32.6	644	32.8
	시군부	1282	57.8	1288	57.9	1233	58.5	1195	58.8	1143	58.3
부모학력	계	2171	100.0	2194	100.0	2083	100.0	1995	100.0	1920	100.0
	중졸 이하	89	4.1	101	4.6	99	4.8	89	4.5	88	4.6
	고졸	966	44.5	980	44.7	938	45.0	911	45.7	876	45.6
	대졸 이상	1116	51.4	1113	50.7	1046	50.2	995	49.9	956	49.8
가구소득	계	2161	100.0	2180	100.0	2058	100.0	1973	100.0	1898	100.0
	하위층	364	16.8	431	19.8	323	15.7	389	19.7	347	18.3
	중간층	1438	66.5	1345	61.7	1344	65.3	1196	60.6	1189	62.6
	상위층	359	16.6	404	18.5	391	19.0	388	19.7	362	19.1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서 종속변인이 되는 비행의 조사항목은 모두 19가지이다. 현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현실비행 13항목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전개되는 사이버 비행 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KCYPS의 비행 조사항목으로는 이밖에 “도박”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3차년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변인의 측정은 각 비행항목별로 지난 1년 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경우 지난 1년 간의 경험 횟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단, 흡연과 음주는 상습적인 경험자를 파악하기 위해 1년 간 경험 횟수 외에 하루 평균 경험 횟수(흡연), 한달 평균 경험 횟수(음주)를 제시하고 자신의 경험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표 I -5 종속변인의 구성과 조사문항

비행유형		비행항목	조사문항	
현실비행	지위비행	흡연	담배 피우기	
		음주	술 마시기(제사나 성찬식 등에서 한 모금 마시는 정도는 제외)	
		무단결석	무단결석(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	
		가출	가출(하룻밤 이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는 경우)	
		성관계	성관계	
	범법행동	집단따돌림	다른 사람을 집단따돌림(왕따)	
		심한 놀림/조롱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패싸움	패싸움	
		구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협박	다른 사람을 협박하기	
		갈취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뺨뜯기)	
		절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폭력	성폭행이나 성희롱 하기	
	사이버비행	사이버 사기	허위정보 유포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아이디 도용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신분 속임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불법SW 다운로드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사이버 폭력		욕설/폭언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해킹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비행의 하위유형 구분은 현실비행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 사이버비행은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폭력”의 각각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현실비행 항목 중 성인이 했을 경우 문제시되지 않지만 청소년(미성년)이라는 신분상 특성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는 행동(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을 “지위비행”으로, 형벌법령 또는 그에 준하는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집단따돌림, 심한 놀림/조롱, 패싸움, 구타, 협박, 갈취, 절도, 성폭력)을 “범죄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사이버비행은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행동(허위정보 유포, 아이디 도용, 신분 속임,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을 “사이버 사기”로, 타인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공격적 행동(욕설/폭언, 해킹)을 “사이버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2) 분석방법

통계의 처리와 분석은 일반 통계는 기술통계(빈도분포, 교차분석)와 평균값 차이분석(독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 분석(Pearson's r)을 활용하였고, 인과모형 검증은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분석을 활용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PSS 20.0과 Amos 17.0을 사용하였다.

3) 이탈표본 검토

패널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반복하기 때문에, 조사가 거듭될수록 연락 두절, 조사 거부, 질병·사망 등의 요인으로 표본의 이탈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이종원 외, 2014 : 41). KCYPS 중1 패널 조사의 경우에도 6개년 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원표본 2,351명 중 295명(12.5%)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표본의 이탈이 랜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체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비행 경험과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조사 이탈률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수준이라면,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표본의 이탈이 조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에 활용된 변인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독립변인인 성별(남자/여자), 지역별(서울/광역시/시군부), 부모학력별(중졸 이하/고졸/대졸 이상) 하위집단의 구성비(표 I-4 참조)는 여섯 차례의 조사기간

동안 거의 변함 없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구성비에 있어서 다소의 변동은 있었지만 그 차이는 모두 1% 미만이었기 때문에, 표본의 이탈이 특정 하위집단에서 체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표본의 이탈이 종속변인인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표 I-6>과 <표 I-7>은 각년도 조사에 참여한 표본과 이탈 표본의 전년도 비행 경험빈도⁶⁾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만약 두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면 비행경험의 측면에서 표본이탈에 체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무선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년도의 비교 결과를 보면, 제3차 조사의 경우 음주와 패싸움의 두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탈표본이 참여표본보다 경험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즉, 전년도(제2차 조사)에 음주와 패싸움의 경험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들이 다음 해 조사(제3차 조사)에서 많이 이탈한 것이다. 이어서 제4차 조사에서는 무단결석과 구타, 제5차 조사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제6차 조사에서는 해킹에서 이탈표본과 참여표본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이탈표본과 참여표본 간의 비행경험 차이가 조사대상 19개 항목 중 매년 1~2 항목에서만 나타나고, 특정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행 경험의 측면에서 KCYPS의 표본 이탈은 무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가구소득별 하위집단(하위층/중간층/상위층)은 매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비행빈도는 척도의 통일성을 가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에 따라 모두 3단계로 리코드하였다; 흡연은 “경험 없음” “1년에 ()회” “하루에 ()회”, 음주는 “경험 없음” “1년에 ()회” “한달에 ()회”으로, 현실비행의 다른 항목들은 “경험 없음” “1~2회” “3회 이상”으로, 사이버 비행의 모든 항목들은 “경험 없음” “1~5회” “6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I-6 조사 참여 표본과 이탈 표본의 비행경험 차이 검증 : 제3, 4차 조사

		2차 조사 비행빈도 - 3차 조사 조사참여 여부				3차 조사 비행빈도 - 4차 조사 조사참여 여부			
		N	M	SD	t	N	M	SD	t
흡연	참여	2228	.08	.33	-.38	2096	.10	.41	-.91
	이탈	51	.10	.41		160	.13	.48	
음주	참여	2229	.05	.26	-2.19*	2094	.09	.34	-.47
	이탈	51	.14	.45		160	.10	.39	
무단결석	참여	2227	.04	.24	-1.11	2090	.04	.27	-4.02***
	이탈	51	.08	.34		158	.14	.49	
가출	참여	2227	.04	.24	-.08	2094	.03	.22	-1.05
	이탈	51	.04	.28		158	.05	.29	
놀림/조롱	참여	2226	.10	.40	.33	2092	.06	.31	.56
	이탈	51	.08	.39		159	.04	.26	
집단따돌림	참여	2228	.04	.23	-.006	2096	.01	.11	.16
	이탈	51	.04	.20		160	.01	.08	
패싸움	참여	2229	.01	.10	-2.23*	2096	.00	.05	-.74
	이탈	51	.04	.20		160	.01	.08	
구타	참여	2227	.04	.23	-1.87	2097	.01	.12	-2.13*
	이탈	51	.10	.36		160	.03	.24	
협박	참여	2229	.01	.14	.68	2095	.00	.08	.64
	이탈	51	.00	.00		160	.00	.00	
갈취	참여	2229	.02	.18	.85	2097	.01	.11	-.46
	이탈	51	.00	.00		159	.01	.16	
절도	참여	2229	.01	.12	.55	2095	.01	.09	-.14
	이탈	51	.00	.00		160	.01	.08	
성관계	참여	2229	.00	.03	.21	2096	.00	.04	.55
	이탈	51	.00	.00		160	.00	.00	
성폭력	참여	2229	.00	.07	.28	2098	.00	.07	.52
	이탈	51	.00	.00		160	.00	.00	
허위정보	참여	2227	.05	.26	.84	2095	.03	.20	-.89
	이탈	50	.02	.14		160	.04	.26	
불법SW	참여	2222	.43	.73	.41	2087	.34	.66	1.93
	이탈	51	.39	.72		159	.25	.59	
아이디 도용	참여	2227	.07	.30	.33	2094	.06	.27	-.24
	이탈	51	.06	.24		160	.06	.31	
신분 속임	참여	2226	.19	.49	-.09	2093	.11	.37	-.07
	이탈	51	.25	.56		160	.11	.35	
해킹	참여	2228	.02	.16	-.06	2097	.02	.14	-.30
	이탈	51	.02	.14		160	.02	.14	
욕설/폭언	참여	2208	.40	.74	.42	2078	.27	.64	1.31
	이탈	51	.35	.69		159	.21	.58	

* p < .05, ** p < .01, *** p < .001

표 I-7 조사 참여 표본과 이탈 표본의 비행경험 차이 검증 : 제5, 6차 조사

		4차 조사 비행빈도 - 5차 조사 조사참여 여부				5차 조사 비행빈도 - 6차 조사 조사참여 여부			
		N	M	SD	t	N	M	SD	t
흡연	참여	2025	.15	0.49	-.39	2004	.19	0.56	-1.89
	이탈	83	.17	0.51		83	.34	0.72	
음주	참여	2025	.16	0.46	-.99	2006	.28	0.60	-1.45
	이탈	83	.23	0.59		81	.41	0.76	
무단결석	참여	2024	.05	0.31	-.85	2005	.05	0.28	-1.73
	이탈	83	.08	0.32		83	.14	0.50	
가출	참여	2024	.02	0.15	-.98	2006	.02	0.17	-1.40
	이탈	83	.05	0.27		84	.08	0.39	
놀림조롱	참여	2022	.06	0.32	.31	2006	.03	0.23	.80
	이탈	83	.05	0.31		84	.01	0.11	
왕따	참여	2025	.01	0.09	-.51	2007	.00	0.02	.21
	이탈	83	.01	0.11		84	.00	0.00	
패싸움	참여	2025	.00	0.05	-.79	2007	.00	0.05	.46
	이탈	83	.01	0.11		84	.00	0.00	
구타	참여	2025	.01	0.10	-.98	2007	.01	0.11	-.32
	이탈	83	.02	0.15		84	.01	0.11	
협박	참여	2025	.00	0.05	-.87	2007	.00	0.04	-.94
	이탈	83	.01	0.11		84	.02	0.22	
갈취	참여	2025	.00	0.06	.38	2007	.00	0.04	.35
	이탈	83	.00	0.00		84	.00	0.00	
절도	참여	2025	.00	0.07	.51	2007	.00	0.07	.43
	이탈	83	.00	0.00		84	.00	0.00	
성관계	참여	2025	.01	0.10	.60	2006	.02	0.18	-.82
	이탈	83	.00	0.00		84	.04	0.24	
성폭력	참여	2025	.00	0.04	.20	2007	.00	-	-
	이탈	83	.00	0.00		84	.00	-	
허위정보	참여	2025	.01	0.11	.72	2007	.00	0.07	.52
	이탈	83	.00	0.00		84	.00	0.00	
불법SW	참여	2022	.18	0.49	2.06*	2004	.19	0.49	.79
	이탈	83	.10	0.37		84	.14	0.42	
아디도용	참여	2025	.02	0.14	.24	2007	.02	0.14	.26
	이탈	83	.01	0.11		84	.01	0.11	
신분속임	참여	2025	.04	0.23	-.20	2007	.03	0.19	6.49
	이탈	83	.05	0.22		84	.00	0.00	
해킹	참여	2025	.01	0.10	.73	2007	.00	0.06	.39*
	이탈	83	.00	0.00		84	.00	0.00	
욕설폭언	참여	2020	.10	0.41	.91	2001	.08	0.36	1.71
	이탈	83	.06	0.33		84	.01	0.11	

* p < .05, ** p < .01, *** p < .001

제 II 장

선행연구 분석

1. 청소년비행의 통합이론
2. 현실비행의 연구결과
3. 사이버비행의 연구결과

제 II 장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비행 분야에서 오랜 염원 중의 하나는 통합이론의 개발이다. 청소년들이 왜 비행에 빠져드느냐에 대해 그간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청소년비행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론을 찾기는 어렵다. 긴장이론 연구자들은 부모학대, 성적부진, 친구 괴롭힘, 학교부적응과 같은 스트레스나 압력요인(pressure factor)이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학습이론 연구자들은 비행친구 교제, 폭력매체 노출, 조직폭력 우상화, 잘못된 사회화와 같은 왜곡된 학습 혹은 유혹요인(attraction factor)에 의해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져든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제이론 연구자들은 부모의 애정결핍, 교사의 무관심, 참여활동의 부족, 미흡한 사회감시와 같은 억제요인(restraint factor)의 결핍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개인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자아탄력성, 자존감, 왜곡된 인지행태,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청소년비행이 관련된다고 지적한다. 긴장이론, 학습이론, 통제이론, 개인특성이론은 청소년비행의 4대 핵심이론(Big Four)으로 정착했다(Agnew, 2016: 182). 4대 핵심이론을 기반으로 수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이런 노력들로 청소년비행에 관한 다양한 지식이 축적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지식들은 대부분 배경이론에 따른 나열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정책실무가들이 청소년 비행대책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종합적 설명모형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6년에 애그뉴(Agnew)는 범죄저항성과 범죄감응성이론(A theory of crime resistance and susceptibility, 이하 TCRS이론)을 발표했다. 애그뉴의 TCRS이론은 긴장이론, 학습이론, 통제이론, 개인특성이론을 연계해 청소년비행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통합이론이다. 이 장에서는 애그뉴의 TCRS이론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국내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는 애그뉴가 발표한 TCRS이론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2절에서는 TCRS이론을 토대로 현실비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제3절에서는 사이버비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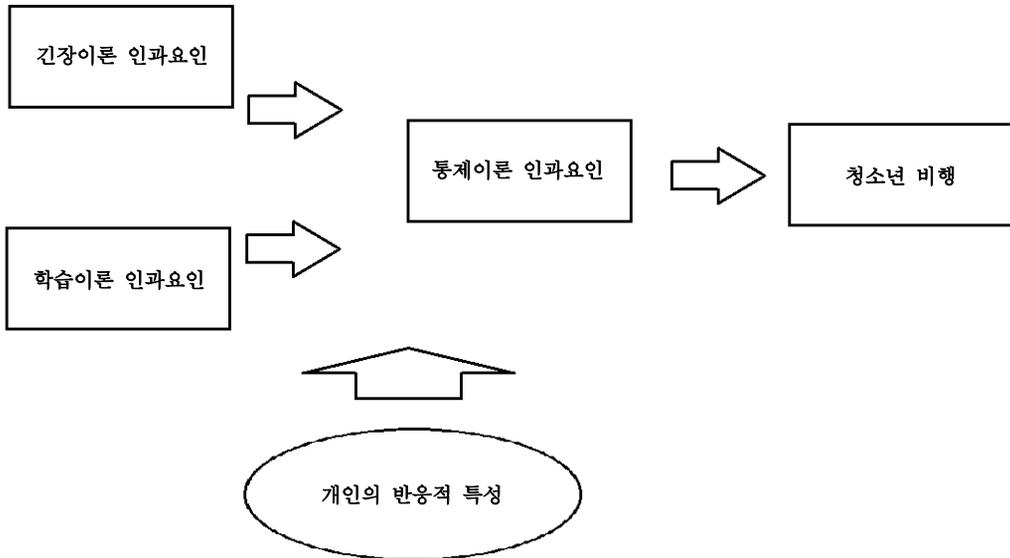
* 본 장은 이순래(원광대학교)가 집필하였음.

1. 청소년비행의 통합이론

애그뉴의 TCRS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을 기반으로 긴장이론, 학습이론, 통제이론, 개인특성이론을 논리적으로 연계한 통합이론이다(Agnew, 2016: 183).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들을 독자적 사고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정하며, 언어와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주관적 해석결과에 따라 행위를 한다는 관점이다(이순래 외, 2012: 224에서 재인용). 상호작용론에 의하면 청소년은 외부자극이 있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피동적 객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애착의 경우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30분이더라도 일부의 청소년은 바쁘신 부모님이 그만큼의 시간이라도 할애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른 일부는 이를 무관심의 징표로 해석하고 부모에 냉소적 반응을 표출한다. 유해매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부는 유해매체에 담긴 반사회적 가치를 학습하고 따라하지만, 다른 청소년들은 혐오스럽게 생각하며 그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유사한 외부자극이라도 청소년들의 인식과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각자의 주관적 사고과정에 따라 다양한 행위반응을 한다는 관점이다.

<그림 II-1>은 애그뉴의 TCRS이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애그뉴는 긴장이론의 인과요인과 학습이론의 인과요인을 반사회적 행위를 동기화하는 외부자극으로 구분한다. 긴장이론(strain theory)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거나, 긍정적 자극을 손실하거나 부정적 자극을 경험할 때에 긴장상태, 즉 분노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며 긴장상태는 이를 해소하려는 교정적 행위(corrective action)를 촉발함으로써 반사회적 행위를 한다는 견해이다(이순래, 이경상, 2010: 9).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자극의 손실, 부정자극의 경험이 반사회적 행위를 촉발하므로 애그뉴는 이를 압력요인(pressure factor)이라고 보았다. 학습이론(learning theory)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학습한 비행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비행의 원인이라는 견해이다(김준호 등, 2013: 96). 즉, 비행에 호의적인 생각과 태도를 많이 학습하면 그만큼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행에 관한 생각과 태도가 학습되는 과정에 대해 서덜랜드(Sutherland)는 주위사람들과의 교제를 강조했고(차별접촉), 에이커스(Akers)는 과거 비행의 보상경험(차별강화), 모범으로 삼은 사람을 따라하기(모방)의 과정도 비행에 호의적인 생각과 태도를 배우는 방식이라고 보았다(박상기 외, 2004: 162-163). 비행이 잘못된 학습의 결과이므로 학습이론에서 비행은 선택한 행위이다. 그리고 차별접촉, 차별강화, 모방 등으로 비행을 선택하므로 애그뉴는 학습이론

의 요소들을 유혹요인(attraction factor)으로 고려했다.



【그림 II-1】 애그뉴의 통합이론 모형

출처: Agnew (2016). A Theory of Crime Resistance and Susceptibility. 수정 인용.

이처럼, 애그뉴의 TCRS이론에서 비행의 동기화(motivation)는 두 가지 형태이다.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자극의 손실, 부정자극의 경험이 비행에로의 압력을 받는다. 그리고 비행을 옹호하는 차별접촉, 차별강화, 모방에 노출되면 비행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한편 TCRS이론에서 통제이론은 억제요인(restraint factor)으로 통합된다. 긴장이론이나 학습이론과 달리 통제이론(control theory)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요인에 주목한다. 허어쉬(Hirschi, 1969)를 비롯한 통제이론가들은 주위사람과의 애착, 미래에 대한 전념, 건전한활동에의 참여, 규범에 대한 믿음, 형사사법기관의 제재 등에 의해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Agnew, 2016: 181). TCRS이론에서 통제이론의 이런 요인들은 비행에의 압력과 유혹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한 반응을 차단하는 억제요인으로 고려되었다.

개인의 반응적 특성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애그뉴는 유사한 긴장요인, 학습요인, 통제요인을 접했어도 이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는 개인의

반응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범죄저항성(crime resistance)은 외부자극을 접했을 때에 반사회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반응특성이다. 반면에 범죄감응성(crime susceptibility)은 반사회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반응특성이다. 애그뉴는 반응특성이 네 가지 요소⁷⁾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첫번째는 부정성(negativity)이다. 이는 외부자극을 주로 나쁘고,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반응특성이다. 두번째는 감각추구성(sensation seeking)이다. 이는 금전, 물질적 재화, 권위, 권력, 스릴과 흥분, 신체적 만족을 지향하고 힘든 과업이나 희생을 회피하려는 반응특성이다. 세번째는 일상적 효율성(conventional efficiency)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이다. 이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외부자극에 대처할 수 있고 주위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믿는 성향이다. 네번째는 일반적 감수성(general sensibility)이다. 이는 외부자극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Agnew, 2016: 191-195). 결국 부정성, 감각추구성, 일상적 효율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일반적 감수성에 따라 개인의 반응적 특성이 다르며 이것이 범죄저항성(crime resistance)에 근접하면 청소년들은 긴장요인, 학습요인, 통제요인을 반사회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그것이 범죄감응성(crime susceptibility)에 근접하면 청소년들은 반사회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해석하여 그만큼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애그뉴는 4대 핵심이론들을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왜 비행을 저지르는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안한다. TCRS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비행을 동기화하는 계기는 긴장이론의 인과요인과 학습이론의 인과요인이다. 예컨대,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성적이 나빴다거나(목표달성의 실패),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긍정자극의 손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부정자극의 경험)에 분노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상태에 빠져들고 이로 인해 비행에로의 압력을 받는다. 또한 비행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고(차별접촉), 뺑뺑기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거나(차별강화), 영화에서 본 조직폭력배의 의리를 흠모하는(모방)

7) 애그뉴(Agnew)는 네 가지의 구성요소를 소질(trait), 믿음, 가치, 정체성 등의 변수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들 변수들은 구성요소들 간에 서로 중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반응적 특성은 생물학적 원인, 과거의 사회경험, 이전까지의 사회학습, 개인들이 겪었던 긴장경험, 상황적 조건들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Agnew, 2016: 184). 개인의 반응적 특성이 생물학적 원인을 포함해 이전에 각자가 겪었던 긴장요인, 학습요인, 통제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은 개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반응적 특성이 과거에 경험했던 외부자극들에 영향을 받고 다시 현재의 외부자극에 차별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은 순환적 관계(recursive relationships)를 가정하는 견해이다. 경험적 자료로 순환적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고, 애그뉴의 TCRS이론을 간략히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그림 II-1>에서는 과거경험이 현재의 반응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표기하지 않았다.

청소년은 비행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동기화 기제로 작용하여 비행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다. 통제이론의 인과요인들은 TCRS이론에서 억제요인(restraint factor)으로 통합되었다. 부모와의 관계가 밀접하거나(애착), 미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거나(전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거나(참여), 학교규칙의 필요성을 인정하며(믿음), CCTV가 우범지역에 설치된(형사사법기관의 제재) 경우에는 비행에의 압력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이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TCRS이론은 외형적으로 긴장의 수준, 학습의 수준, 통제의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인식과 해석은 개인의 반응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한다. 즉, 주위상황을 나쁘게 보는 성향이 강하고(부정성), 꾸준한 노력보다는 즉각적 스티와 흥분을 추구하고(감각성), 자신감이 낮고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며(일상적 효율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환경변화에 둔감한(일반적 감수성) 청소년은 외부자극들을 반사회적으로 이해하는 특성(범죄감응성; crime susceptibility)이 강하다. 반면에 주위상황을 좋게 보는 성격이고, 즉각적 만족을 지양하고 꾸준한 노력을 중시하며, 자신감이 강하고 주위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경변화에 세심한 경우는 외부자극들을 반사회성에 저항하는 경향(범죄저항성; crime resistance)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TCRS이론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긴장이 많아지고, 비행에 우호적인 학습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비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형성되며, 이런 비행동기를 억제할 수 있는 통제가 미비하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이다. 또한 청소년의 반응특성이 범죄저항성이면 이런 관계는 약화되고 반대로 범죄감응성이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한다.

다음에서는 TCRS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사용해 청소년비행을 연구한 국내연구들을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으로 나누어 주요 연구결과들을 살펴본다.

2. 현실비행의 연구결과

<표 II-1>에서와 같이 현실비행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해 연구한 논문과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43편이다⁸⁾. 애그뉴의 TCRS이론에 따라 구분하면 긴장이론을 이론적 배경⁹⁾으로 한 연구는 15편(34.9%)이고, 학습이론의 경우는 2편(4.7%), 통제이론의 경우는 7편(15.9%), 여러 이론들을 연계한 통합모형¹⁰⁾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연구는 19편(44.2%)이다. 통합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긴장이론, 통제이론, 학습이론의 순이다.

표 II-1 **현실비행에 대한 KCYPS 데이터 활용 연구의 분포: 2012~2015년**

청소년비행연구의 이론적 배경	발표건수	백분율
긴장이론 배경의 연구	15편	34.9%
학습이론 배경의 연구	2편	4.7%
통제이론 배경의 연구	7편	16.2%
통합모형 배경의 연구	19편	44.2%
전체	43편	100.0%

8) 본 연구는 비행, 학교폭력, 일탈, 공격행동, 사이버비행 등을 주제로 논문 전문을 검색하고 그 중에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사용한 연구들을 선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논문이나 보고서 중에서 현실비행을 다룬 연구는 43편이었고 사이버비행을 다룬 연구는 6편이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에서 논문 전문이 게재되지 않았거나, 전산화되지 않은 학술논문집에 발표된 논문, 학술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학위논문이나 연구발표는 누락되었을 수 있다.

9)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배경이론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변수(variable)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한 경우는 주요 변수의 성격으로 배경이론을 추론했다.

10) 국내 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이었던 통합모형은 2016년에 발표된 애그뉴의 TCRS 통합이론과 다르다. 애그뉴의 통합이론은 4대 핵심이론 모두를 논리적으로 연계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종합적 분석틀이다. 이에 반해 국내 연구들의 통합모형은 긴장이론과 개인특성이론의 통합,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의 통합과 같이 핵심이론의 일부만을 통합한 것이다.

1) 긴장이론 연구

긴장이론의 핵심명제는 일상생활에서 목표달성의 실패(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긍정자극의 손실(좋아하는 대상을 잃는 경우), 부정자극의 경험(싫어하는 사건을 접하는 경우)이 있으면 청소년은 분노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고, 부정적 감정은 이를 해소하려는 교정적 행위(corrective action)을 유발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비행이 저질러진다는 것이다(이순래, 이경상, 2010: 9에서 재인용).

긴장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연구는 15편이다(<표 II-2> 참조). 그 중에서 부모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7편이다(구귀남, 김태균, 2013; 김재철 등, 2013; 김혜금, 2013; 2014; 박순지, 2015; 이인선, 최지현, 2014; 조예진 등, 2015). 먼저 구귀남과 김태균(2013)은 부모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학대가 현실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부모학대의 실태에서 그 수준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부모학대의 수준은 4점 척도에서 평균이 3.16점으로 “거의 없다”에 근접했다. 부모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회귀분석에서 부모학대가 현실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김재철 등(2013)은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부모학대는 공격성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인터넷중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있었다. 또한 부모학대가 심하면 학교폭력 피해가 많았고, 인터넷중독의 수준도 증가했다. 이 연구를 통해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재철 등(2013)은 구조방정식에서 공격성과 현실비행의 인과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부모학대가 공격성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되지 않았다.

김혜금(2013; 2014)은 부모학대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혜금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면 비행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했다. 이런 가정에서 부모학대의 영향을 분석했을 때에 부모학대는 학교생활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대가 심할수록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측면이 악화되는 경향이었다. 앞서 김재철 등(2013)의 연구와 같이 김혜금(2013; 2014)도 부모학대가 과연 학교부적응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지를 검증하지 않았다.

표 II-2 현실비행에 대한 KCYPs 데이터 활용 연구 - 긴장이론

저자	발표연도	연구제목
구귀남, 김태균	2013	부모의 학대 방임, 청소년체험활동이 학생비행에 미치는 영향
김예성, 안재진	2015	사춘기 성숙시기에 따른 여자청소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를 중심으로
김재철 등	2013	청소년의 부모학대피해경험, 학교폭력피해경험, 인터넷중독과 공격성간의 관계
김혜금	2013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비행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혜금	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박성훈, 이유나	2014	청소년비행에 있어 피해-가해 연계의 변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순지	2015	가정폭력 피해가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서윤, 김현숙	2013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지속성 및 정도가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양상민	2015	학교폭력 집단유형별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순래	2013	고정효과(fixed effects)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순희, 허만세	2015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이인선, 최지현	2014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이희정, 황선영	2012	청소년의 ADHD 성향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조예진 등	2015	부정적 양육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비행피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조주영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유형 변화 및 사회정서변인간의 관계

박순지(2015)는 부모학대, 교사관계, 학교폭력 가해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부모학대 피해경험을 유무 척도로 측정했을 때 부모학대 경험률은 약 24.2%이었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에서 김혜금(2013, 2014)의 연구와 같이 부모학대는 교사관계에 부적인 영향이었다. 부모학대가 있으면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향이었다. 그러나 부모학대가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구귀남과 김태균(2013)의 연구와 같이 부모학대가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교사관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구귀남과 김태균(2013)과 박순지(2015)의 연구는 국내에서 부모학대-현실비행 관계는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고 시사한다. 반면에 부모학대와 학교폭력 피해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부모학대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앞서 김재철 등(2013)의 연구와 같이 부모학대가 있으면 학교폭력 피해를 겪는 경향이였다.

이인선과 최지현(2014)은 부모학대와 학교폭력 피해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은 피해유형을 “피해없음” “부모학대” “학교폭력피해” “중복피해”의 네 집단으로 구분했다. 피해유형별로 심리적 적응을 비교했을 때에 중복피해 집단에서 심리적 적응수준이 가장 낮았다. 즉, 중복피해 집단은 삶의 만족도, 자존감, 우울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부모학대 집단은 학교폭력 피해 집단보다 적응수준이 높았지만, 피해없음 집단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가 부모학대에 비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예진 등(2015)은 부모의 강압적 양육이 사회적 위축감, 비행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했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 부모의 강압적 양육이 비행 피해율의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이었고, 변화율에는 부정적 영향이였다. 그리고 부모의 강압적 양육이 비행 피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이 나이가 들어 학교생활에 집중하면서 감소하였다. 강압적 양육의 초기치는 사회적 위축감의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이었고, 사회적 위축감의 초기치는 비행 피해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이였다. 즉, 강압적 양육이면 사회적 위축감이 높았으며, 사회적 위축감이 높으면 비행 피해가 많아지는 경향이였다.

국내 연구에서 부모학대 다음으로 많이 다루었던 긴장요인은 학교폭력 피해이다(박성훈, 이유나, 2014; 서운, 김현숙, 2013; 양상민, 2015; 이순래, 2013; 이희정, 황선영, 2012; 조주영, 2014). 6편의 연구가 학교폭력 피해의 부정자극을 겪었을 때에 그 영향을 분석했다. 그중에서 박성훈과 이유나(2014)는 청소년비행의 피해와 가해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에서 불링은 “피해-가해”로, 현실비행은 “가해-피해”로 변화하는 경향이였다. 또한 현실비행에서 가해의 초기치는 피해의 초기치와 정적인 관계였고 피해의 변화율과는 부적적인 관계였다. 불링의 경우는 피해의 초기치는 가해의 초기치와 정적인 관계였고 가해의 변화율과는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분석모델에 비행친구와 생활양식을 투입했을 때에 생활양식의 영향은 지속되었지만 비행친구의 영향은 나이가 많았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운과 김현숙(2013)은 학교폭력 피해가 사회정서 발달¹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무경험” “일시경험” “지속경험”으로 구분되었다. 무경험은

11) 서운과 김현숙(2013)의 연구에서 사회정서발달의 하위차원은 자존감,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 등이다.

2년 동안에 학교폭력이 없었던 경우이며, 일시경험은 1회의 학교폭력이 있었던 경우, 지속경험은 2년 간 학교폭력이 있었던 경우이다. 회귀분석에서 일시경험은 사회정서 발달의 하위차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속경험은 공격성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에 서윤과 김현숙은 1회의 학교폭력 피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의 학교폭력 피해는 청소년의 사회정서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상민(2015)은 학교폭력 집단별로 공동체의식에 중요한 영향들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 집단은 “피해집단” “가해집단” “중복집단” “일반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회귀분석에서 일반집단과 가해집단, 피해집단의 경우,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유사했다. 그러나 중복집단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중복집단을 분석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또래관계를 제외하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다. 이에 양상민은 중복집단은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집단특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순래(2013)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의 영향을 분석했다. 교차분석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다음 해에 184% 가량 더 많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였다. 일반회귀분석과 고정효과모형에서 학교폭력 피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의 효과는 고정효과모형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에 이순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발전하는 것은 피해 이후의 상황변화와 개인의 시간불변적 특성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순희와 허만세(2015)는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는 실패 모델, 행동화 모델, 상호인과 모델로 구분되었다. 여기서 실패 모델은 비행으로 주위사람의 비난이나 지지의 감소와 같은 실패를 초래하며, 이런 실패로 우울이 야기된다는 견해이다. 행동화 모델은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가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로 발현된다는 견해로, 우울이 비행에 선행한다는 견해이다. 상호인과 모델은 비행과 우울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 인과관계 있다는 견해이다(이순희, 허만세, 2015: 250). 잠재차이모형(LDS, Latent Difference Model) 분석에서 전년도의 우울은 차년도의 비행변화에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전년도의 비행은 차년도의 비행변화에 유의한 효과로 나타났다. 이에 이순희, 허만세(2015)은 국내에는 실패 모델 즉 비행이 우울에 선행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¹²⁾.

12) 이순희와 허만세(2015)의 견해는 생활긴장에 의한 분노나 우울이 비행을 유발한다는 애그뉴의 TCRS0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이순희와 허만세(2015)가 활용한 LSD 모형이나 교차지연모형의 문제일 수 있고, 혹은 애그뉴의 TCRS 이론에 내재한 오류 때문일 수 있다. 애그뉴의 TCRS0론에서 우울과 비행의 선후관계는 중요한 이슈이므로 앞으로 추가적 연구가

조주영(2014)은 학교폭력의 경험과 사회정서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 경험유형은 “가해” “피해” “가피해” “일반”으로 구분되었다. 사회정서의 평균차분석에서 피해 집단은 일반 집단에 비해 사회정서가 부정적이었다. 피해 집단은 일반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만족도가 낮았고 위축감, 공격성, 우울이 높았다. 가피해 집단에서 사회정서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를 통해 서운과 김윤숙(2013)의 연구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 혹은 가피해가 사회정서 발달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그뉴는 TCRS이론에서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겪는 발달론적 긴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에 국내 연구자들은 발달론적 긴장을 청소년의 주요 긴장요인으로 고려하고 그것의 영향을 분석했다(김예성, 안재진, 2015; 이순희, 허만세, 2015; 이희정, 황선영, 2012). 그중에서 김예성과 안재진(2015)은 사춘기의 생리적 신체적 변화에 따른 심리, 정서적 긴장의 영향을 분석했다. 김예성과 안재진(2015)은 심리, 정서적 긴장수준을 초경시기에 따라 조숙, 정상, 만숙으로 구분하고 조숙=1, 정상=2, 만숙=3으로 측정했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초경시기는 차년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이었고, 차년도의 공격성은 그 다음 연도의 학교규범 준수에 유의한 영향이었다. 이에 김예성, 안재진(2015)은 여자청소년의 발달론적 긴장이 공격성과 학교규범 준수에 중요한 인과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정과 황선영(2012)은 ADHD 성향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ADHD¹³⁾는 핵심 증상이 부주의, 과활동과 충동성으로 학령기에 이러한 증상들이 잘 드러나는 신경행동적 장애이다(이희정, 황선영, 2012: 412에서 재인용).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학령기의 ADHD는 학교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이었다. ADHD의 수준이 심할수록 학교폭력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또한 이들은 학교폭력 피해를 매개변수로 하여 ADHD,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ADHD는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학교폭력 피해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있었다. 이는 ADHD 학생의 경우에 부주의와 과활동성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이런 성향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겪음으로써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으로 학교폭력에 깊이 빠져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있어야 할 것이다.

13) ADHD는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어이다.

2) 학습이론 연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 중에서 학습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표 II-3〉 참조). 2편의 연구(서명석, 양혜진, 2012; 이종원, 2014)가 학습이론을 중심으로 현실비행을 분석했다. 그중에서 서명석과 양혜진(2012)은 대중매체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대중매체 접촉은 팬덤활동, 컴퓨터 사용, 휴대전화 사용, 유해매체 사용 등으로 구분되었다. 회귀분석에서 대중매체 접촉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였다. 먼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매개로 다른 팬들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팬덤활동은 비행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컴퓨터사용의 경우에는 현실도피나 재미를 위해 컴퓨터를 주로 사용한 “오락추구형”이 비행에 정적인 영향이었다. 사회적 관계를 위해 사용한 “관계형”이나 실용적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한 “정보추구형”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휴대폰 사용의 경우에 친구와 정보교환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친구 정보전달형”이 정적인 영향이었고, 동영상 등의 시청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개별화형”과 가족과 정보교환을 위해 사용하는 “가족정보전달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유해매체 접촉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행친구 접촉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다른 변수들에 비해 그 효과가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오락추구형” 컴퓨터 사용, “친구정보전달형” 휴대폰 사용, 비행친구 접촉이 비행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 **현실비행에 대한 KCYPs 데이터 활용 연구 - 학습이론**

저자	발표연도	연구제목
서명석, 양혜진	2012	팬덤활동과 매체활동이 청소년의 일탈에 미치는 영향: 일탈친구 접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종원	2014	성인용 매체몰입과 성비행의 인과관계

이종원(2014)은 성인매체의 접촉수준이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에서 성인매체와 성비행의 자기회귀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이전 연도에 성인매체 접촉이 많았으면 차년도에도 접촉이 많았고, 이전 연도에 성비행이 있었으면 차년도에도 성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였다. 성인매체와 성비행의 교차지연 경로는 부분적으로 유의했다. 이전 연도의 성인매체 접촉이 차년도의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했으나, 이전 연도의 성비행이

차년도의 성인매체 접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학습이론을 근거로 하면 성인매체 접촉으로 성비행을 우호적으로 보는 생각과 태도를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통제이론 연구

<표 II-4>와 같이 통제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현실비행을 분석한 연구는 7편이다(강소영, 정철우, 2013; 김성훈, 2015; 신태섭 등, 2012; 이석영 등, 2014; 이지영, 이호준, 2015; 임재연 등, 2014; 임정아, 2015). 그중에서 강소영과 정철우(2013)는 청소년 문화활동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들은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사회유대가 형성되어 청소년비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 연구에서 문화활동은 스포츠활동, 여행, 종교활동, 교내외 동아리활동 등으로 구분되었다. 회귀분석에서 스포츠활동 시간이 학교폭력 피해에 유의한 영향이었다. 스포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학교피해를 겪지 않는 경향이었다. 여행시간, 종교활동, 교내 동아리활동, 교외 동아리활동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학교폭력 피해가 2회 이상이면 중복피해로 구분하고, 문화활동이 중복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중복피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화활동은 스포츠활동, 종교활동, 교외동아리 활동이었다. 스포츠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중복피해를 겪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활동이나 교외동아리 활동의 효과는 연구자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었다. 종교활동에 참여했을 때에 중복피해의 가능성이 높았고, 교외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을 때도 중복피해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강소영, 정철우는 종교활동이나 교외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비행친구 집단이 생겼을 가능성 때문으로 설명했다(강소영, 정철우, 2013: 18).

김성훈(2015)은 부모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부모통제는 가족구조가 친부와 친모이면 부모통제 상위그룹, 친모 혹은 친모와 새아버지이면 부모통제 중위그룹, 친부 혹은 친부와 새어머니이면 부모통제 하위그룹으로 구분되었다. 다층생존분석에서 부모통제 상위그룹의 경우 왕따를 제외하고 담배, 술, 결석, 놀림, 가출 등의 비행이 감소했다. 특히 가출은 부모통제 수준에 따라 가장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통제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며, 부모통제가 비행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억제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4 현실비행에 대한 KCYPS 데이터 활용 연구 - 통제이론

저자	발표연도	연구제목
강소영, 정철우	2013	청소년 문화활동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김성훈	2015	청소년 최초 비행 요인에 대한 다층생존분석 연구
신태섭 등	2012	저소득층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참여가 정서문제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석영 등	2014	체육운동시간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이지영, 이호준	2015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행동 감소 효과 분석
임재연 등	2014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과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정아	201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참여활동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신태섭 등(2012), 이지영과 이호준(2015), 이석영 등(2014)은 체험활동의 영향을 분석했다. 신태섭 등(2012)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이 연구에서 체험활동은 방과후 교육,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교내 동아리활동 등으로 구분되었다. 체험활동 영역별 평균차이분석에서 모험개척활동과 교내 동아리활동의 참여 여부는 비행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다른 체험활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모험개척활동의 경우,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비행을 덜 저질렀다. 그러나 교내 동아리활동의 경우는 반대로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이는 교내 동아리활동을 하면 비행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교내 동아리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지영과 이호준(2015)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를 기준으로 체험활동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각 영역에 참여한 시간들을 합산해 체험활동 변수를 구성했다. 선형회귀분석에서 체험활동이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이었다. 그러나 미측정(unmeasured) 개인특성을 고려한 고정효과모델에서 체험활동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기존연구들이 보고한 체험활동과 비행의 관계가 미측정 개인특성에 의한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ships)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석영 등(2014)은 체육활동시간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체육활동시간은 우울, 주의집중 결여, 공격성, 사회적 위축과 부적인 관계였다. 체육활동시간이 길수록 전체적으로 정서문제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성별을 고려했을

때에 체육활동시간은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서는 유의했고, 주의집중 결여와 공격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체육활동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임재연 등(2014)은 학교적응에 미치는 애착(attachment)의 영향을 분석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심리적 고통 뿐 아니라 결석, 학교활동 기피, 학업성적 장애 등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겪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임재연 등, 2014: 103). 임재연 등(2014)은 학교폭력 피해의 영향이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했다. 주효과(main effects)만을 고려한 회귀분석에서 학교폭력 피해는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이었다. 즉,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성적, 학습태도, 학교규칙 준수 등 학교적응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s)을 포함한 회귀분석에서 교우관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어도 교우들과 애착이 있으면 학교적응 수준이 향상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를 극복하는 데 교사보다 주위 교우가 더 유효한 통제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임정아(2015)는 부모애착과 참여활동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에서 참여활동은 이지영, 이호준(2015)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부모애착은 비행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이었다. 즉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고(초기치), 반복적 비행습관(변화율)이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이는 부모애착은 비행참여를 억제하고, 더불어 비행에 이미 빠진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 통합모형 연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논문과 보고서들 중에서 통합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다. Chae 등(2012)의 연구를 포함해 19편의 연구가 통합모형으로 현실비행을 분석했다. 국내 연구들은 주로 4대 핵심이론들(Big Four)의 일부를 조절관계(modulation relationships)나 매개관계(mediation relationships)로 설정하여 이론들을 통합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연구들의 통합모형은 애그뉴의 TCRS이론과 다르다. TCRS이론은 4대 핵심이론 모두를 논리적으로 연계한 통합이론이지만, 국내 연구들의 통합모형은 긴장이론과 개인특성이론의 통합,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의 통합과 같이 일부만을 통합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19편들 중에서

대표적 연구를 선별하여 연구결과를 검토한다.

표 II-5 현실비행에 대한 KCYPS 데이터 활용 연구 - 통합모형

저자	발표연도	연구제목
Chae, S.E. 등	2012	Effects of parenting types o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delinquency mediated by students' life satisfaction
강경훈, 최수미	2013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선아	2013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다문화수용성이 내외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은향, 이자명	2013	학교폭력 리질리언스 모형탐색: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적응 촉진 요인을 중심으로
박은주, 최말옥	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재근	2012	학교폭력이 피해청소년들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박혜숙, 김양곤	2013	청소년의 가정환경 특성과 또래환경 특성이 비행(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정서문제(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봉언 등	2012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 탐색: 성별 다집단 분석
선우현정, 이희선	2014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교사-학생 관계의 조절효과
심현진	2014	청소년의 미시체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옥정	2013	학대경험이 청소년 비행행동과 비행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교사관계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이경상 등	2012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이기정, 김영식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집단 결정 요인 분석 연구: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을 중심으로
이순래 등	2012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이종원	2013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이주연, 전종설	2015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및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임선아	2014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행경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비교
임선아	2014	인터넷 사용유형이 사회심리문제, 학교적응, 비행에 미치는 영향
최재용, 한보영, 이윤호	2014	청소년 지위비행 원인의 성별비교: 일반범죄이론들을 중심으로

옥정(2013)은 교사관계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¹⁴. 학대경험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자극이며, 이로 인해 해당 청소년은 분노, 사회적 위축, 우울, 소외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학대경험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옥정은 독립변수의 주효과에 대해 회귀분석을 했다. 주효과 회귀분석에서 방임과 교사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었다. 즉 방임의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이 많았고, 교사관계가 우호적일수록 비행을 자제하는 경향이었다. 다음 단계로,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했다. 상호작용 회귀분석에서 교사관계와 학대경험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학대경험의 영향이 교사관계가 우호적이면 감소했고, 우호적이지 않으면 학대경험의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는 판별되지 못했다. 주효과 회귀분석에서 또래애착은 부적으로 유의미했다. 교우관계가 우호적이면 비행이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상호작용 회귀분석에서 또래애착과 학대경험의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옥정은 학대경험과 비행의 관계에서 교사관계가 조절효과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학대경험이 있더라도 교사관계에 따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으로,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을 통합함으로써 옥정은 현실비행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경상 등(2012)의 연구는 사회통제이론과 개인특성이론을 매개관계로 통합한 경우이다. 이경상 등은 허어쉬의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에 따라 부모애착, 교사애착, 이웃통합을 비행유발의 주효과(main effects)로, 개인특성에 관한 시몬스와 버트(Simons & Burt)의 비행유발적 지식구조를 매개효과로 현실비행을 분석했다.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는 주위 사물을 해석하는 개인의 인식습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경상 등은 적대적 시각, 미래편하시각, 냉소적 시각으로 구분했다. 이경상 등의 가설은 부모애착, 교사애착, 이웃통합이 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의 인식습관을 매개로 한다는 것이었다. 매개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이경상 등(2012)은 직접효과 모델, 매개효과 모델, 최종 모델을 단계별로 검증했다. 직접효과 모델에서는 독립변수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매개효과 모델에서는 독립변수들이 비행유발적 지식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직접효과 모델과 매개효과 모델에서 사회통제변수들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최종 모델에서는 사회통제변수들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비행에 미치는

14) 학대경험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자극이며 교사관계와 또래애착은 비행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애착(attachment)이다. 이런 점에서 옥정의 연구(2013)는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의 통합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통합의 방식은 청소년 비행의 주원인(main effect)은 긴장이론에서 도출하고, 통제이론의 인과요인(애착)을 조절효과(modulation effect)로 한 통합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향을 검증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경상 등(2012)은 사회통제변수가 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행유발적 지식구조의 형성에 작용하며, 이렇게 형성된 비행유발적 지식구조가 비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이경상 등, 2012). 즉 주위사물들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목적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냉소적으로 보는 인식습관으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옥정(2013)의 연구와 같이 이경상 등(2012)은 사회통제이론과 개인특성이론을 통합함으로써 현실비행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3. 사이버비행의 연구결과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은 청소년들에 이제 생활의 필수도구이며,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사이버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사이버세계의 도래로 청소년들은 과거엔 불가능했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수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인터넷상의 동영상을 즐길 수 있고, 카페나 동아리활동으로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사이버세계는 비대면성, 익명성, 시·공간적 무제한성, 가상현실 등의 특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해를 끼치는 위해환경일 수도 있다(이순래 등, 2010; 41-46).

사이버세계의 위해성에 대해 그간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세계에서 행해지는 비행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이버비행의 연구는 수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 대부분은 법적처벌이나 인터넷 윤리교육 연구에 관한 것들이었다(전홍빈, 2015: 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사이버비행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6편의 연구만이 사이버비행을 분석했을 뿐이다(<표 II-6> 참조).

표 II-6 사이버비행에 대한 KCYPS 데이터 활용 연구

저자	발표연도	연구제목
서봉언, 김경식	2014	청소년 사이버 욕설의 영향 요인 분석: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이희정, 황선영	2013	사이버 비행이 1년 후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전홍빈	2015	중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명현, 엄보아	2015	학교폭력피해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김재철	2015	청소년의 오프라인 비행과 온라인 비행의 발달계적유형 및 영향요인 탐색
최해경	201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양식과 비행의 관계

6편의 연구 중에서 서봉언과 김경식(2014)은 사이버욕설의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이들이 영향 요인으로 고려했던 변수들은 현실비행의 설명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실비행 연구와 같이 부모애착, 부모유대, 학습활동, 학교규칙 등의 영향을 고려했다. 그리고 사이버욕설이

인터넷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컴퓨터 이용빈도, 컴퓨터 게임시간, TV 시청시간 등이 설명변수로 고려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성별, 지위비행, 컴퓨터 게임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남학생일수록, 지위비행이 많을수록, 컴퓨터 게임시간이 많을수록, 사이버욕설을 많이 하는 경향이였다.

이희정과 황선영(2013)은 사이버비행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희정과 황선영(2013)은 사이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현실비행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험들이 차년도의 우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이들의 가설은 입증되었다. 사이버비행은 학교폭력 피해와 차년도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정적인 영향이였다. 사이버비행을 했으면 학교폭력 피해가 많았고 차년도에 우울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의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학교폭력 피해는 사이버비행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이희정과 황선영(2013)은 사이버비행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학교폭력 피해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했다.

전홍빈(2015)은 아동학대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전홍빈의 가설은 이희정과 황선영(2013)의 가설과 다르다. 이희정과 황선영(2013)은 사이버비행이 우울에 선행한다고 했지만, 전홍빈은 아동학대가 우울과 사이버비행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이 사이버비행에 선행한다고 가정했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아동학대는 우울과 사이버비행 모두에 유의한 영향이었고, 우울은 사이버비행에 유의한 영향이였다. 또한 우울을 매개로 한 아동학대의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아동학대가 있으면, 사이버비행이 증가하고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우울로 사이버비행이 늘어나는 경향이였다. 전홍빈(2015)의 결과는 이희정과 황선영(2013)의 연구결과와 배치된 것이다. 따라서 우울이 사이버비행에 선행하는지, 아니면 사이버비행으로 우울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연구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명현과 염보아(2015)는 학교폭력 피해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학교폭력 피해는 우울,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서적 문제 중에서 최명현과 염보아(2015)는 사회적 위축에 주목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피해학생들이 사이버비행에 의존할 것으로 가정했다. 즉, 사회적 위축이 학교폭력 피해의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보았다.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에서 학교폭력 피해, 사회적 위축, 사이버비행은 항상적이였다. 전년도에 학교폭력 피해가 있으면 차년도에도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향이였다. 전년도에 사회적 위축이 심하면 차년도에도 사회적위축이 심했다. 또한 전년도에 사이버비행을 했으면 차년도에도 사이버비행을 하는 경향이였다. 잠재성장모형에서 학교폭력 피해는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정적인 영향이었다.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에 최명현과 염보이는 학교폭력 피해는 사이버비행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사이버비행에 탐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지영과 김재철(2015)은 사이버비행의 발달궤적을 분석했다. 잠재계층(latent class)을 구분하는 혼합모형을 통해 사이버비행의 발달궤적은 비비행유지군, 점진적 비행군, 비행유지군, 점진적 비비행군으로 분류되었다. 비비행유지군은 사이버비행을 지속적으로 적게 하는 집단, 점진적 비행군은 적게 하다가 많이 하는 집단, 비행유지군은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 집단, 점진적 비비행군은 많이 하다가 적게 하는 집단이다. 성장혼합모형 분석에서 비행유지군의 경우에 남학생들이 이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컸다. 또한 학대의 정도가 낮을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비행유지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컸다. 점진적 비행군의 경우는 남학생들이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컸다. 점진적 비비행군의 경우는 남학생일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이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사이버비행의 발달궤적과 현실비행의 발달궤적을 비교했을 때에 일치도는 44%가량이었고 나머지 56%는 일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44명 가량은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에서의 집단구분이 일치했고, 나머지 56명은 사이버비행의 경우는 비비행유지군이고 현실비행에서는 비행유지군처럼 집단구분이 일치하지 않았다. 집단구분이 불일치한 학생들 중에서 현실비행에서는 비행유지군이고 사이버비행에서는 비비행유지군인 경우에 비해 현실비행에서는 비비행유지군이고 사이버비행에서는 비행유지군인 경우가 많았다¹⁵⁾. 이에 최지영, 김재철(2015)은 “오프라인에서 비행을 할 경우, 온라인에서도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온라인에서 비행을 할 경우 오프라인에서 비행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온라인 비행을 주로 하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최지영, 김재철, 2015; 322)고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했다¹⁶⁾.

최해경(2015)은 인터넷 사용양상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최해경(2015)은 인터넷 사용양상을 관계추구형, 오락추구형, 정보추구형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관계추구형은 인터넷을 주로 개인 홈페이지 방문, 댓글달기, 동호회나 카페활동, 전자우편, 채팅이나 메신저,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이다. 오락추구형은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게임 및

15) 최지영과 김재철(2015) 연구에서 32명이 현실비행에서는 비행유지군이고 사이버비행에서는 비비행유지군이었다. 그리고 170명이 현실비행에서는 비비행유지군이고 사이버비행에서는 비행유지군이었다.

16) 최지영과 김재철(2015)의 연구에서 비비행유지군은 용어와 같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집단을 뜻하지 않는다. 비비행유지군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행을 적게 저지른 집단이므로 용어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오락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이며, 정보추구형은 학습관련 정보검색이나 학습 이외의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이다. 사이버비행과 가장 관련이 높은 사용양상은 오락추구형이었다. 오락추구형과 사이버비행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상관계수가 .31에 달할 정도로 밀접한 상관성이 있었다. 관계추구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상관계수가 .08로 상관성의 수준은 미약했다. 정보추구형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후 최해경(2015)은 성별로 인터넷 사용양상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봤다. 성별로 구분된 회귀분석에서 인터넷 사용양상의 영향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에서 오락추구형의 영향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으로 관계추구형이었다. 정보제공형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기존연구들이 6편에 불과하므로, 우선 앞으로 사이버비행에 대한 연구가 많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현실비행의 이론을 차용해 사이버비행을 설명하는 경향이였다. 사이버세계의 비대면성, 익명성, 시·공간적 무제한성, 가상현실 등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이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차후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행기회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이다. 서봉언과 김경식(2014)의 연구와 최해경(2015)의 연구에서 컴퓨터 사용시간이나 오락추구형 사용양상이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의 컴퓨터 사용과 오락추구형 컴퓨터 사용양상은 그만큼 사이버비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행기회와 사이버비행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면, 기회관리에 의한 사이버비행 예방대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서적 문제와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이다. 정서적 문제로 사이버비행을 하는지, 아니면 사이버비행으로 정서적 문제가 생기는데 대해 이희정과 황선영(2013)의 연구, 전홍빈(2015)의 연구, 최명현과 염보아(2015)의 연구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과의 관계이다. 최지영과 김재철(2015)의 연구에서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의 발달궤적이 일치된 경우는 44% 가량이였다. 44%를 두고 사이버비행 청소년과 현실비행 청소년의 일치성과 이질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과연 사이버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이 질적으로 현실비행 청소년과 다른지, 사이버비행으로 인해 현실비행을 하게 되는지, 현실비행을 했기 때문에 사이버비행에까지 빠져드는지,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을 오가는 과정에 어떤 요인들이 개입하는지 등에 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이버비행의 성별 차이이다. 최해경(2015)의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양상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 청소년들과 여자 청소년들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영향들도 성별과 무관하게 작용하는지, 남자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여자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다르다면 왜 다른지 등의 사안도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Ⅲ 장

현실비행의 실태와 추이

1. 비행유형별 분석
2. 비행항목별 분석
3. 요약

제 III 장 현실비행의 실태와 추이*

1. 비행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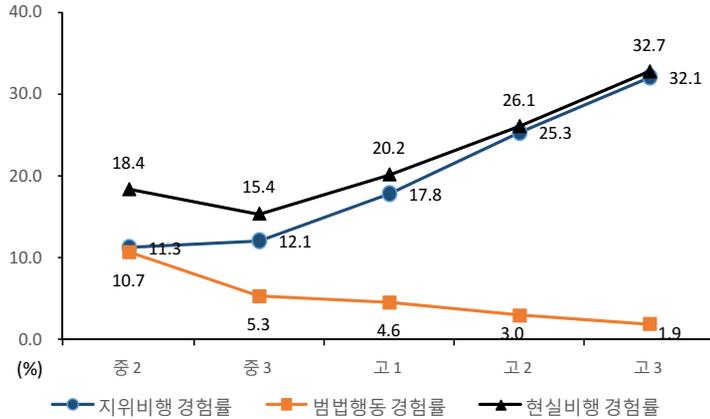
현실비행은 일상적인 현실의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으로, 현실비행의 영역을 지위비행과 범법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지위비행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 때, 성인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으나 청소년이라는 신분 특성상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김준호 외, 2013)으로 본 조사에서는 담배피우기(이하 “흡연”), 술 마시기(이하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를 지위비행으로 구분하였다. 범법행동은 형벌, 법령 또는 일반적인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정제영, 선미숙, 장선희 2016)으로 본 조사에서는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이하 “집단따돌림”),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이하 “심한 놀림/조롱”),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이하 “구타”), 다른 사람 협박하기(이하 “협박”),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빼기(뺏기기)(이하 “갈취”),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이하 “절도”), 성폭행이나 성희롱(이하 “성폭력”)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중1 패널들의 현실비행은 2차년도에 처음 조사되었으며, 현재(6차년도)까지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1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현실비행과 관련된 실태와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1) 현실비행의 추이

지난 1년 동안 현실비행과 현실비행 중 지위비행 및 범법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5년간(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의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III-1]과 같다.

* 이 장은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가 집필하였음.



【그림 Ⅲ-1】 지위비행, 범법행동, 현실비행 경험률 변화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지위비행과 범법행동 경험률은 각각 11.3%와 10.7%로 경험률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지위비행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고, 범법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꾸준히 감소하여 지위비행과 범법행동 간의 경험률의 차이가 나타난다.

지위비행 경험률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학교 2학년(11.3%)에서 중학교 3학년(12.1%)때는 지위비행 경험률이 0.8%p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12.1%)에서 고등학교 1학년(17.8%) 시기에는 약 5%p, 이후 매년 약 7%p씩 지위비행 경험률이 증가(17.8% → 25.3% → 32.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법행동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10.7%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나타낸 이후 중학교 3학년때는 5.3%로 약 5%p 범법행동 경험률이 감소하였다. 이후 범법행동 경험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9%가 범법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범법행동 경험률이 중학교 2학년 때 보다 약 9%p 감소하였다.

지위비행 및 범법행동 경험률에 따라 현실비행의 경험률도 변화하였다. 중학교 3학년의 범법행동 경험률이 전년도 대비 급격하게 감소(10.7% → 5.3%)하여 중학교 3학년때의 현실비행 경험률도 감소하였으나 이 시기를 제외하고 현실비행 경험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법행동 경험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범법행동의 감소 폭 보다 지위비행의 증가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나 현실비행 경험률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현실비행 경험 유형을 비행경험 없음, 지위비행만 경험, 범법행동만 경험, (지위비행 및 범법행

동) 모두 경험 등으로 나누어 경험률을 살펴 본 결과 <표 III-1>과 같다.

표 III-1 **현실비행 경험 유형**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비행경험 없음	81.6	84.6	79.9	73.9	67.3
지위비행만 경험	7.7	10.1	15.5	23.1	30.8
범법행동만 경험	7.1	3.3	2.2	0.8	0.7
모두 경험	3.6	2.0	2.3	2.2	1.3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비행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p 증가한 이후 고등학교 시기에는 비행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81.6%(중2)에서 67.3%(고3)로 약 14%p 감소하여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행행동을 경험하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유형별로 경험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위비행만 경험한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 때는 7.7%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30.8%가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5년간 지위비행만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약 23%p 증가하였다.

반면에 범법행동만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지위비행과 유사하게 약 7%정도였으며, 점차 감소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기가 되면서 범법행동만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0.7%로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위비행과 범법행동을 모두 경험한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 때는 3.6%로, 이후 지위비행과 범법행동을 모두 경험한 청소년(중3: 2.0%)은 1.6%p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입학 후 다시 0.3%p 증가(고1: 2.3%)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1.3%의 청소년들이 지위비행과 범법행동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하위집단별 비교

현실비행, 지위비행, 범법행동의 경험률이 하위집단별(성별, 지역별, 부모학력별, 가구소득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고,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① 성별

성별에 따른 비행 경험률 추이는 <표 III-2>와 같다. 현실비행의 경우 남자의 경험률이 여자의 현실비행 경험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남자의 현실비행 경험률이 24.0%, 여자는 12.6%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나,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현실비행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자의 현실비행 경험률은 45.7%, 여자의 현실비행 경험률은 19.4%로 대략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실비행 경험률 증가의 정도도 남자는 약 21%p(중2 24.0% → 고3 45.7%), 여자는 약 7%p(중2 12.6% → 고3 19.4%)로 남자의 현실비행 경험률 증가 정도가 여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지위비행과 범법행동의 비율이 모두 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일 때 남자의 경우 지위비행 경험률(14.1%)보다 범법행동 경험률(15.0%)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범법행동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지위비행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고등학교 3학년일 때 남자의 지위비행 경험률은 44.6%, 범법행동은 3.5%로 경험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위비행 경험률이 범법행동 경험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비행 행동의 경험률이 중학교 시기에는 약 2%p 차이가 났으나(지위비행 8.4%, 범법행동 6.3%),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약 19%p(지위비행 19.2%, 범법행동 0.4%)로, 지위비행과 범법행동의 경험률이 점차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의 지위비행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1.8%p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약 10%p 내외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14.1%)과 고등학교 3학년(44.6%)의 지위비행 경험률을 비교 해 보면, 약 30%p 증가하였다. 여자의 지위비행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0.2%p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 후 경험률은 매년 약 5%p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지위비행 경험률은 19.2%로 중학교 2학년(8.4%)때보다 지위비행 경험률이 약 11%p 증가하였다.

범법행동 경험률은 남자와 여자의 둘 다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범법행동 경험률은 15.0%(중2)에서 3.5%(고3)로 약 12%p 정도 감소하였다. 여자의 범법행동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당시 6.3%로 경험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는 0.9%, 고등학교 3학년 때는 0.4%로 범법행동 경험률이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현실비행 경험률: 성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현실비행	남자	24.0	21.3	29.2	37.4	45.7
	여자	12.6	9.3	10.6	14.3	19.4
지위비행	남자	14.1	15.9	25.5	36.1	44.6
	여자	8.4	8.2	9.9	14.1	19.2
범법행동	남자	15.0	8.3	7.5	5.0	3.5
	여자	6.3	2.2	1.5	0.9	0.4

② 지역

현실비행과 관련한 경험률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I-3>와 같다. 지역은 크게 서울, 광역시, 시군부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실비행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당시 서울이 15.3%, 광역시가 17.6%, 시군부가 19.4%로 시군부의 현실비행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광역시 지역 청소년들의 현실비행 경험률(17.0%, 21.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에는 시군부 지역 청소년들의 현실비행 경험률(27.5%, 3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현실비행 경험률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중학교 3학년 때 현실비행 경험률이 한차례 감소한 후 고등학교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중학교 2학년의 지위비행 경험률은 서울이 6.7%로 가장 낮으며, 광역시(11.3%)와 시군부(11.8%)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서울의 지위비행 경험률은 6.0%로 0.7%p 감소하였으나, 광역시와 시군부는 증가하였다(광역시: 11.3% → 13.6%, 시군부: 11.8% → 12.3%). 고등학교 입학 이후 세 지역의 지위비행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까지 광역시와 시군부의 지위비행 경험률의 차는 약 1%p 내외로 두 지역이 유사한 경험률을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는 약 3%p(광역시: 30.3%, 시군부: 33.1%)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범법행동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시군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범법행동 경험률은 9.6%, 9.8%로 10% 미만이었으며, 시군부는 11.6%로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속적으로 범법행동 경험률이 감소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의 범법행동 경험률은 0.0%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의 경우 1.6% 시군부는 2.3%로 나타났다.

표 III-3

현실비행 경험률: 지역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현실비행	서울	15.3	8.0	12.8	20.5	28.3
	광역시	17.6	17.0	21.0	25.9	30.9
	시군부	19.4	15.9	20.4	27.5	34.0
지위비행	서울	6.7	6.0	10.4	19.3	28.3
	광역시	11.3	13.6	18.3	25.6	30.3
	시군부	11.8	12.3	18.4	26.5	33.1
범법행동	서울	9.6	2.5	3.7	1.8	0.0
	광역시	9.8	5.3	4.0	2.1	1.6
	시군부	11.6	5.9	5.0	3.5	2.3

③ 부모학력

부모학력별로도 현실비행 경험률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부모의 학력을 크게 중학교 졸업 이하(이하 “중졸이하”), 고등학교 졸업(이하 “고졸”), 대학 졸업 이상(이하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의 현실비행 경험률이 다른 부모 학력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중학교 2학년일 때의 현실비행 경험률은 부모 학력이 중졸이하(20.7%)와 고졸(19.9%)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현실비행 경험률 차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약 4%p(중졸 이하 20.7%, 대졸 이상 16.5%)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3학년때는 약 12%p(중졸 이하 40.9%, 대졸 이상 28.8%)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위비행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부모의 학력이 중졸이하와 고졸의 경험률이 126%로 같게 나타났으나, 이후 경험률은 중졸이하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지위비행 경험률은 전년도 경험률보다 고졸과 대졸이상은 약 1%p 증가하였으나 중졸이하는 약 5%p 증가하여 다른 부모 학력보다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후 지위비행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지위비행 경험률 증가폭이 중졸이하는 약 18%p(고1: 22.7% → 고3: 40.9%), 고졸 및 대졸이상은 약 14%p(고졸: 고1: 20.2% → 고3: 34.1%, 대졸이상 고1: 14.8% → 고3: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법행동 경험률은 부모 학력 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부모 학력이 대졸이상(10.9%)인 집단의 범법행동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10.8%), 중졸이하(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세 집단 범법행동 경험률은 5%대로 나타나 중학교 시절의 세 집단 간 범법행동 경험률 차이는 1%p 미만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입학 후 세 집단 간 경험률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의

범법행동 경험률은 6.2%로 1.2%p 증가하였고, 유일하게 범법행동 경험률이 증가하였다. 이후부터는 세 집단의 범법행동 경험률이 모두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세 집단의 범법행동 경험률은 1%대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1%p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III-4

현실비행 경험률: 부모학력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현실비행	중졸이하	20.7	19.0	24.7	33.7	40.9
	고졸	19.9	17.1	22.6	29.6	34.9
	대졸이상	16.5	13.8	17.0	22.7	28.8
지위비행	중졸이하	12.6	17.0	22.7	33.7	40.9
	고졸	12.6	13.6	20.2	28.6	34.1
	대졸이상	9.4	10.4	14.8	22.1	28.2
범법행동	중졸이하	10.3	5.0	6.2	4.5	1.1
	고졸	10.8	5.4	4.8	3.1	1.6
	대졸이상	10.9	5.5	4.3	2.5	1.9

④ 가구소득

가구소득에 따른 현실비행 경험률도 살펴보았는데, 가구소득을 상위층, 중간층, 하위층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현실비행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하위층이 상위층과 중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 현실비행 경험률은 상위층 16.8%, 중간층 18.2%, 하위층 20.1%이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상위층 31.3%, 중간층 31.7%, 하위층 35.6%으로 상위층과 하위층은 약 15%p, 중간층은 약 13%p 현실비행 경험률이 증가하였다.

지위비행의 경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하위층의 지위비행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지위비행 경험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7.8%에서 30.7%로 약 23%p 지위비행 경험률이 증가하였으며, 중간층은 11.1%에서 30.9%로 약 19%p 증가하였다. 하위층은 14.5%에서 34.8%로 약 20%p 증가하였으며, 세 집단 중 상위층의 지위비행 경험률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범법행동의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1학년때는 상위층(중2: 11.8%, 고1: 6.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 때는 중간층(5.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는 하위층이 3.9%, 3.2%로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범법행동의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상위층에서는 중학교 3학년(5.3%)보다 고등학교 1학년(6.7%) 때 범법행동의 경험률이 1.4%p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현실비행 경험률: 가구소득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현실비행	상위층	16.8	12.8	18.5	24.5	31.3
	중간층	18.2	15.2	19.3	25.1	31.7
	하위층	20.1	18.9	25.5	32.6	35.6
지위비행	상위층	7.8	9.3	14.8	24.0	30.7
	중간층	11.1	11.6	17.4	24.3	30.9
	하위층	14.5	16.0	22.9	31.6	34.8
범법행동	상위층	11.8	5.3	6.7	2.1	1.7
	중간층	10.9	5.5	3.9	3.0	1.4
	하위층	9.7	5.4	5.1	3.9	3.2

현실비행과 지위비행, 범법행동의 경험률 변화 추이와 하위집단별 경험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비행행동 경험률 변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비행행동 경험들이 변화해 왔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비행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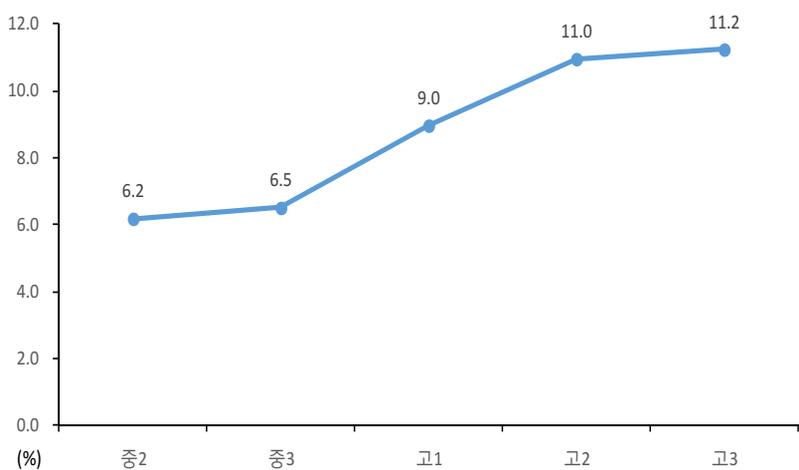
1) 지위비행

지위비행과 관련한 항목은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로 지난 1년간 경험 여부 및 1년 동안 경험한 횟수를 바탕으로 경험률 및 경험 빈도를 파악하였다. 단, 흡연의 경우 지난 1년 혹은 하루에 경험한 횟수, 음주는 지난 1년 혹은 한 달 평균 경험한 횟수로 아이들에게 경험 빈도를 파악하여, 흡연과 음주는 아이들이 응답한 빈도를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1) 흡연

① 흡연 경험률

흡연의 경험률을 살펴 본 결과는 [그림 III-2]와 같다. 중학교 2학년 때는 6.2%, 중학교 3학년 때는 6.5%, 고등학교 1학년 때는 9.0%,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1.0%,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1.2%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률이 2.5%p 증가하여 이 시기에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률이 가장 크게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2】 흡연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흡연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흡연 경험률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자의 흡연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남자의 흡연 경험률은 10%를 넘지 않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9.5%가 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경험률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10%p(중2: 8.9% → 고3: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흡연 경험률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 당시 3.4%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2.8%로 남학생들이 10%p 증가한 것과 반대로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흡연 경험률이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간 흡연경험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시군부의 흡연 경험률 차이는 약 1%p 내외로 두 지역의 흡연 경험률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흡연 경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시군부의 흡연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6.7% → 7.2% → 8.9% → 12.0% → 12.3%)하고 있다. 서울은 중학교 3학년 때 전년도 보다 0.4%p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2.9% → 2.5% → 3.7% → 5.3% → 7.8%)하고 있으며, 광역시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률이 약 1%p 감소(6.4% → 6.6% → 10.2% → 10.9% → 9.8%)하였다.

부모학력별 흡연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중졸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중졸이하는 중학교 2학년 때(10.3%), 고졸은 고등학교 1학년때(10.4%) 흡연 경험률이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 흡연 경험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흡연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졸이하는 10.3%(중2)에서 20.5%(고3)로 약 10%p 증가하였으며, 고졸은 7.2%(중2)에서 11.6%(고3)로 약 4%p, 대졸이상은 5%p(중2: 4.6% → 고3: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의 흡연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 경험률 증가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흡연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하위층이 가장 높고, 상위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흡연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의 중학교 2, 3학년 때의 흡연 경험률은 4.5%로 변화가 없으나 고등학교 입학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흡연 경험률은 11.0%로 중학교 때와 비교 하면 6.5%p 증가하였다. 중간층의 중학교 2학년 때 흡연 경험률은 5.9%로 상위층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꾸준히 증가(5.9% → 6.5% → 8.9% → 11.1%) 추세를 보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흡연 경험률(10.3%)이 전년도 보다 0.8%p 감소하였다. 중간층의 흡연 경험률은 약 4%p 증가(중2: 5.9% → 고3: 10.3%)하였다. 하위층의 흡연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는 8.9%이고, 중학교 3학년 때는 8.2%로 0.7%p 감소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흡연 경험률은 13.3%로 중학교 2학년 때 보다 약 4%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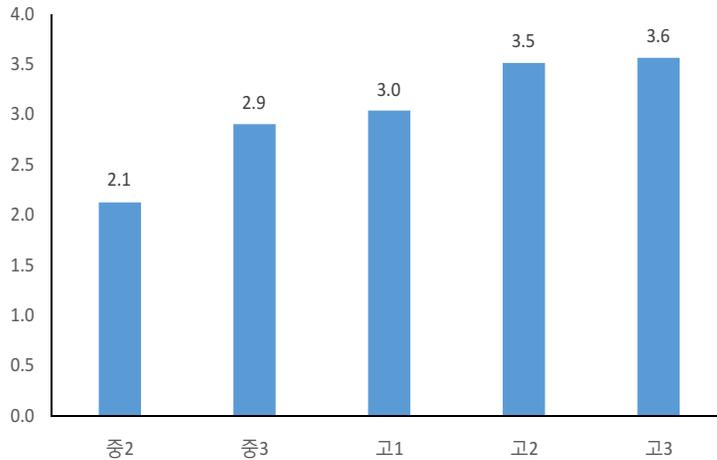
표 III-6 **흡연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8.9	10.6	14.8	19.0	19.5
	여자	3.4	2.3	2.9	2.5	2.8
지역별	서울	2.9	2.5	3.7	5.3	7.8
	광역시	6.4	6.6	10.2	10.9	9.8
	시군부	6.7	7.2	8.9	12.0	12.3
부모학력	중졸이하	10.3	11.0	11.3	20.2	20.5
	고졸	7.2	7.4	10.4	13.0	11.6
	대졸이상	4.6	5.3	7.2	8.5	9.6
가구소득	상위층	4.5	4.5	7.3	9.4	11.0
	중간층	5.9	6.5	8.9	11.1	10.3
	하위층	8.9	8.2	10.8	12.4	13.3

② 흡연 경험 빈도

흡연 경험 빈도와 관련하여 1년 단위와 하루 단위로 흡연 횟수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흡연 경험 빈도를 재범주화 하였다. 1년에 1~10회는 1, 1년에 11회~30회는 2, 1년에 30회 초과이면 거의 매일(1년에 300회 미만) 미만은 3, 거의 매일 흡연(1년에 300회 이상 및 하루 단위 횟수 응답자)은 4로 재범주화 하였으며 1에서 4로 갈수록 흡연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흡연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III-3]과 같다. 전반적으로 흡연 빈도는 1년에 30회 이하에서 거의 매일로 흡연 경험 빈도가 변화하며, 점점 자주 흡연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연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2.1)에서 3학년(2.9) 올라가면서 가장 크게 증가 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3.5), 고등학교 3학년(3.6) 때의 흡연 경험 빈도는 거의 매일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 흡연 경험 빈도 변화

하위집단별로 흡연 경험 빈도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흡연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의 흡연 경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남자 2.18, 여자 2.00으로 1년에 30회 이하로 나타났다. 이후 남자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흡연의 빈도가 1년에 30회를 초과(3.09)하였으며, 여자는 고등학교 2학년(3.11) 때 흡연 빈도가 1년에 30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 남자의 경우 흡연 경험 빈도가 3.60으로 거의 매일 흡연하는 것에 가까운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3.25로 남자보다 흡연 경험 빈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흡연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서울의 흡연 경험 빈도가 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흡연 경험 빈도는 광역시가 높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시군부의 흡연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1년에 10회 이하의 흡연 경험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광역시와 시군부는 중학교 2학년 때 흡연 경험 빈도가 1년에 10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경험 빈도가 점차 잦아지는 추세로 바뀌면서 광역시의 경우 중학교 3학년때 흡연 경험 빈도가 3.17로 1년에 30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때 시군부는 2.79로 1년에 30회 미만 흡연하며, 서울도 2.20으로 1년에 30회 미만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역시의 흡연 경험 빈도는 3.60으로 5년간 흡연 경험 빈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0.03 감소하여 3.57로 나타났다. 시군부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3.54, 고등학교 3학년 때 3.59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 광역시와 시군부 지역의 청소년들은 흡연의 빈도가 거의 매일 흡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경우 중학교 3학년 때 2.20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50으로 흡연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 흡연 경험 빈도가 3.38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로 살펴보면, 흡연 경험률은 중졸이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흡연 경험 빈도는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번갈아 가면서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의 경우 흡연 경험 빈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가 감소(2.55 → 2.90 → 2.90 → 3.83 → 3.70) 하였다. 부모학력이 대졸이상도 중졸이하와 마찬가지로 흡연 빈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흡연 경험 빈도가 감소(2.15 → 2.86 → 3.01 → 3.45 → 3.3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이 고졸인 경우는 흡연 경험 빈도가 꾸준히 증가(2.16 → 2.91 → 3.04 → 3.54 → 3.71)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3.54, 3학년 때 3.71로 흡연 경험 빈도가 거의 매일 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흡연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2.18(1.37)	2.98(1.39)	3.09(1.33)	3.56(1.01)	3.60(0.99)
	여자	2.00(1.31)	2.53(1.50)	2.73(1.48)	3.11(1.36)	3.25(1.22)
지역별	서울	1.00(0.00)	2.20(1.64)	1.50(1.22)	2.88(1.36)	3.38(1.19)
	광역시	2.32(1.38)	3.17(1.32)	3.17(1.30)	3.60(0.98)	3.57(1.02)
	시군부	2.13(1.37)	2.79(1.45)	3.03(1.35)	3.54(1.04)	3.59(0.99)
부모 학력	중졸이하	2.55(1.42)	2.90(1.51)	2.90(1.51)	3.83(0.70)	3.70(0.84)
	고졸	2.16(1.38)	2.91(1.42)	3.04(1.34)	3.54(1.04)	3.71(0.87)
	대졸이상	2.15(1.39)	2.86(1.44)	3.01(1.37)	3.45(1.11)	3.36(1.17)
가구 소득	상위층	1.75(1.34)	2.77(1.43)	2.85(1.45)	3.34(1.23)	3.58(1.01)
	중간층	2.30(1.41)	2.84(1.45)	2.95(1.37)	3.49(1.08)	3.56(1.02)
	하위층	2.03(1.30)	3.14(1.37)	3.41(1.18)	3.74(0.79)	3.57(1.01)

가구소득에 따른 흡연 경험 빈도(<표 III-7> 참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하위층의 흡연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학교 2학년 때는 중간층(2.30),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상위층(3.58)의 흡연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흡연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흡연 경험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위층은 1.75(중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1.75 → 2.77 → 2.85 → 3.34 → 3.58)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3.58로 1년에 1~10회에서 거의 매일 흡연을 하는 것으로 흡연 경험 빈도가 변화하고 있다. 중간층 역시 꾸준히 증가(2.30 → 2.84 → 2.95 → 3.49 → 3.56)하였다. 하위층 역시 지속적으로 흡연 경험 빈도는 증가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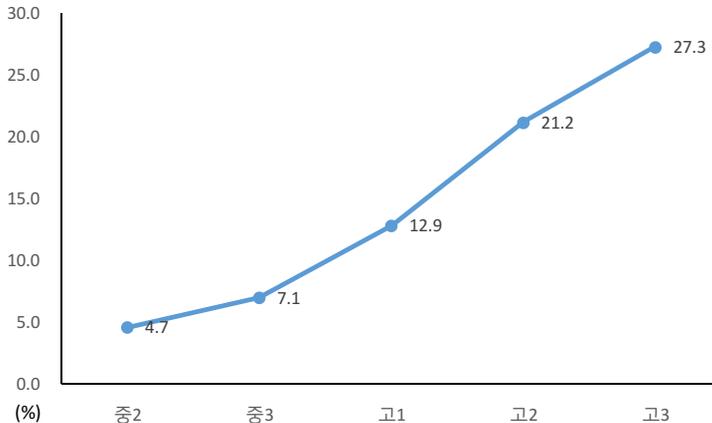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가 감소(2.03 → 3.14 → 3.41 → 3.74 → 3.57)하였다.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 빈도가 3.5 이상으로 1년에 30회 초과에서 거의 매일 흡연하는 것에 가깝게 흡연 경험 빈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흡연 경험률은 10% 내외로 나타났다. 흡연 경험 빈도 역시 흡연 경험률과 마찬가지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흡연하는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 빈도는 거의 매일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주

① 음주 경험률

음주 경험률의 변화는 [그림 III-4]와 같다. 음주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는 5%가 넘지 않았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27.3%가 1년간 음주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입학(12.9% → 21.2% → 27.3%) 이후 음주 경험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음주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음주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여자의 음주 경험률이 남자의 음주 경험률보다 0.2%p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남자의 음주 경험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남자는 38.5%, 여자는 15.9%로 남자의 음주 경험률이 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음주 경험률은 1~5%p 내외로 증가하는 반면, 남자의 음주 경험률의

증가는 고등학교 이후 매년 약 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광역시의 음주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때는 시군부의 음주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모든 지역에서 음주 경험률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음주 경험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2.9%(중2)에서 24.7%(고3)으로 약 22%p 증가하였으며, 광역시는 5.2%(중2)에서 25.6%(고3), 시군부는 4.8%(중2)에서 28.8%(고3)으로 증가하였다. 광역시와 시군부의 음주 경험률은 중학교 때는 1%p 미만으로 차이가 났으나 고등학교 입학 이후 2~3%p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광역시나 시군부에 비해 음주 경험률이 낮으나 고등학교 입학 이후 매년 9%p 증가하여 타 지역과의 음주 경험률 차이가 점차 좁혀졌다.

부모학력별 음주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부모학력이 고졸(5.0%)인 경우 음주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졸이하(3.4%)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중졸이하에서 음주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가면서 고졸과 대졸은 각각 약 2%p(고졸: 5.0% → 7.7%, 대졸이상: 4.2% → 6.1%) 정도 음주 경험률이 증가하였으나, 중졸이하에서는 약 6%p(3.4% → 10.0%) 이상 증가하여 다른 부모학력보다 음주 경험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음주 경험률의 증가폭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졸이하는 약 13%p(고1: 16.5% → 고2: 29.2%), 고졸은 약 10%p(고1: 13.8% → 고2: 23.4%), 대졸이상은 8%p(고1: 11.4% → 고2: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음주 경험률은 중졸이하에서 34.1%, 고졸에서 29.1%, 대졸이상에서 25.1%로 중학교 2학년 때와 비교하면, 중졸이하는 약 10배 정도 음주 경험률이 증가하였으며, 고졸과 대졸이상은 약 6배 정도 음주 경험률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 음주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하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음주 경험률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소득별 음주 경험률 증가의 폭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상위층과 하위층은 약 9%p(상위층: 11.6% → 20.3%, 하위층: 15.9% → 26.7%), 중간층은 약 8%p(12.3% → 20.3%) 증가하였다.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3학년 때를 비교해 보면, 상위층과 하위층은 약 24%p 증가(상위층: 중2 3.6% → 고3 27.6%, 하위층: 중2 5.8% → 고3 29.6%)하였고, 중간층은 48%(중2)에서 26.5%(고3)로 약 22%p 증가하였다. 세 집단의 음주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 집단 모두 25%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음주 경험률: 하위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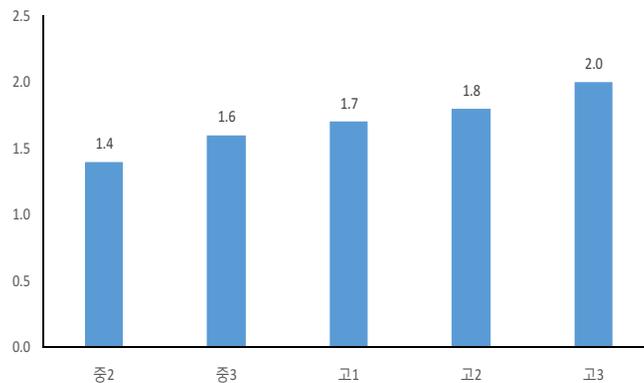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4.6	8.7	18.1	29.3	38.5
	여자	4.8	5.5	7.5	12.8	15.9
지역별	서울	2.9	3.0	6.1	15.8	24.7
	광역시	5.2	7.7	12.1	20.7	25.6
	시군부	4.8	7.3	14.1	22.8	28.8
부모학력	중졸이하	3.4	10.0	16.5	29.2	34.1
	고졸	5.0	7.7	13.8	23.4	29.1
	대졸이상	4.2	6.1	11.4	19.4	25.1
가구소득	상위층	3.6	6.5	11.6	20.3	27.6
	중간층	4.8	6.5	12.3	20.3	26.5
	하위층	5.8	8.2	15.9	26.7	29.6

② 음주 경험 빈도

음주의 경우 흡연과 마찬가지로 음주 경험 횟수를 1년 단위 혹은 한 달 단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음주 경험 횟수를 재범주화 하였다. 1은 1년에 1~5회, 2는 1년에 6회~11회, 3은 한 달에 1회 이상~5회, 4는 한 달에 6회 이상으로 재범주화 하였으며 1에서 4로 갈수록 음주 경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 경험 빈도의 변화는 [그림 III-5]와 같다. 음주 경험의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1.4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2.0으로 0.6정도 증가하였다. 음주 경험의 빈도는 1년에 6~11회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음주의 빈도가 한 달에 1회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경험률은 고등학교 때 급증하였으나 음주 경험 빈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 음주 경험 빈도 변화

성별에 따른 음주 경험 빈도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 경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 남자의 음주 경험 빈도는 1.52, 여자는 1.44이고, 이후 남자와 여자의 음주 경험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남자는 2.18, 여자는 1.80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음주 경험 빈도는 5년 간 1년에 1~5회 정도로 나타났으나 남자의 음주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1년에 1~5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에 6~11회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음주 경험 빈도는 1.83으로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군부(1.57), 광역시(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중학교 3학년 때 음주 경험 빈도가 1.33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보다 0.5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음주 경험 빈도가 증가(1.83 → 1.33 → 1.50 → 1.62 → 1.9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경험 빈도가 꾸준히 증가(1.32 → 1.54 → 1.89 → 2.09)하나 고등학교 3학년 때 2.01로 전년도보다 0.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부는 중학교 3학년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0.03 감소(중3: 1.70 → 고1: 1.67)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1.67 → 1.80 → 2.13)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서울의 음주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이 후 지역별로 음주 경험 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시군부의 음주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광역시의 음주 경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음주 경험의 빈도는 중학교 때는 부모학력이 고졸인 경우의 음주 경험 빈도(중2: 1.72, 중3: 1.67)가 가장 높았으며, 중졸이하(중2: 1.00, 중3: 1.60)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의 음주 경험 빈도가 1.86으로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는 부모학력이 중졸이하(2.38, 2.30)에서 음주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음주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증가와 감소(1.00 → 1.60 → 1.50 → 2.38 → 2.30)를 반복하였으며, 고졸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음주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1.72 → 1.67 → 1.63 → 1.85 → 2.18)하였다. 대졸이상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음주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차례 감소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증가(1.30 → 1.61 → 1.86 → 1.84 → 1.91)하였다.

가구소득별 음주 경험 빈도는 중학교 3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중간층의 음주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 때는 하위층에서 음주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가구소득별 음주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1년에

1~5회 정도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중간층의 음주 경험률이 2.13, 하위층이 2.07로 1년에 6~11회 정도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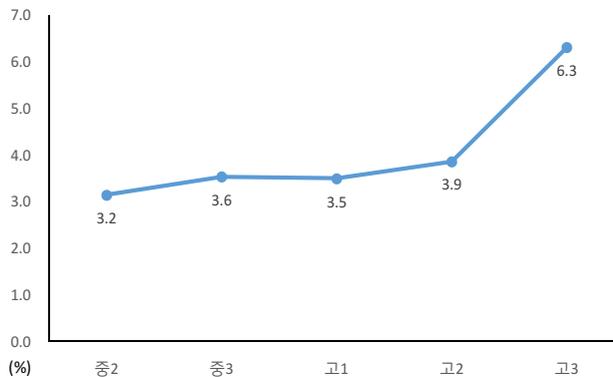
표 III-9 음주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1.52(0.84)	1.72(0.96)	1.77(0.95)	1.95(1.01)	2.18(1.11)
	여자	1.44(0.83)	1.49(0.82)	1.61(0.89)	1.73(0.95)	1.80(0.98)
지역별	서울	1.83(1.32)	1.33(0.81)	1.50(0.84)	1.62(0.88)	1.92(1.10)
	광역시	1.32(0.66)	1.54(0.85)	1.89(0.95)	2.09(1.05)	2.01(1.03)
	시군부	1.57(0.88)	1.70(0.95)	1.67(0.93)	1.80(0.96)	2.13(0.11)
부모학력	중졸이하	1.00(0.00)	1.60(0.96)	1.50(0.89)	2.38(0.94)	2.30(0.98)
	고졸	1.72(0.98)	1.67(0.92)	1.63(0.90)	1.85(1.00)	2.18(1.10)
	대졸이상	1.30(0.66)	1.61(0.92)	1.86(0.95)	1.84(0.98)	1.91(1.06)
가구소득	상위층	1.30(0.75)	1.50(0.90)	1.65(0.97)	1.77(1.00)	1.81(1.01)
	중간층	1.57(0.90)	1.58(0.88)	1.75(0.90)	1.90(1.00)	2.13(1.10)
	하위층	1.42(0.74)	1.88(0.99)	1.70(1.03)	1.89(0.97)	2.07(1.07)

(3) 무단결석

① 무단결석 경험률

지난 1년간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는 3% 정도로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6.3%가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 전보다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림 III-6】 무단결석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무단결석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무단결석 경험률이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3.3% → 4.2% → 4.6% → 5.6% → 7.7%)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자들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중학교 2학년 시절의 무단결석 경험률이 3.0%로 최고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3.0% → 2.9% → 2.4% → 2.1%)를 보이고 있다. 여자의 고등학교 3학년 때 무단결석 경험률은 4.9%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다 약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군부의 무단결석 경험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3.6% → 3.9% → 4.0% → 4.4% → 6.3%) 하고 있는 반면, 광역시는 증가와 감소(2.2% → 3.4% → 2.7% → 2.8% → 5.2%)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은 중학교 3학년 때 한차례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2.4% → 1.5% → 3.7% → 4.1% → 7.8%)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군부의 무단결석 경험률이 타지역보다 높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서울의 무단결석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 간 차이는 약 1~2%p 정도로 나타났다.

부모학력에 따른 무단결석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무단결석 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학력이 중졸이하는 꾸준히 무단결석이 증가(3.4% → 6.0% → 6.2% → 9.0% → 12.5%)하고 있으며, 고졸과 대졸이상에서는 한차례 무단결석 경험률이 감소(고졸: 중3: 4.1% → 고1: 3.9%, 대졸이상: 고1: 2.8% → 고2: 2.4%)하는 것 외에는 무단결석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중학교 2학년을 제외하고는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의 무단결석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중졸이하(12.5%)의 무단결석 경험률이 대졸이상(3.6%)과 약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가구소득별 무단결석 경험률은 하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무단결석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고1까지는 꾸준히 감소한 후 무단결석 경험률이 증가(2.2% → 2.0% → 1.6% → 2.6% → 3.1%)한다. 중간층과 하위층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각각 중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차례 감소(중3: 3.5% → 고1: 3.3%)하고, 하위층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차례 감소(고1: 5.7% → 고2: 5.4%)한다. 상위층은 중학교 2학년(2.2%) 때와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3.1%) 때 무단결석 경험률은 약 1%p 증가하였고, 중간층은 2.5%p(중2: 2.9% → 고3: 5.4%), 하위층은 약 5%p(중2: 4.5% → 고3: 9.3%) 증가하였다.

표 III-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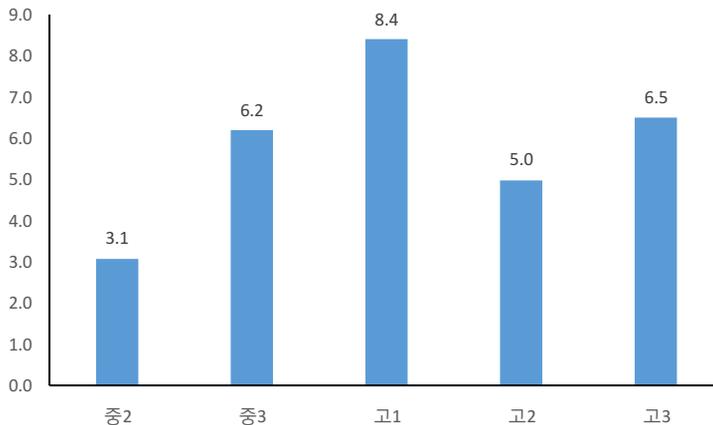
무단결석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3.3	4.2	4.6	5.6	7.7
	여자	3.0	2.9	2.4	2.1	4.9
지역별	서울	2.4	1.5	3.7	4.1	7.8
	광역시	2.2	3.4	2.7	2.8	5.2
	시군부	3.6	3.9	4.0	4.4	6.3
부모학력	중졸이하	3.4	6.0	6.2	9.0	12.5
	고졸	3.8	4.1	3.9	4.7	7.5
	대졸이상	2.4	2.7	2.8	2.4	3.6
가구소득	상위층	2.2	2.0	1.6	2.6	3.1
	중간층	2.9	3.5	3.3	3.5	5.4
	하위층	4.5	5.4	5.7	5.4	9.3

② 무단결석 경험 빈도

지난 1년간 무단결석을 몇 회 하였는지 무단결석 경험 빈도를 물어 본 결과는 [그림 III-7]과 같다. 무단결석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비슷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무단결석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꾸준히 증가(3.1회 → 6.2회 → 8.4회)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후 5.0회(고2)로 한차례 감소한 후 다시 증가(고3: 6.5회)하였다.



【그림 III-7】 무단결석 경험 빈도 변화

성별에 따른 무단결석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무단결석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 때 381회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는 매년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단결석 경험률이 감소(9.60회 → 5.33회)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7.24회로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는 2.38회로 남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증가(2.38회 → 5.03회 → 6.16회 → 4.27회 → 5.42회)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시절에는 1년간 무단결석 경험 횟수 평균이 광역시(4.47회), 서울(3.00회), 시군부(2.83회) 순으로 광역시가 가장 많았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시군부(7.57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광역시(10.41회)의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는 서울의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고2: 8.00회, 고3: 7.92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무단결석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과 광역시는 중학교 3학년 때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감소(서울: 중2: 3.00회 → 중3: 1.50회, 광역시: 중2: 4.47회 → 중3: 3.95회)하였고, 시군부는 증가(중2: 2.83회 → 중3: 7.57회)하였다. 고등학교 때는 서울지역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다 감소(4.67회 → 8.00회 → 7.92회)하였고, 광역시는 지속적으로 감소(10.41회 → 7.06회 → 4.97회)하였다. 시군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증가(7.92회 → 4.12회 → 7.34회)하였다.

부모학력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의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3.69회로 고졸(3.00회), 중졸이하(2.33회)보다 많았으나 중학교 3학년 때는 부모학력이 고졸인 집단의 무단결석 경험 횟수가 7.92회로 중졸이하(5.50회), 대졸이상(4.29회)보다 많았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중졸이하가 다른 부모학력 집단보다 평균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더 많았다. 모든 부모학력 집단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증가하였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가구소득 중간층의 무단결석 평균 경험 빈도(중2: 3.62회, 고1: 8.35회)가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3학년 때는 하위층의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7.35회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는 상위층의 1년 동안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다(고2: 4.89회, 고3: 11.45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가구소득별 평균 무단결석 경험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상위층의 평균 무단결석 경험 빈도(11.45회)가 크게 증가하여, 같은 시기 평균적으로 무단결석 횟수가 가장 적은 중간층(5.22회)과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11

무단결석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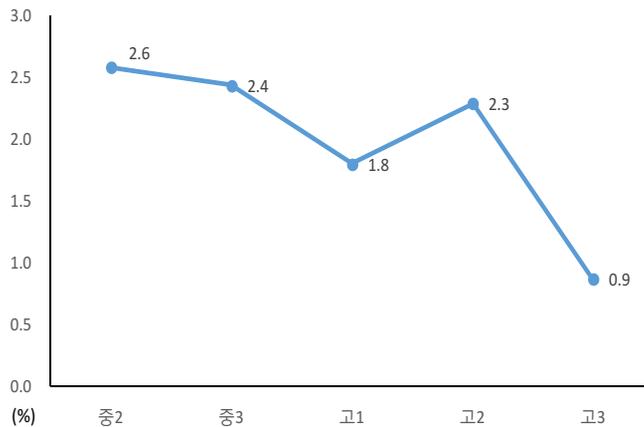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3.81(4.83)	7.04(10.39)	9.60(11.61)	5.33(7.31)	7.24(11.71)
	여자	2.38(2.58)	5.03(8.47)	6.16(7.30)	4.27(4.86)	5.42(8.26)
지역별	서울	3.00(3.93)	1.50(0.70)	4.67(4.59)	8.00(8.32)	7.92(8.75)
	광역시	4.47(5.12)	3.95(3.93)	10.41(14.05)	7.06(8.92)	4.97(4.74)
	시군부	2.83(3.68)	7.57(11.49)	7.92(9.50)	4.12(5.82)	7.34(13.18)
부모학력	중졸이하	2.33(2.30)	5.50(7.39)	10.17(10.66)	7.50(5.21)	10.91(17.26)
	고졸	3.00(3.69)	7.92(12.50)	8.57(11.37)	4.58(6.34)	6.34(9.30)
	대졸이상	3.69(4.82)	4.29(5.26)	6.64(8.16)	4.71(7.88)	6.71(12.46)
가구소득	상위층	3.25(4.83)	5.13(7.08)	7.17(6.67)	4.89(7.62)	11.45(20.29)
	중간층	3.62(4.41)	6.02(11.67)	8.35(11.32)	4.29(6.27)	5.22(6.67)
	하위층	3.25(4.83)	7.35(6.88)	7.11(8.67)	4.47(4.28)	8.63(13.66)

(4) 가출

① 가출 경험률

지난 1년간 가출을 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그림 III-8]과 같다. 가출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2.6%로 가장 높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3%로 전년도 대비 0.5%p 상승 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 미만으로 가출 경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8】 가출 경험률 변화

하위집단별 가출 경험률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가출 경험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으며, 여자의 경우 가출 경험률이 꾸준히 감소(2.0% → 2.0% → 1.4% → 1.1% → 0.5%)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자는 가출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3.2% → 2.9% → 2.2%)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 경험률이 상승(고1: 2.2% → 고2: 3.5%)한 이후 다시 감소(고2: 3.5% → 고3: 1.2%)하였다. 여자는 중학교 2, 3학년 때 가출 경험률이 2.0%로 가장 높고, 남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 경험률이 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광역시와 시군부가 각각 2.9%로 가출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학년 때는 서울의 가출 경험률(4.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광역시의 가출 경험률(2.1%)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시군부(2.7%, 0.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든 지역의 가출 경험률은 1% 미만으로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출 경험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의 가출 경험률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0.5% → 4.0% → 0.6% → 1.2% → 0.6%)하여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군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 경험률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광역시: 2.9% → 2.0% → 2.1% → 2.1% → 0.6%, 시군부: 2.9% → 2.5% → 1.8% → 2.7% → 0.9%)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부모학력이 고졸의 가출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3.0%, 3.3%, 2.5%), 이후에는 중졸이하의 가출 경험률(고2: 3.4%, 고3: 2.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가출 경험률 변화정도를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가출 경험률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감소(1.1% → 2.0% → 2.1% → 3.4% → 2.3%)한다. 고졸은 증가와 감소(3.0% → 3.3% → 2.5% → 2.6% → 0.9%)를 반복하며, 대졸이상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차례 가출 경험률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감소(2.2% → 1.7% → 1.2% → 2.0% → 0.5%)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표 III-12

가출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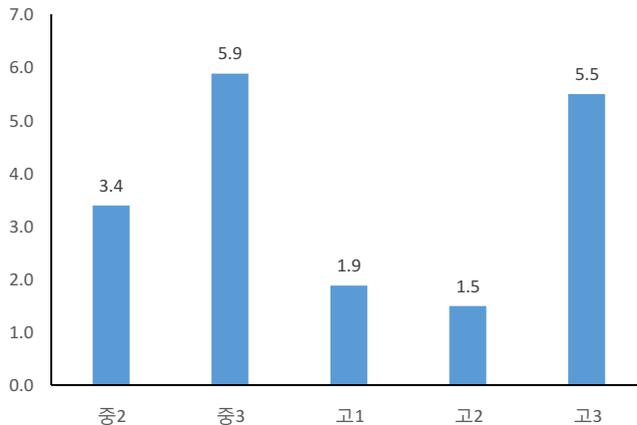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3.2	2.9	2.2	3.5	1.2
	여자	2.0	2.0	1.4	1.1	0.5
지역별	서울	0.5	4.0	0.6	1.2	0.6
	광역시	2.9	2.0	2.1	2.1	0.6
	시군부	2.9	2.5	1.8	2.7	0.9
부모학력	중졸이하	1.1	2.0	2.1	3.4	2.3
	고졸	3.0	3.3	2.5	2.6	0.9
	대졸이상	2.2	1.7	1.2	2.0	0.5
가구소득	상위층	0.8	1.3	1.9	1.6	0.0
	중간층	2.7	2.2	1.6	2.0	0.7
	하위층	4.5	4.7	2.9	4.1	1.4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표 III-12> 참조), 하위층의 가출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층을 제외하고는 상위층의 가출 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상위층의 가출 경험률은 0.0%로 나타났다. 상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가출 경험률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다가 이후 감소(0.8% → 1.3% → 1.9% → 1.6% → 0.0%)하였다. 중간층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차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2.7% → 2.2% → 1.6% → 2.0% → 0.7%)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위층은 증가와 감소(4.5% → 4.7% → 2.9% → 4.1% → 1.4%)가 반복하여 나타났다.

② 가출 경험 빈도

1년간 가출을 몇 회나 했는지 가출 빈도를 확인 한 결과는 가출 경험률과 다르게 나타났다. 가출 경험률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가출 경험 빈도는 중학교 때 증가(3.4회 → 5.9회)한 후,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다시 감소(1.9회, 1.5회)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5.5회로 가출 경험 빈도가 증가 하였다.

가출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시절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가출 경험 빈도는 중학교 3학년(5.9회)과 고등학교 3학년(5.5회)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III-9】 가출 경험 빈도 변화

성별에 따른 가출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남자보다 여자의 가출 경험 빈도가 많았으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여자보다 남자의 가출 경험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경험 빈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여자는 중학교 3학년 때 가출 경험 빈도가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3.95회 → 5.90회 → 2.15회 → 1.82회 → 1.80회)하였다. 남자의 가출 경험 빈도는 증가와 감소(3.17 → 5.94회 → 1.79회 → 1.47회 → 7.00회)가 반복해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 경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가출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서울은 중학교 때는 2.00회,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1.00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5회로 급격하게 가출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다. 광역시의 가출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가(3.55회 → 4.15회 → 1.43회 → 1.92회 → 12.00회)하고 있다. 시군부는 가출 경험 빈도가 중학교 3학년 때 한차례 증가한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가출 경험 빈도는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3.47회 → 7.73회 → 2.29회 → 1.44회 → 2.60회)하였다.

부모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가출 경험 빈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증가(7.00회 → 5.50회 → 3.00회 → 2.00회 → 5.50회)하였다. 부모학력이 고졸과 대졸이상인 집단은 중학교 3학년 때 각각 가출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는 가출 경험 빈도가 감소한 후 다시 증가(고졸: 3.21회 → 7.50회 → 2.00회 → 1.73회 → 2.25회,

대졸이상: 3.65회 → 3.71회 → 1.67회 → 1.25회 → 12.00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별로 1년간 가출을 한 횟수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상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출 경험 횟수가 4.33회로 가장 높다. 상위층은 중학교 2학년 이후 가출 경험 빈도가 꾸준히 감소(4.33회 → 1.60회 → 1.00회 → 1.00회)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과 하위층은 각각 중학교 시기에는 가출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감소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증가(중간층: 3.16회 → 7.23회 → 1.80회 → 1.61회 → 7.00회, 하위층: 4.19회 → 5.47회 → 2.89회 → 1.69회 → 6.00회)하는 추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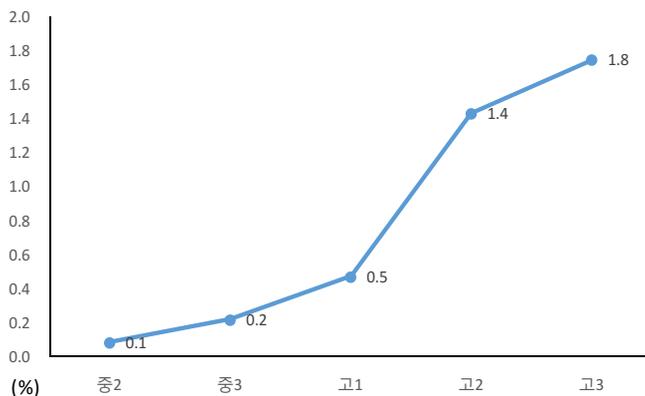
표 III-13 가출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3.17(3.27)	5.94(9.32)	1.79(0.97)	1.47(0.81)	7.00(10.71)
	여자	3.95(3.07)	5.90(7.32)	2.15(2.51)	1.82(0.87)	1.80(1.30)
지역별	서울	2.00 (-)	2.00(1.15)	1.00 (-)	1.00(0.00)	15.00 (-)
	광역시	3.55(3.10)	4.15(7.41)	1.43(0.64)	1.92(1.03)	12.00(18.74)
	시군부	3.47(3.32)	7.73(9.64)	2.29(2.07)	1.44(0.71)	2.60(2.87)
부모학력	중졸이하	7.00 (-)	5.50(6.34)	3.00 (-)	2.00(1.00)	5.50(6.36)
	고졸	3.21(2.60)	7.50(9.73)	2.00(2.04)	1.73(0.98)	2.25(1.75)
	대졸이상	3.65(3.57)	3.71(6.35)	1.67(0.65)	1.25(0.55)	12.00(16.68)
가구소득	상위층	4.33(4.93)	1.60(0.89)	1.00(0.00)	1.00(0.00)	- (-)
	중간층	3.16(2.82)	7.23(9.65)	1.80(1.00)	1.61(0.83)	7.00(13.44)
	하위층	4.19(3.79)	5.47(7.95)	2.89(2.84)	1.69(0.94)	6.00(6.20)

(5)성관계

① 성관계 경험률

성관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경험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성관계 경험률이 1%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4%(전년도 보다 0.9%p 상승)가 지난 1년간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10】 성관계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성관계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는 남자와 여자 모두 0.1%로 같았으나 이후 경험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성관계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여자의 성관계 경험률은 1% 미만(0.1% → 0.1% → 0.3% → 0.8% → 0.6%)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성관계 경험률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각각 2.1%, 2.9%로 2% 이상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관계 경험률은 0.7%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2.1%로 성관계 경험률이 3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시군부에서 경험률이 0.2%로 나타났고, 타지역에서는 0.0%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시군부 0.2%, 광역시 0.4% 서울은 여전히 경험률이 0.0%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까지는 경험률이 0.0%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1.2%, 1.8%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광역시의 경우 중학교 3학년 때 성관계 경험률이 0.4%로 나타난 이후 세 지역 집단 중 성관계 경험률이 매년 가장 높게(0.4%, 0.6%, 1.7%, 2.0%) 나타났다. 시군부 역시 성관계 경험률이 매년 증가(0.2% → 0.2% → 0.4% → 1.2% → 1.4%)하였다. 세 지역 모두 성관계 경험률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크게 증가(서울 1.2%p, 광역시 1.1%p, 시군부 0.8%p)하였다.

부모학력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부모학력이 고졸에서만 성관계 경험률이 0.2%로 나타났고 다른 부모학력은 0.0%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대졸이상이 0.3%, 고졸이 0.2%, 중졸이하가 0.0%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졸이하의 성관계 경험률이 1.0%로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부모학력이 고졸(1.4%, 2.0%)의 성관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이 중졸이하는 성관계 경험률이 0.0%(중2)에서 1.1%(고3)로 증가하여, 성관계 경험률 증가폭은 세 집단 중 1.1%p로 가장 낮았으며, 대졸이상은 0.0%(중2)에서 1.4%(고3)로 1.4%p 증가하였고, 고졸은 0.2%(중2)에서 2.0%(고3)로 1.8%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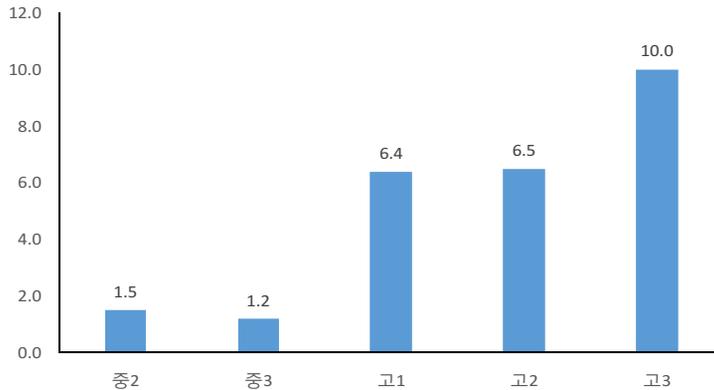
가구소득별 성관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중간층이 0.1%이고, 나머지 두 집단은 0.0%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부서는 성관계 경험률이 세 집단 모두에서 나타난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하위층(0.7%와 1.3%)의 성관계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중간층(1.5%),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상위층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성관계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과 중간층은 증가(상위층: 0.0% → 0.3% → 0.5% → 0.8% → 1.7%, 중간층: 0.1% → 0.1% → 0.2% → 1.5% → 1.6%)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하위층은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차례 경험률이 감소(0.0% → 0.7% → 1.3% → 1.0% → 1.4%) 하였다.

표 III-14 성관계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0.1	0.4	0.7	2.1	2.9
	여자	0.1	0.1	0.3	0.8	0.6
지역별	서울	0.0	0.0	0.0	1.2	1.8
	광역시	0.0	0.4	0.6	1.7	2.0
	시군부	0.2	0.2	0.4	1.2	1.4
부모학력	중졸이하	0.0	0.0	1.0	1.1	1.1
	고졸	0.2	0.2	0.5	1.4	2.0
	대졸이상	0.0	0.3	0.3	1.2	1.4
가구소득	상위층	0.0	0.3	0.5	0.8	1.7
	중간층	0.1	0.1	0.2	1.5	1.6
	하위층	0.0	0.7	1.3	1.0	1.4

② 성관계 경험 빈도

성관계 경험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고등학교 2학년 때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관계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성관계를 한 빈도는 중학교 2, 3학년 때는 1.5회, 1.2회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6.4회로 평균 경험 횟수가 중학교 때보다 약 5회 정도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관계 경험 빈도는 10.0회로 고등학교 2학년(6.5회) 때보다 3.5회 정도 증가하였다.



【그림 III-11】 성관계 경험 빈도 변화

하위집단별 성관계 경험 빈도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여자가 2.00회, 남자가 1.00회로 여자가 더 많았으나 중학교 3학년 이후로는 남자의 성관계 경험 빈도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성관계 경험 빈도가 꾸준히 증가(1.00회 → 1.33회 → 8.43회 → 7.29회 → 10.34회)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0.34회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중학교 3학년 때는 평균 1.00회로 전년도 보다 1.00회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2.00회 → 1.00회 → 1.67회 → 4.63회 → 8.67회)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시군부의 성관계 경험 빈도는 1.50회이고 타 지역은 0.00회이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광역시가 1.00회, 시군부가 1.50회 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성관계 경험 빈도는 광역시가 1.25회, 시군부가 3.80회이다. 서울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관계 경험 빈도가 나타나며, 성관계 경험의 빈도의 증가 정도가 타 지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관계 경험 빈도는 6.50회이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27.33회로 1년 사이에 성관계 경험 빈도가 약 20회 증가하였다. 광역시의 성관계 경험빈도는 꾸준히 증가(1.00회 → 1.25회 → 4.61회 → 8.08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군부 역시 꾸준히 증가(1.50회 → 1.50회 → 3.80회 → 9.15회 → 9.47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성관계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고졸이 중학교 2학년 때 1.50회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부모학력이 고졸인 집단의 성관계 경험 빈도가 1.00회, 대졸이상은 1.50회로 나타났다. 중졸이하의 성관계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2.00회로 등장하여 이후 감소(2.00회 → 2.00회 → 1.00회)하였다. 부모학력 고졸의 성관계 경험 빈도는 중학교 3학년 때 한차례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1.50회 → 1.00회 → 3.60회 → 4.50회 → 11.00회)하였다.

대졸이상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차례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1.50회 → 1.33회 → 10.00회 → 10.15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15

성관계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1.00 (-)	1.33(0.57)	8.43(14.27)	7.29(12.46)	10.34(16.64)
	여자	2.00 (-)	1.00 (-)	1.67(0.57)	4.63(3.54)	8.67(8.43)
지역별	서울	- (-)	- (-)	- (-)	6.50(0.49)	27.33(37.16)
	광역시	- (-)	1.00(0.00)	1.25(0.50)	4.61(4.98)	8.08(13.75)
	시군부	1.50(0.70)	1.50(0.70)	3.80(3.49)	9.15(15.17)	9.47(11.94)
부모학력	중졸이하	- (-)	- (-)	2.00 (-)	2.00 (-)	1.00 (-)
	고졸	1.50(0.70)	1.00(0.00)	3.60(3.64)	4.50(5.48)	11.00(17.80)
	대졸이상	- (-)	1.50(0.70)	1.33(0.57)	10.00(15.36)	10.15(15.90)
가구소득	상위층	- (-)	1.00 (-)	1.50(0.70)	19.00(26.96)	9.33(15.05)
	중간층	1.50(0.70)	- (-)	4.67(4.72)	4.94(5.78)	9.63(12.72)
	하위층	- (-)	1.33(0.57)	1.75(0.50)	2.50(1.00)	4.00(6.16)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중간층의 성관계 경험 빈도가 1.50회이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상위층이 1.00회, 하위층이 1.33회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간층의 성관계 경험 빈도가 4.67회로 가장 높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상위층의 성관계 경험 빈도가 19.00회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중간층(9.63회)과 상위층(9.33회)의 성관계 경험 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성관계 경험 빈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증가하다가 감소(1.00회 → 1.50회 → 19.00회 → 9.33회) 하였고, 중간층은 중학교 3학년 때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1.50회 → 없음 → 4.67회 → 4.94회 → 9.63회)하였다. 하위층의 성관계 경험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1.33회 → 1.75회 → 2.50회 → 4.00회)하였다(<표 III-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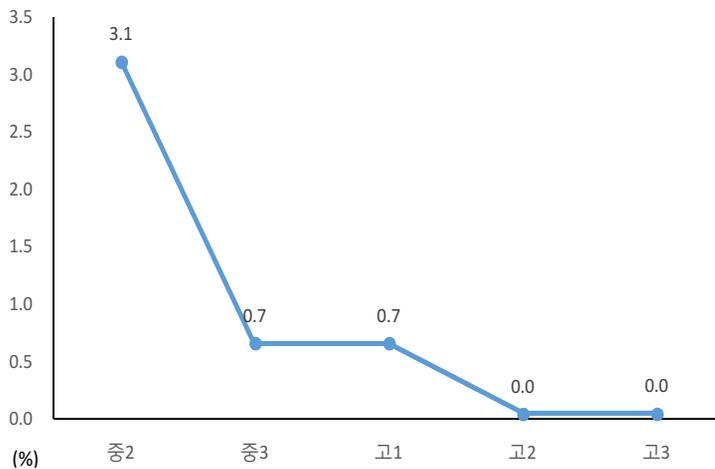
2) 범법행동

범법행동과 관련된 항목은 집단따돌림, 심한 놀림/조롱, 패싸움, 구타, 협박, 갈취, 절도, 성폭력으로 지난 1년간 위 행동의 경험 여부 및 경험 빈도로 각 비행항목별 경험률과 경험 빈도를 파악하였다. 각 행동별 경험 빈도의 값은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 집단따돌림

① 집단따돌림 경험률

지난 1년 동안 다른사람을 따돌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험률은 [그림 III-12]와 같다.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를 시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1%이고, 이후 경험률은 급격히 감소하여 중학교 3학년 때 0.7%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왕따를 시킨 경험률이 0.7%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2, 3학년 때의 경험률은 0.0%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집단따돌림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경험률을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의 집단따돌림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집단따돌림을 한 경험률(남: 3.4%, 여: 2.8%)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집단따돌림을 한 경험률이 남자의 경우

3.4%에서 고등학교 2, 3학년 때 0.1%로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2.8%(중2)에서 0.0%(고2, 고3)로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집단따돌림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시군부의 집단따돌림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광역시의 경험률이 0.2%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집단따돌림 경험률은 2.4%(중2)에서 0.5%(중3)로 감소 한 이후 0.6%(고1)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0.0%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험률은 꾸준히 감소(2.8% → 0.7% → 0.5% → 0.0%)하여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률은 0.0%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증가(0.2%)하였다. 시군부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때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증가하였고 이후 집단따돌림 경험률이 감소(3.5% → 0.7% → 0.9 → 0.1% → 0.0%)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0.0%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의 집단따돌림 경험률(중2: 5.7%, 중3: 2.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0.0%로 나타났다. 고졸의 집단따돌림 경험률은 2.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2.6% → 0.7% → 0.3% → 0.0% → 0.0%)하여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0.0%가 되었다. 또한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에서는 감소와 증가가 반복(3.3% → 0.5% → 0.9% → 0.1% → 0.1%)하여 나타나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에 집단따돌림 경험률은 0.1%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상위층(3.4%)의 집단따돌림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중간층(0.8%),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상위층(1.3%, 0.3%),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중간층(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위층의 집단따돌림 경험률을 살펴보면, 감소와 증가(3.4% → 0.3% → 1.3% → 0.3% → 0.0%)가 반복하여 나타났다. 중간층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꾸준히 감소(3.3% → 0.8% → 0.5% → 0.0%)하여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경험률은 0.0%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증가하여 집단따돌림 경험률이 0.1%로 나타났다. 하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2.8% → 0.7% → 0.6% → 0.0% → 0.0%)하여 고등학교 2, 3학년의 집단따돌림 경험률은 0.0%로 나타났다.

표 III-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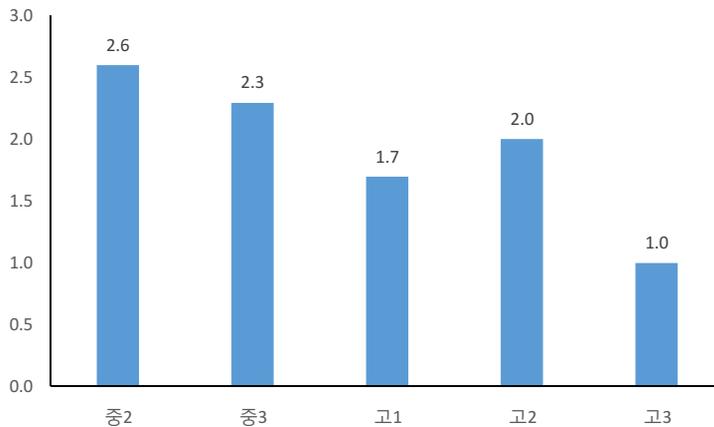
집단따돌림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3.4	1.1	1.0	0.1	0.1
	여자	2.8	0.3	0.3	0.0	0.0
지역별	서울	2.4	0.5	0.6	0.0	0.0
	광역시	2.8	0.7	0.3	0.0	0.2
	시군부	3.5	0.7	0.9	0.1	0.0
부모학력	중졸이하	5.7	2.0	0.0	0.0	0.0
	고졸	2.6	0.7	0.5	0.0	0.0
	대졸이상	3.3	0.5	0.9	0.1	0.1
가구소득	상위층	3.4	0.3	1.3	0.3	0.0
	중간층	3.3	0.8	0.5	0.0	0.1
	하위층	2.8	0.7	0.6	0.0	0.0

②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

집단따돌림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1년간 몇 회 따돌렸는지 그 경험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III-13]과 같다. 중학교 2학년 시기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는 평균 2.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감소(2.3회 → 1.7회)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잠시 증가(1.7회 → 2.0회)한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감소(2.0회 → 1.0회)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집단따돌림의 경험률은 0.0%로 나타났으나, 전체 인원 대비 집단따돌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적어 0.0%로 나타났을 뿐, 실제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증가하였다.



【그림 III-13】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 변화

집단따돌림 경험의 빈도를 하위집단별로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남자의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의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는 중학교 2학년 때 3.41회 집단따돌림을 하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감소(3.41회 → 2.70회 → 1.91회)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00회로 잠시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1.00회)하였다. 여자는 중학교 2학년 때 1.61회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각각 1.00회 경험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는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험 빈도는 시군부와 광역시에서 번갈아 가면서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의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 때 1.20회였으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00회로 나타났고 이후 경험 빈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때는 2.50회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1.50회로 감소한 후 고2때는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1.00회로 다시 증가하였다. 시군부의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경험 빈도는 꾸준히 감소(2.88회 → 2.38회 → 1.82회)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2.00회로 증가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경험 빈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에 따른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중학교 때만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가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 2.00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는 5.00회로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시절의 집단따돌림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이 고졸인 집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경험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2.25회 → 2.33회 → 2.40회)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 대졸이상에서 집단따돌림의 경험 빈도는 감소와 증가(2.78회 → 1.20회 → 1.33회 → 2.00회 → 1.00회)가 반복하여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하위층의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가 3.80회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3.80회 → 2.00회 → 1.00회)하여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상위층의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상위층의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 때 1.83회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3학년 때는 7.00회로 경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경험 빈도는 다시 감소(7.00회 → 2.60회 → 2.00회)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경험 빈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의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꾸준히 감소(2.61회 → 1.90회 → 1.29회)하여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가 없었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가 증가하여 1.00회로 나타났다.

표 III-17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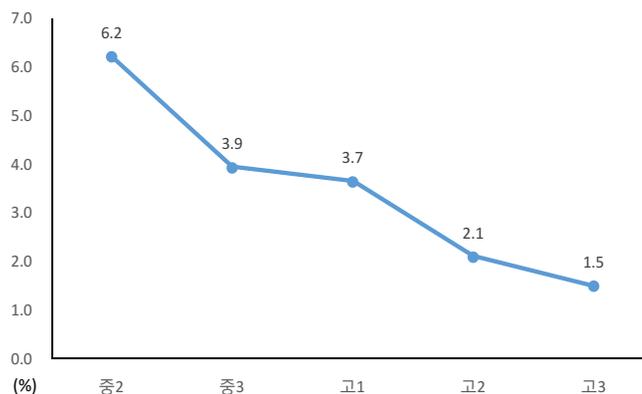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3.41(3.99)	2.70(2.40)	1.91(2.07)	2.00 (-)	1.00 (-)
	여자	1.61(0.98)	1.00(0.00)	1.00(0.00)	- (-)	- (-)
지역별	서울	1.20(0.44)	1.00 (-)	1.00 (-)	- (-)	- (-)
	광역시	2.50(2.54)	2.50(3.00)	1.50(0.70)	- (-)	1.00 (-)
	시군부	2.88(3.62)	2.38(2.06)	1.82(2.08)	2.00 (-)	- (-)
부모학력	중졸이하	2.00(1.22)	5.00(2.82)	- (-)	- (-)	- (-)
	고졸	2.25(2.06)	2.33(2.42)	2.40(3.13)	- (-)	- (-)
	대졸이상	2.78(3.68)	1.20(0.44)	1.33(0.50)	2.00 (-)	1.00 (-)
가구소득	상위층	1.83(1.26)	7.00 (-)	2.60(3.05)	2.00 (-)	- (-)
	중간층	2.61(3.37)	1.90(1.91)	1.29(0.48)	- (-)	1.00 (-)
	하위층	3.80(3.93)	2.00(1.41)	1.00(0.00)	- (-)	- (-)

(2) 심한 놀림/ 조롱하기

① 심한 놀림/조롱하기 경험률

지난 1년간 타인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 한 결과 중학교 2학년 때 6.2%로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한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 때 3.9%로 급격이 감소한 이후 경험률이 감소(3.9% → 3.7% → 2.1% → 1.5%)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III-14】 심한 놀림/조롱 경험률 변화

하위집단별로 심한 놀림/조롱의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성별의 경우 남자의 경험률이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 남자의 경험률은 9.5%, 여자는 2.9%로 약 6%p 정도 차이가 난다. 남자와 여자의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자의 경험률은 9.5%(중2)에서 2.7%(고3)로 약 7%p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2.9%(중2)에서 0.3%(고3)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 이후 경험률은 1%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의 경험률이 6.7%로 가장 높았으나 시군부(6.6%)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이후 경험률은 시군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심한 놀림/조롱 경험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차례 증가한 경험 외에 지속적으로 감소(6.7% → 1.5% → 2.4% → 1.2% → 0.0)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시군부의 경험률은 꾸준히 감소(광역시: 5.7% → 3.8% → 3.2% → 1.7% → 1.6%, 시군부: 6.6% → 4.6% → 4.0% → 2.5% → 1.6%)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두 지역의 경험률은 각각 1.6%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심한 놀림이나 조롱을 한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고졸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졸이상(6.2%)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심한 놀림/조롱 경험률은 중졸이하(중3: 5.0%, 고1: 6.2%, 고2: 3.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졸이상(1.4%)이 가장 경험률이 높았으나 다른 학력(고졸 1.3%, 중졸이하 1.1%)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중졸이하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는 경험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감소(3.4% → 5.0% → 6.2% → 3.4% → 1.1%)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다른 부모학력 집단보다 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학력이 고졸과 대졸이상에서는 심한 놀림/조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고졸: 6.6% → 4.0% → 3.8% → 2.3% → 1.3, 대졸이상: 6.2% → 3.9% → 3.3% → 1.7% → 1.4%)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심한 놀림/조롱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중간층의 경험률이 6.7%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상위층(중3: 4.3%, 고1: 5.1%),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하위층(고2: 3.4%, 고3: 2.6%)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별 심한 놀림/조롱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의 경험률은 감소와 증가(5.9% → 4.3% → 5.1% → 1.3% → 1.4%)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 뒤 지속적으로 감소(6.7% → 4.2% → 3.1% → 2.1% → 1.0%)하였다. 하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차례 증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5.6% → 3.3% → 4.1% → 3.4% → 2.6%)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III-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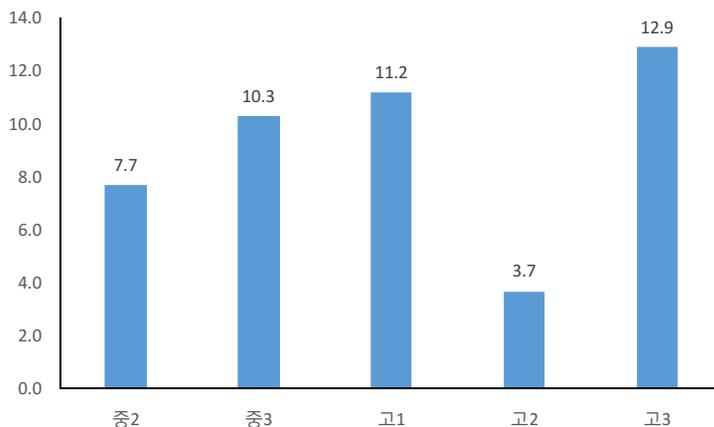
심한 놀림/조롱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9.5	6.6	6.5	3.7	2.7
	여자	2.9	1.3	0.7	0.5	0.3
지역별	서울	6.7	1.5	2.4	1.2	0.0
	광역시	5.7	3.8	3.2	1.7	1.6
	시군부	6.6	4.6	4.0	2.5	1.6
부모학력	중졸이하	3.4	5.0	6.2	3.4	1.1
	고졸	6.6	4.0	3.8	2.3	1.3
	대졸이상	6.2	3.9	3.3	1.7	1.4
가구소득	상위층	5.9	4.3	5.1	1.3	1.4
	중간층	6.7	4.2	3.1	2.1	1.0
	하위층	5.6	3.3	4.1	3.4	2.6

② 심한 놀림/조롱 경험 빈도

전반적으로 심한 놀림/조롱 경험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1년 간 경험한 빈도를 확인 한 결과는 경험률과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까지 지속적으로 경험 빈도가 증가(7.7회 → 10.3회 → 11.2회)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7회로 급격히 감소한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12.9회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5】 심한 놀림/조롱 경험 빈도 변화

성별에 따른 심한 놀림/조롱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경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여자(5.00회)가 남자(3.63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험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급격히 감소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8.29회 → 11.88회 → 12.04회 → 3.63회 → 14.18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차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5.91회 → 3.14회 → 2.67회 → 5.00회 → 1.67회)하였다.

지역별로는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의 경험 빈도가 19.71회로 가장 높았으며, 중3부터 고2까지는 광역시의 경험 빈도(중3: 13.46회, 고1: 12.64회, 고2: 4.91회)가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시군부의 경험 빈도가 17.0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은 감소와 증가(19.71회 → 1.67회 → 6.00회 → 3.00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6.80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 13.46회로 증가한 후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 감소(13.46회 → 12.64회 → 4.91회)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8.80회로 증가하였다. 시군부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증가(6.32회 → 9.38회 → 11.33회)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45회로 감소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17.06회로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로는 중학교 2, 3학년 시기에 심한 놀림/조롱의 경험 빈도는 부모학력이 고졸의 경험 빈도(8.97회, 14.35회)가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졸이하(23.33회)가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2학년은 대졸이상(3.76회)이 가장 높으나 고졸(3.75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고졸(13.73회)의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차례 증가를 제외하고는 감소(6.00회 → 3.40회 → 23.33회 → 2.00회 → 2.00회)하였다. 고졸과 대졸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고졸: 8.97회 → 14.35회 → 13.00회 → 3.75회 → 13.73회, 대졸이상: 6.57회 → 8.37회 → 7.81회 → 3.76회 → 10.00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하위층은 중학교 2학년(10.10회)과 고등학교 2학년(4.00회) 때 경험 빈도가 가장 높으며, 상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31.57회로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중간층의 경험 빈도(중3: 12.86회, 고3: 16.17회)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경험 빈도의 변화는 각각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 상위층은 매년 감소와 증가(8.62회 → 7.24회 → 31.57회 → 2.60회 → 9.20회)가 반복하여 나타났다. 중간층은 중학교 3학년 때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 경험 빈도가 감소(7.30회 → 12.86회 → 8.10회 → 3.96회)하였다가 다시 고3때 16.17회로 증가하였다. 하위층의 심한 놀림/조롱

경험 빈도도 상위층과 마찬가지로 감소와 증가(10.10회 → 5.42회 → 13.25회 → 4.00회 → 5.89회)가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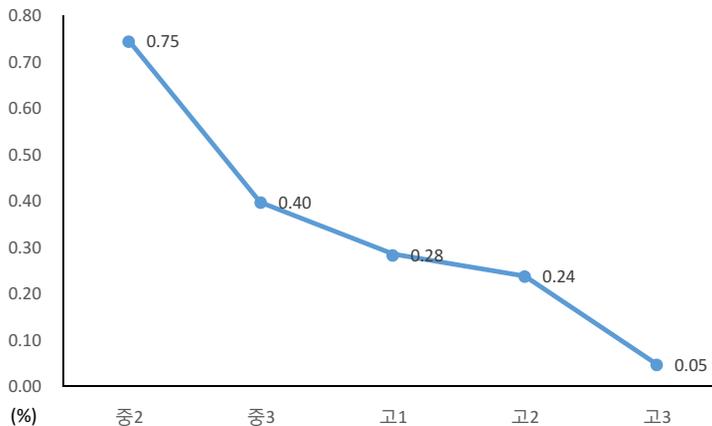
표 III-19 심한 놀림/조롱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8.29(17.12)	11.88(21.81)	12.04(24.72)	3.63(3.07)	14.18(25.72)
	여자	5.91(10.07)	3.14(2.65)	2.67(1.50)	5.00(3.39)	1.67(1.15)
지역별	서울	19.71(35.07)	1.67(0.57)	6.00(4.69)	3.00(2.82)	- (-)
	광역시	6.80(16.06)	13.46(27.64)	12.64(28.46)	4.91(4.06)	8.80(11.87)
	시군부	6.32(8.62)	9.38(15.95)	11.33(23.18)	3.45(2.74)	17.06(30.87)
부모학력	중졸이하	6.00(5.65)	3.40(3.78)	23.33(47.38)	2.00(1.00)	2.00 (-)
	고졸	8.97(18.79)	14.35(28.04)	13.00(24.58)	3.75(2.71)	13.73(29.14)
	대졸이상	6.57(13.30)	8.37(12.01)	7.81(17.44)	3.76(3.19)	10.00(11.19)
가구소득	상위층	8.62(21.35)	7.24(8.01)	31.57(31.57)	2.60(1.51)	9.20(7.12)
	중간층	7.30(12.98)	12.86(24.59)	8.10(16.84)	3.96(3.15)	16.17(28.91)
	하위층	10.10(22.31)	5.42(8.19)	13.25(33.71)	4.00(3.60)	5.89(5.03)

(3) 패싸움

① 패싸움 경험률

청소년들의 패싸움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패싸움 경험률이 0.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0.75% → 0.40% → 0.28% → 0.24% → 0.05%)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0.05%로 나타난다.



【그림 III-16】 패싸움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패싸움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의 패싸움 경험률이 더 높으며, 두 성별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남자는 중학교 2학년 때 1.0%로 패싸움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이후 패싸움 경험률은 꾸준히 감소(1.0% → 0.6% → 0.4% → 0.3%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도 중학교 2학년 때 0.4%로 패싸움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는 패싸움 경험률이 0.2%로 동일하며,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률은 0.0%이다.

지역별로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시군부(0.9%), 중학교 3학년 때는 광역시(0.6%),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서울(0.6%)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서울은 중학교 2학년 때 패싸움 경험률이 0.5%였으나 중학교 3학년 때는 0.0%로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0.6%로 다시 증가한 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경험률이 0.6%로 유지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경험률이 0.0%로 다시 감소하였다. 광역시의 패싸움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는 0.4% 였으나 중학교 3학년 때 경험률이 증가하였고, 이후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0.6% → 0.3% → 0.0% → 0.0%)하였다. 시군부의 패싸움 경험률은 고2때 한차례 증가를 제외하고는 감소(0.9% → 0.4% → 0.2% → 0.3% → 0.0%)하였다.

부모학력별 패싸움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졸이하에서는 경험률이 0.0%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때는 고졸과 대졸이상의 패싸움 경험률(중2: 고졸: 0.8%, 대졸이상: 0.7%, 중3: 고졸 0.4%, 대졸이상 0.5%)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 고졸과 대졸이상의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패싸움 경험률은 각 0.2%, 0.0%로 경험률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은 대졸이상의 경험률이 0.0%이고 고졸이 0.5%로 고졸이 대졸이상보다 패싸움 경험률이 0.5%p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이 고졸인 집단의 패싸움 경험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차례 증가하나 전반적으로는 감소(0.8% → 0.4% → 0.5% → 0.2% → 0.0%)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졸이상인 집단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차례 증가하나 전반적으로는 감소(0.7% → 0.5% → 0.0% → 0.2% → 0.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패싸움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상위층과 중간층이 0.8%로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중학교 3학년 때는 하위층(0.7%),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간층(0.4%),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상위층과 중간층이 0.3%로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패싸움 경험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나타낸다. 전반적인 경험률은 감소하는 추이로 나타나나 상위층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위층은 중학교 3학년 때 각각 한 차례씩 경험률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싸움 경험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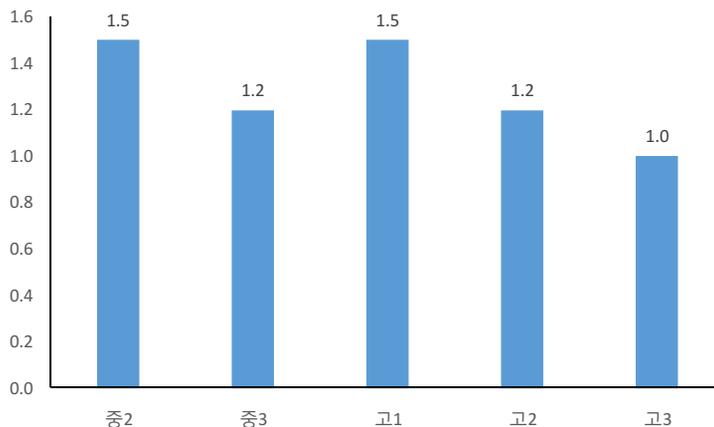
패싸움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1.0	0.6	0.4	0.3	0.1
	여자	0.4	0.2	0.2	0.2	0.0
지역별	서울	0.5	0.0	0.6	0.6	0.0
	광역시	0.4	0.6	0.3	0.0	0.0
	시군부	0.9	0.4	0.2	0.3	0.0
부모학력	중졸이하	0.0	0.0	0.0	0.0	0.0
	고졸	0.8	0.4	0.5	0.2	0.0
	대졸이상	0.7	0.5	0.0	0.2	0.0
가구소득	상위층	0.8	0.5	0.0	0.3	0.0
	중간층	0.8	0.3	0.4	0.3	0.0
	하위층	0.6	0.7	0.3	0.0	0.0

② 패싸움 경험 빈도

패싸움 경험 빈도를 살펴 본 결과, 패싸움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의 빈도는 1.0~1.5회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 패싸움 경험 빈도가 1.5회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3학년 때는 1.2회로 감소하였고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 1.5회로 다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5회 경험한 이후에는 경험 빈도가 꾸준히 감소(1.5회 → 1.2회 → 1.0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싸움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패싸움 경험 빈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1.0~1.5회의 경험 빈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7】 패싸움 경험 빈도 변화

성별에 따른 패싸움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경험률은 남자가 높으나 패싸움 경험 빈도는 중학교 시절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것(남자: 중2: 1.50회, 중3: 1.20회, 여자: 중2: 1.80회, 중3: 1.50회)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패싸움 경험 빈도는 남자와 여자 모두 1.50으로 동일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부턴 경험 빈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남자: 고2: 1.33회, 고3: 1.00회, 여자: 고2: 1.00회, 고3: 없음)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패싸움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차례 증가 경험 빈도가 증가한 외에 전체적으로 감소(1.50회 → 1.20회 → 1.50회 → 1.33회 → 1.00회)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1.80회 → 1.50회 → 1.50회 → 1.00회 → 없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역별로 패싸움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서울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1.00회 경험을 제외하고는 패싸움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패싸움 경험 빈도는 광역시와 시군부 각각 1.67회와 1.50회로 동일하며, 중학교 3학년 때는 시군부보다 광역시의 경험 빈도가 더 많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시군부 지역이 광역시보다 경험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시군부의 경우 모두 고등학교 1학년 때 패싸움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광역시: 1.67회 → 1.33회 → 1.50회 → 없음, 시군부: 1.67회 → 1.25회 → 1.50회 → 1.33회 → 없음)하는 추세를 보인다.

부모학력별 패싸움 경험 빈도는 중졸이하는 경험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의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 때 1.50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 1.33회로 감소한 후 1.40회(고1)로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1.00회 → 없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대졸이상은 중학교 2학년 때 1.75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 1.25회로 감소한 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감소하여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 빈도가 1.50회로 증가한 이후 다시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은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졸보다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 때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부모학력이 고졸인 집단이 대졸이상인 집단보다 패싸움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

패싸움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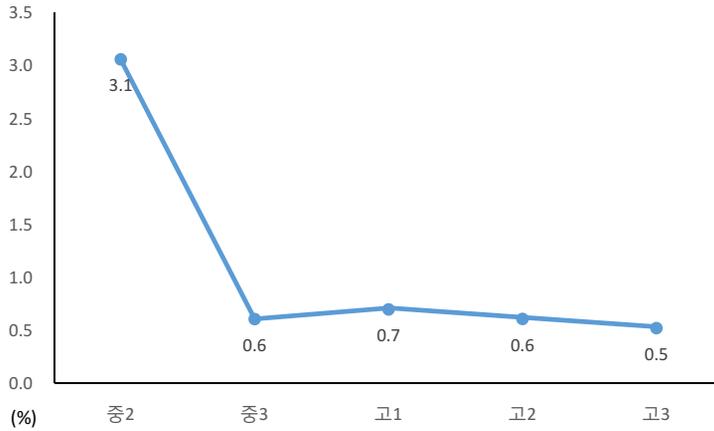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1.50(0.67)	1.20(0.44)	1.50(0.57)	1.33(0.57)	1.00 (-)
	여자	1.80(0.83)	1.50(0.70)	1.50(0.70)	1.00(0.00)	- (-)
지역별	서울	1.00 (-)	- (-)	1.00 (-)	1.00 (-)	- (-)
	광역시	1.67(0.57)	1.33(0.57)	1.50(0.70)	- (-)	- (-)
	시군부	1.67(0.77)	1.25(0.50)	1.50(0.70)	1.33(0.57)	- (-)
부모학력	중졸이하	- (-)	- (-)	- (-)	- (-)	- (-)
	고졸	1.50(0.75)	1.33(0.57)	1.40(0.54)	1.00(0.00)	- (-)
	대졸이상	1.75(0.70)	1.25(0.50)	- (-)	1.50(0.70)	- (-)
가구소득	상위층	1.67(0.57)	1.50(0.70)	- (-)	2.00 (-)	- (-)
	중간층	1.64(0.80)	1.00(0.00)	1.50(0.57)	1.00(0.00)	- (-)
	하위층	1.50(0.70)	1.50(0.70)	1.00 (-)	- (-)	- (-)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상위층의 패싸움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중학교 3학년 때는 상위층과 하위층이 각각 1.50회로 두 집단이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간층이 1.50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상위층이 2.0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가구소득별 패싸움 경험 빈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층의 패싸움 경험 빈도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감소(1.67회 → 1.50회 → 없음)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 빈도가 2.00회로 다시 증가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 감소와 증가 이후 다시 감소(1.64회 → 1.00회 → 1.50회 → 1.00회)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패싸움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층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경험빈도는 1.50회 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 1.00회로 감소한 이후 패싸움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 참조).

(4) 구타

① 구타 경험률

다른 사람을 때린(구타) 한 경험을 살펴보면, [그림 III-18]과 같다. 구타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3.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1% 미만의 경험률을 나타낸다. 중학교 3학년 때 경험률은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0.6%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0.1%p 증가하였다가 이후 매년 0.1%p씩 감소(0.6% → 0.7% → 0.6% → 0.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8】 구타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구타 경험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남자의 경험률은 5.1%, 여자는 1.0%로 약 4%p 차이가 나며, 중학교 3학년 때 남자와 여자 모두 경험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남자는 1.1% 여자는 0.1%의 경험률을 보인다. 남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률이 1.3%로 0.2%p 상승하였으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1.1%의 경험률을 보인다. 여자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경험률이 0.1%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구타 경험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구타 경험률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만 각각 1.9%, 0.6%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학년에서는 경험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는 중학교 2학년 때는 2.2%에서 중학교 3학년 때는 0.7%로 구타 경험률이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경험률이 0.2%p 증가하였다. 이후 구타 경험률은 감소(0.5% → 0.2%)하였다. 시군부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3.8%로 타 지역 보다 높으며, 중학교 3학년 때 0.7%로 감소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 까지 구타 경험률이 0.7%로 유지되는 추이를 보인다.

부모학력별 구타 경험률을 살펴보면, 구타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중졸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중졸이하에서의 구타 경험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고졸과 대졸이상의 구타 경험률은 0.5%로 나타났다. 중졸이하의 구타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5.7%에서 꾸준히 감소(5.7% → 1.0% → 1.0% → 1.1% → 0.0%)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고졸의 구타 경험률 추이는 감소와 증가(3.0% → 0.5% → 0.7% → 0.3% → 0.5%)를 반복하며, 대졸이상은 꾸준히 감소(3.1% → 0.7% → 0.7% → 0.6% → 0.5%)하는 추이를 보인다.

표 Ⅲ-22

구타 경험률: 하위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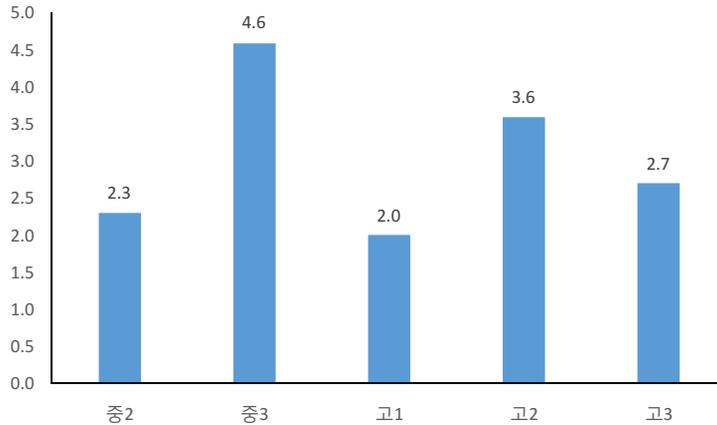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5.1	1.1	1.3	1.1	1.1
	여자	1.0	0.1	0.1	0.1	0.0
지역별	서울	1.9	0.0	0.6	0.0	0.0
	광역시	2.2	0.7	0.9	0.5	0.2
	시군부	3.8	0.7	0.7	0.7	0.7
부모학력	중졸이하	5.7	1.0	1.0	1.1	0.0
	고졸	3.0	0.5	0.7	0.3	0.5
	대졸이상	3.1	0.7	0.7	0.6	0.5
가구소득	상위층	3.1	1.0	1.6	0.5	0.0
	중간층	3.0	0.6	0.3	0.5	0.4
	하위층	3.9	0.5	1.3	0.8	0.9

가구소득별 구타 경험률을 살펴보았다. 중학교 2학년 때는 하위층의 경험률이 3.9%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가구 소득에서도 약 3%의 경험률(상위층 3.1%, 중간층 3.0%)을 보인다. 이후 모든 가구소득에서 경험률이 감소하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구타 경험률은 다른 가구소득에 비해 상위층(중3: 1.0%, 고1: 1.6%)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하위층(고2: 0.8%, 고3: 0.9%)에서 구타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위층의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률이 한 차례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험률이 감소(3.1% → 1.0% → 1.6% → 0.5% → 0.0%)한다. 중간층은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차례 증가한 후 다시 감소(3.0% → 0.6% → 0.3% → 0.5% → 0.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층의 구타 경험률은 감소와 증가(3.9% → 0.5% → 1.3% → 0.8% → 0.9%)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표 Ⅲ-22> 참조).

② 구타 경험 빈도

다른 사람을 구타한 적이 있는 경우 지난 1년간 구타 경험이 몇 회인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 구타 경험률과는 다르게 구타 경험 빈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는 23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는 46회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2.0회(고1)로 감소한 후 3.6회(고2)로 증가하였다.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2.7회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다.



【그림 Ⅲ-19】 구타 경험 빈도 변화

하위집단별 구타 경험빈도는 <표 Ⅲ-23>과 같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구타 경험 빈도가 높으나 중학교 2학년 때는 남자 2.35회, 여자 2.27회로 경험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때는 남자가 5.00회 여자가 1.00회로 평균 4회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구타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는 경험 빈도가 증가와 감소(2.35회 → 5.00회 → 2.14회 → 3.75회 → 2.73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감소(2.27회 → 1.00회 → 1.00회)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00회로 증가한 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구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구타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 때 1.25회, 고등학교 1학년 때 2.00회를 제외한 다른 학년에서는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는 광역시의 경험 빈도가 3.06회 시군부가 2.17회로 광역시의 경험 빈도가 더 많았으나 중학교 3학년 때는 시군부가 4.88회, 광역시가 4.40회로 시군부의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시군부(2.25회)의 구타 경험 빈도가 높았으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광역시(고2: 9.67회, 고3: 5.00회)의 구타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의 구타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증가와 감소(3.06회 → 4.40회 → 1.83회 → 9.67회 → 5.00회)를 반복하고 있으며, 시군부는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가면서 한차례 증가한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구타 경험 빈도는 감소(2.17회 → 4.88회 → 2.25회 → 1.50회)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63회로 증가하였다.

부모학력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부모학력이 고졸인 청소년들의 구타 경험 빈도가

2.32회로 가장 높았으나 대졸이상(2.30회)과 중졸이하(2.20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때 세 집단 모두 구타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중졸이하에서 크게 증가(10.00회)하여, 중졸이하의 구타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고, 고졸(4.00회)과 대졸(4.38회)의 구타 경험 빈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부모학력이 고졸인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시절 구타 경험 빈도는 1학년 때 2.83회로 다른 부모학력 집단보다 구타 경험 빈도가 높았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는 부모학력 대졸이상의 구타 경험 빈도(고2: 5.33회, 고3: 4.00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 중졸이하의 구타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2.20회(중2)에서 10.00회(중3)로 크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10.00회 → 2.00회 → 2.00회 → 없음)하였다. 부모학력 고졸의 경우 중학교 시기의 구타 경험 빈도는 증가(2.32회 → 4.00회) 하였으나 고등학교 이후 그 빈도가 감소(4.00회 → 2.83회 → 1.33회) 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1.50회로 다시 증가하였다. 대졸이상에서는 구타 경험 빈도가 증가와 감소(2.30회 → 4.38회 → 1.43회 → 5.33회 → 4.00회)를 반복하면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구타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시기 경험 빈도는 하위층이 3.38회로 가장 높았으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상위층(중3: 6.50회, 고1: 1.67회)의 구타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경우 가구소득별로 구타 경험 빈도가 유사하게(상위층: 1.67회, 중간층: 1.25회, 하위층: 1.50회) 나타났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중간층의 구타 경험 빈도(고2: 5.33회, 고3: 4.00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구타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1.91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 6.50회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6.50회 → 1.67회 → 1.50회 → 없음)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구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과 하위층은 구타 경험 빈도가 증가와 감소(중간층: 2.12회 → 3.75회 → 1.25회 → 5.33회 → 4.00회, 하위층: 3.38회 → 5.00회 → 1.50회 → 2.00회 → 1.67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III-23

구타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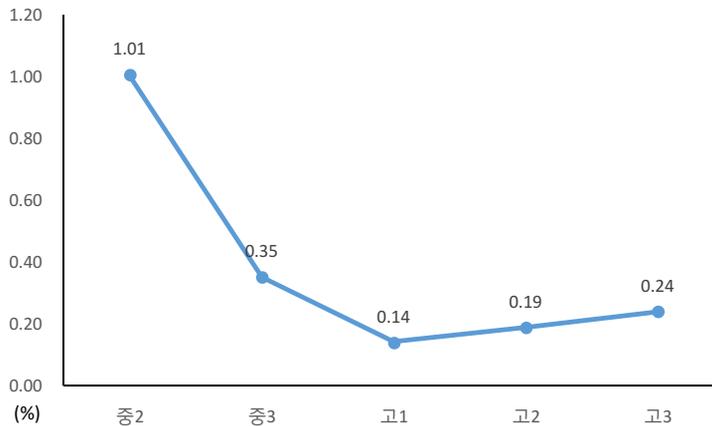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2.35(2.44)	5.00(3.46)	2.14(2.34)	3.75(6.49)	2.73(3.34)
	여자	2.27(1.84)	1.00 (-)	1.00 (-)	2.00 (-)	- (-)
지역별	서울	1.25(0.50)	- (-)	2.00 (-)	- (-)	- (-)
	광역시	3.06(3.19)	4.40(1.94)	1.83(0.75)	9.67(12.42)	5.00 (-)
	시군부	2.17(2.08)	4.88(4.32)	2.25(3.15)	1.50(0.75)	2.63(3.85)
부모학력	중졸이하	2.20(1.78)	10.00 (-)	2.00 (-)	2.00 (-)	- (-)
	고졸	2.32(2.46)	4.00(2.58)	2.83(3.54)	1.33(0.57)	1.50(1.00)
	대졸이상	2.30(2.43)	4.38(3.70)	1.43(0.78)	5.33(9.18)	4.00(4.79)
가구소득	상위층	1.91(1.22)	6.50(4.35)	1.67(0.81)	1.50(0.70)	- (-)
	중간층	2.12(2.18)	3.75(3.15)	1.25(0.50)	5.33(9.18)	4.00(4.79)
	하위층	3.38(3.35)	5.00 (-)	1.50(0.57)	2.00(1.00)	1.67(1.15)

(5) 협박

① 협박 경험률

중학교 2학년 때 협박 경험률(1.01%)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고등학교 1학년 까지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협박의 경험률이 증가(1.01% → 0.35% → 0.14% → 0.19% → 0.24%)하였다.



【그림 III-20】 협박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협박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협박의 경험률이 높으며, 남자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1.6%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이후부터 다시 증가(1.6% → 0.7% → 0.3% → 0.4% → 0.5%)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여자는 중학교 2학년 때 협박 경험률이 0.4%로 나타난 후 다른 사람을 협박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중학교 2학년 때 협박 경험률이 0.5%로 나타났으나 이후 경험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협박 경험률을 살펴보면, 광역시와 시군부가 중학교 2학년 때 각각 1.1%로 나타났으며, 이후 둘 다 감소하여 중학교 3학년 때 광역시의 협박 경험률은 0.6%, 시군부는 0.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 시군부의 협박 경험률은 3년 동안 0.2%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광역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협박 경험률이 증가(0.1% → 0.3% → 0.3%)하였다.

부모학력별 협박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중졸이하(중2: 2.3%, 중3: 1.0%)의 협박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때는 고졸(고1: 0.2%, 고2: 0.3%, 고3: 0.2%)의 협박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학력 간 협박 경험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이하는 중학교 때까지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의 협박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증가한 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다시 감소(0.8% → 0.5% → 0.2% → 0.3% → 0.2%)하였다. 대졸이상의 협박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1.1%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 때는 0.2%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1, 2, 3학년 때의 협박 경험률은 0.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협박 경험률의 변화를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학년별 협박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매 학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협박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의 협박 경험률은 중학교 2, 3학년 때는 0.8%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0.0%로 감소하였다. 이 후 고등학교 2학년 때 0.3%로 증가한 후 다시 0.0%(고3)로 감소하였다. 중간층의 협박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1.0% → 0.3% → 0.2% → 0.2% → 0.1%)하고 있다. 하위층의 협박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협박 경험률이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협박 경험률이 다시 증가(1.1% → 0.2% → 0.0% → 0.3% → 0.9%)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표 III-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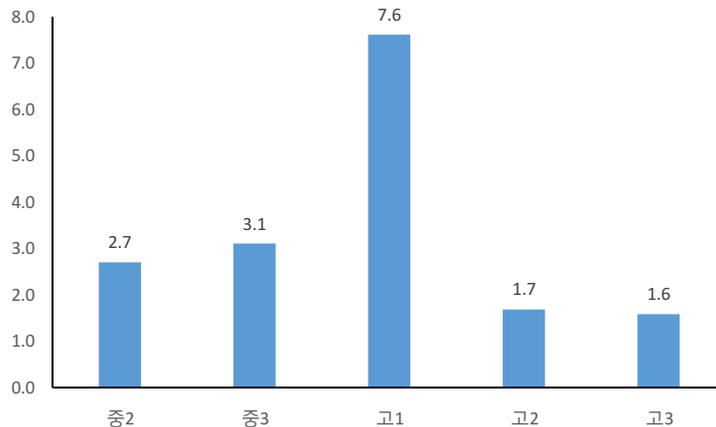
협박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1.6	0.7	0.3	0.4	0.5
	여자	0.4	0.0	0.0	0.0	0.0
지역별	서울	0.5	0.0	0.0	0.0	0.0
	광역시	1.1	0.6	0.1	0.3	0.3
	시군부	1.1	0.3	0.2	0.2	0.2
부모학력	중졸이하	2.3	1.0	0.0	0.0	0.0
	고졸	0.8	0.5	0.2	0.3	0.2
	대졸이상	1.1	0.2	0.1	0.1	0.1
가구소득	상위층	0.8	0.8	0.0	0.3	0.0
	중간층	1.0	0.3	0.2	0.2	0.1
	하위층	1.1	0.2	0.0	0.3	0.9

② 협박 경험 빈도

협박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 협박 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협박 경험률과 반대로 나타났다. 협박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으나 협박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증가한 후 다시 감소(2.7회 → 3.1회 → 7.6회 → 1.7회 → 1.6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1】 협박 경험 빈도 변화

하위집단별 협박 경험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25>와 같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남자는 3.00회 여자는 1.60회로 나타났으며, 이후 여자의 협박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자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협박 경험률이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3.00회 → 3.17회 → 7.67회 → 1.75회 → 1.60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 경험 빈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중2: 4.38회, 고2: 2.50회, 고3: 1.50회)와 시군부(중3: 4.33회, 고1: 10.50회)의 협박 경험 빈도가 변갈아 가면서 높게 나타났다. 협박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은 중학교 2학년 때 3.00회로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협박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협박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감소(4.38회 → 2.00회 → 2.00회)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50회로 증가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1.00회로 다시 감소하였다. 시군부의 중학교 2학년 때 협박 경험 빈도는 1.71회로 다른 지역의 경험 빈도보다 적었으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경험 빈도가 증가(1.71회 → 4.33회 → 10.50회)하였다.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 1.00회로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50회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협박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대졸이상(중2: 2.92회)과 중졸이하(중3: 10.00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때는 고졸의 협박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협박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중학교 3학년 때 10.00회로 크게 증가(1.00회 → 10.00회)하였으나 고등학교 입학 이후 협박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 고졸의 협박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 때 1.75회에서 1.33회로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1.00회로 크게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11.00회 → 2.00회 → 1.50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졸이상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협박 경험빈도가 2.92회로 가장 높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2.92회 → 2.50회 → 1.00회 → 1.00회 → 1.00회)하였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학년별로 협박 경험 빈도가 높은 가구 소득 집단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협박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의 협박 경험 빈도는 증감(1.33회 → 4.33회 → 없음 → 1.00회 → 없음)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추이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1.86회 → 2.00회 → 7.67회 → 2.50회 → 1.00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7.00회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협박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협박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00회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는 1.33회로 증가하였다.

표 III-25

협박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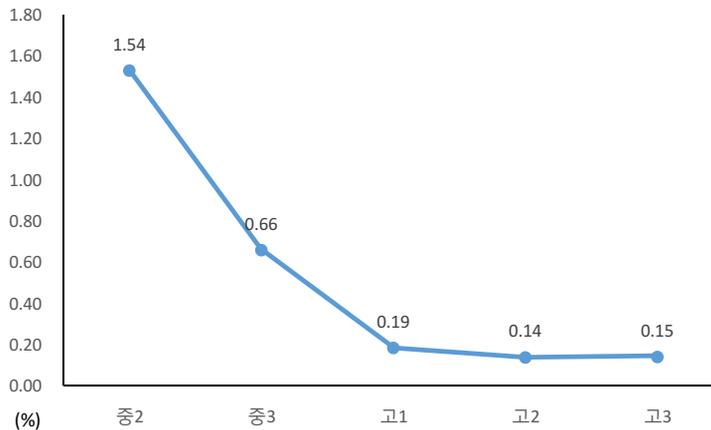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3.00(3.86)	3.17(3.43)	7.67(10.69)	1.75(0.95)	1.60(0.89)
	여자	1.60(0.89)	- (-)	- (-)	- (-)	- (-)
지역별	서울	3.00 (-)	- (-)	- (-)	- (-)	- (-)
	광역시	4.38(5.47)	2.00(1.00)	2.00 (-)	2.50(0.70)	1.00(0.00)
	시군부	1.71(1.20)	4.33(4.93)	10.50(13.43)	1.00(0.00)	1.50(0.70)
부모학력	중졸이하	1.00(0.00)	10.00 (-)	- (-)	- (-)	- (-)
	고졸	1.75(0.88)	1.33(0.57)	11.00(12.72)	2.00(1.00)	1.50(0.70)
	대졸이상	2.92(4.01)	2.50(0.70)	1.00 (-)	1.00 (-)	1.00 (-)
가구소득	상위층	1.33(0.57)	4.33(4.93)	- (-)	1.00 (-)	- (-)
	중간층	1.86(1.23)	2.00(1.00)	7.67(10.69)	2.50(0.70)	1.00 (-)
	하위층	7.00(7.11)	- (-)	- (-)	1.00 (-)	1.33(0.57)

(6) 갈취

① 갈취 경험률

갈취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1.54%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약 절반 정도 감소(0.66%)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1.54% → 0.66% → 0.19% → 0.14% → 0.15%)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III-22】 갈취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갈취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험률이 여자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중학교 시절에는 1%p 정도이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0.2 ~ 0.3%p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갈취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21%에서 이후 11%로 감소한 후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갈취 경험률은 0.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자는 중학교 2학년 때 1.0%에서 중학교 3학년 때 0.3%, 고등학교 1학년 때는 0.1% 경험률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0.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갈취 경험률은 0.0%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시군부 두 집단에서 갈취 경험률이 높은 집단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며,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0.2%로 경험률이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갈취 경험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광역시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경험률이 감소(2.1% → 0.4% → 0.0%)하여, 고등학교 1학년때 경험률은 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경험률이 증가하여 고등학교 2, 3학년 때 경험률은 0.2%로 나타났다. 시군부의 경우 갈취 경험률이 점차적으로 감소(1.6% → 0.9% → 0.2%)하는 추이를 보이며,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갈취 경험률은 0.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년별 갈취 경험률이 높은 부모학년 집단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갈취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가 중학교 2학년 때 1.1%에서 중학교 3학년 때 1.0%로 0.1%p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0.0%로 나타났다. 고졸은 지속적으로 감소(1.6% → 0.7% → 0.3% → 0.1% → 0.0%)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0.0%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갈취 경험률이 감소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 갈취 경험률은 0.0%로 나타났으나 이후 다시 증가(1.6% → 0.6% → 0.0% → 0.2% → 0.3%)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가구소득별 갈취 경험률은 대체로 상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라 다른 가구소득과 함께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득별 갈취 경험률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갈취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1.1%에서 고등학교 입학 때 까지 경험률이 감소(1.1% → 0.8% → 0.3%)하여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갈취 경험률이 0.3%로 유지되었다. 중간층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진 갈취 경험률이 감소(1.8% → 0.8% → 0.1%)하여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는 갈취 경험률이 0.1%로 유지되었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갈취 경험률이 0.2%로 0.1%p 증가하였다. 하위층의 갈취 경험률은 꾸준히 감소(1.4% → 0.5% → 0.3% → 0.3% → 0.0%)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갈취 경험률은 0.0%로 나타났다.

표 III-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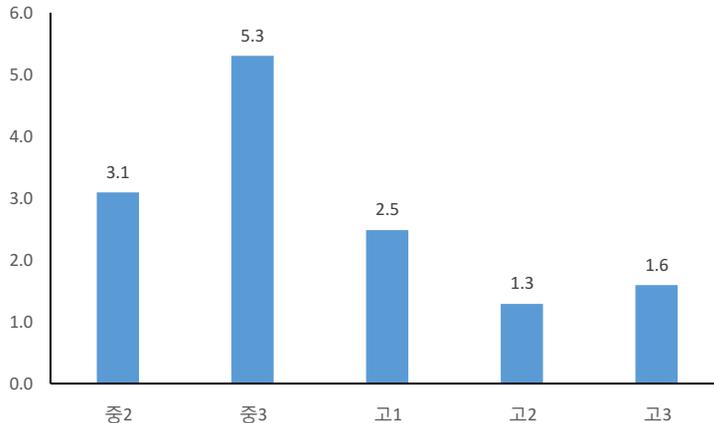
갈취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2.1	1.1	0.3	0.3	0.3
	여자	1.0	0.3	0.1	0.0	0.0
지역별	서울	0.0	0.0	0.0	0.0	0.0
	광역시	2.1	0.4	0.0	0.2	0.2
	시군부	1.6	0.9	0.2	0.2	0.2
부모학력	중졸이하	1.1	1.0	0.0	0.0	0.0
	고졸	1.6	0.7	0.3	0.1	0.0
	대졸이상	1.6	0.6	0.0	0.2	0.3
가구소득	상위층	1.1	0.8	0.3	0.3	0.3
	중간층	1.8	0.8	0.1	0.1	0.2
	하위층	1.4	0.5	0.3	0.3	0.0

② 갈취 경험 빈도

갈취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갈취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경험 빈도는 중학교 3학년(5.3회)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 3.1회를 경험 한 이후 중학교 3학년 때 5.3회로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2.5회와 1.3회로 감소하였다.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 1.6회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III-23】 갈취 경험 빈도 변화

하위집단별 갈취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여자의 경험 빈도가 남자의 경험 빈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남자의 경험 빈도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갈취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는 중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가 증가한 후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가 다시 증가(3.13회 → 6.50회 → 2.67회 → 1.33회 → 1.67회)하였다. 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 빈도가 증가(3.27회 → 1.67회 → 2.00회)한 이후 고등학교 2, 3학년 때의 갈취 경험 빈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은 갈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시군부 중 갈취 경험 빈도가 높은 지역은 학년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지역별 갈취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광역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4.87회 → 1.00회 → 없음 → 1.00회 → 3.00회)하였으며, 시군부는 중학교 3학년 때 한차례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1.90회 → 5.75회 → 2.50회 → 1.50회 → 1.00회)하였다.

부모학력별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중졸이하의 경험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졸,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대졸이상에서 갈취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갈취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중학교 시절에만 경험 빈도가 10.00회로 나타나고 고등학교 이후 갈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졸은 중학교 시절 갈취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2.40회 → 7.83회 → 2.50회 → 1.00회)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갈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졸이상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갈취 경험 빈도가 감소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다시 증가(3.56회 → 2.17회 → 없음 → 1.50회 → 1.67회)하였다.

가구소득별 갈취 경험 빈도는 학년별로 갈취 경험 빈도가 높은 가구소득 집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갈취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1.25회로 다른 가구소득에 비해 가장 낮았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경험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1.25회 → 4.00회 → 5.00회 → 2.00회 → 1.00회)하였다. 중간층의 갈취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증가와 감소(3.36회 → 6.63회 → 1.00회 → 1.00회 → 2.00회)가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하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갈취 경험 빈도가 4.20회로 다른 가구소득의 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4.20회 → 2.50회 → 2.00회 → 1.00회)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갈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갈취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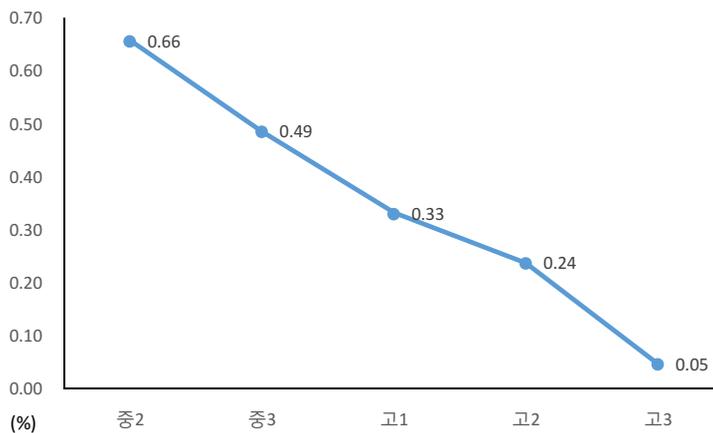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3.13(2.61)	6.50(6.34)	2.67(2.08)	1.33(0.57)	1.67(1.15)
	여자	3.27(3.63)	1.67(0.57)	2.00 (-)	- (-)	- (-)
지역별	서울	- (-)	- (-)	- (-)	- (-)	- (-)
	광역시	4.87(3.62)	1.00 (-)	- (-)	1.00 (-)	3.00 (-)
	시군부	1.90(1.25)	5.75(6.00)	2.50(1.73)	1.50(0.70)	1.00(0.00)
부모학력	중졸이하	10.00 (-)	10.00 (-)	- (-)	- (-)	- (-)
	고졸	2.40(1.63)	7.83(7.54)	2.50(1.73)	1.00 (-)	- (-)
	대졸이상	3.56(3.32)	2.17(1.60)	- (-)	1.50(0.70)	1.67(1.15)
가구소득	상위층	1.25(0.50)	4.00(5.19)	5.00 (-)	2.00 (-)	1.00 (-)
	중간층	3.36(2.97)	6.63(6.84)	1.00 (-)	1.00 (-)	2.00(1.41)
	하위층	4.20(3.56)	2.50(0.70)	2.00 (-)	1.00 (-)	- (-)

(7) 절도

① 절도 경험률

절도의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 때 경험률이 0.66%로 나타난 이후 꾸준히 감소(0.66% → 0.49% → 0.33% → 0.24% → 0.05%)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절도 경험률은 0.05%로 나타났다.



【그림 III-24】 절도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절도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경험률이 높으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절도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0.7%에서 이후 0.6%로 감소

한 이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절도 경험률은 0.4%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절도 경험률은 0.0%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남자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0.6% → 0.4% → 0.3% → 0.1% → 0.1%)하는 추이를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때(광역시: 0.6%)와 고등학교 2학년 때(서울: 0.6%)를 제외하고 시군부의 절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경험률 차이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절도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의 절도 경험률은 고등학교 2학년(0.6%)때만 나타나며, 나머지는 0.0%이다. 광역시의 절도 경험률은 고등학교 1학년때 까지 감소(0.6% → 0.6% → 0.1%)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0.2%로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률은 0.0%로 나타났다. 시군부의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0.8% → 0.5% → 0.5% → 0.3%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중졸이하가 1.1%로 다른 부모학력(고졸 0.5%, 대졸이상 0.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절도 경험률은 대졸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절도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때 1.1%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3학년부터는 절도 경험률이 0.0%로 나타났다. 고졸의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0.5% → 0.3% → 0.3% → 0.1% → 0.0%)하였으며, 대졸이상도 전반적으로 절도 경험률이 감소(0.7% → 0.7% → 0.4% → 0.3%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절도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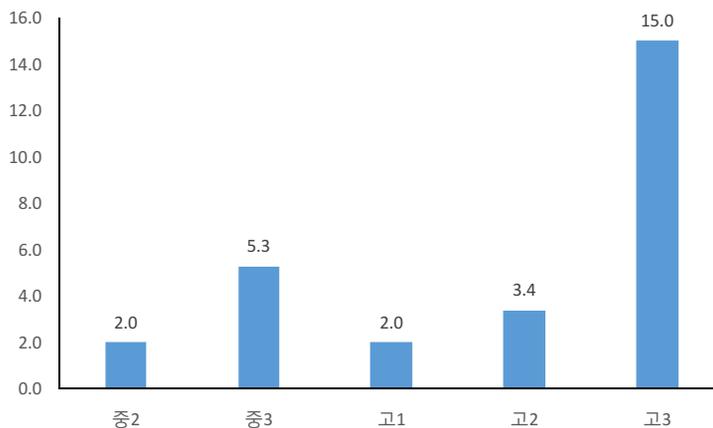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0.7	0.6	0.4	0.4	0.0
	여자	0.6	0.4	0.3	0.1	0.1
지역별	서울	0.0	0.0	0.0	0.6	0.0
	광역시	0.6	0.6	0.1	0.2	0.0
	시군부	0.8	0.5	0.5	0.3	0.1
부모학력	중졸이하	1.1	0.0	0.0	0.0	0.0
	고졸	0.5	0.3	0.3	0.1	0.0
	대졸이상	0.7	0.7	0.4	0.3	0.1
가구소득	상위층	1.1	0.3	0.8	0.3	0.0
	중간층	0.6	0.7	0.2	0.3	0.1
	하위층	0.3	0.2	0.3	0.3	0.0

가구소득별 절도 경험률은 상위층과 중간층의 경험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절도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의 절도 경험률 변화는 감소와 증가(1.1% → 0.3% → 0.8% → 0.3% → 0.0%)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 역시 상위층과 마찬가지로 절도 경험률이 증감(0.6%

→ 0.7% → 0.2% → 0.3% → 0.1%)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0.3%에서 중학교 3학년 때 0.2%로 감소한 이후 고등학교 1, 2학년 때 경험률은 0.3%로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절도 경험률은 0.0%로 나타났다(<표 III-28> 참조).

② 절도 경험 빈도

절도의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절도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절도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증가와 감소(2.0회 → 5.3회 → 2.0회 → 3.4회)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절도 경험 빈도는 15.0회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절도 경험 빈도는 한 케이스의 경험 빈도로 경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III-25】 절도 경험 빈도 변화

성별에 따른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의 절도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절도 경험 빈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중학교 3학년 때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이후 경험 빈도가 감소(1.63회 → 5.00회 → 2.75회 → 2.50회)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절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험 빈도 변화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때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년부터 절도 경험 빈도가 다시 증가(2.43회 → 6.00회 → 1.00회 → 7.00회 → 15.00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절도 경험 빈도는 광역시와 시군부에서 번갈아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고등학교 2학년 때만 절도 경험이 나타났으며, 빈도는 2.00회이다. 광역시의 절도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 때 1.50회에서 이후 증감(1.50회 → 6.29회 → 1.00회 → 5.00회 → 없음)이 반복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절도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부 지역의 변화 추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감소한 경험 외에는 전반적으로 경험 빈도가 증가(2.30회 → 5.33회 → 2.17회 → 3.33회 → 15.00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대졸이상의 부모학력에서 절도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절도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중학교 2학년 때 절도 경험 빈도가 나타난 이후 절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과 대졸이상의 절도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고졸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절도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1.40회 → 2.00회 → 2.67회 → 2.00회)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 절도 경험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절도 경험 빈도는 대체로 증가(2.63회 → 7.00회 → 1.50회 → 3.33회 → 15.00회)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가구소득별 절도 경험 빈도는 각 가구소득별로 변갈아 높게 나타났다. 상위층의 절도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감소와 증가(2.25회 → 1.00회 → 2.67회 → 2.00회)를 반복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절도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은 증가와 감소(2.11회 → 6.75회 → 1.33회 → 3.33회 → 15.00회)를 반복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절도 경험 빈도는 증가하였다. 하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1.00회 → 1.00회 → 2.00회 → 5.00회)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절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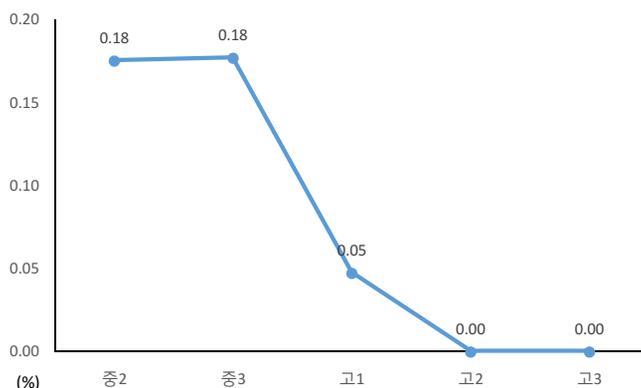
표 III-29 절도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1.63(1.18)	5.00(7.37)	2.75(1.50)	2.50(1.73)	- (-)
	여자	2.43(1.51)	6.00(7.81)	1.00(0.00)	7.00 (-)	15.00 (-)
지역별	서울	- (-)	- (-)	- (-)	2.00 (-)	- (-)
	광역시	1.50(1.00)	6.29(7.82)	1.00(0.00)	5.00 (-)	- (-)
	시군부	2.30(1.49)	5.33(7.03)	2.17(1.47)	3.33(3.21)	15.00 (-)
부모학력	중졸이하	1.00 (-)	- (-)	- (-)	- (-)	- (-)
	고졸	1.40(0.89)	2.00(1.00)	2.67(2.08)	2.00 (-)	- (-)
	대졸이상	2.63(1.50)	7.00(8.29)	1.50(0.57)	3.33(3.21)	15.00 (-)
가구소득	상위층	2.25(1.50)	1.00 (-)	2.67(2.08)	2.00 (-)	- (-)
	중간층	2.11(1.45)	6.57(7.61)	1.33(0.57)	3.33(3.21)	15.00 (-)
	하위층	1.00 (-)	1.00 (-)	2.00 (-)	5.00 (-)	- (-)

(8) 성폭력

① 성폭력 경험률

다른 사람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는 성폭력 경험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 미만이며, 중학생 때는 0.18%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0.05%이고 이후 고2, 고3때는 경험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6】 성폭력 경험률 변화

하위집단별 성폭력 경험률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는 여자가 0.3%로 남자보다 높았으나, 이후 여자의 성폭력 경험률은 감소하여 고등학교 시기의 경험률은 0.0%이다. 남자의 성폭력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때 0.2%로 0.1%p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0.1%로 감소한 이후 고등학교 2, 3학년의 성폭력 경험률은 0.0%로 나타났다.

지역별 성폭력 경험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중학교 3학년 때만 성폭력 경험률이 0.5%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중학교 2학년 때만 성폭력 경험률이 0.4%로 나타났다. 시군부는 중학교 2학년 때 경험률이 0.1%이고 이후 경험률이 0.1%p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 이후 감소(0.1% → 0.2% → 0.1% → 0.0% → 0.0%)하였다.

부모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에서는 성폭력 경험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 고졸과 대졸이상은 각각 0.2%로 나타났으며, 고졸은 중학교 3학년 때 성폭력 경험률이 0.1%로 0.1%p 감소하였다.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0.1%로 성폭력 경험률이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경험률이 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은 중학교 때 성폭력 경험률이 0.2%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부터는 성폭력 경험률이 0.0%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상위층에서의 경험률은 0.0%이고 하위층에서는 중학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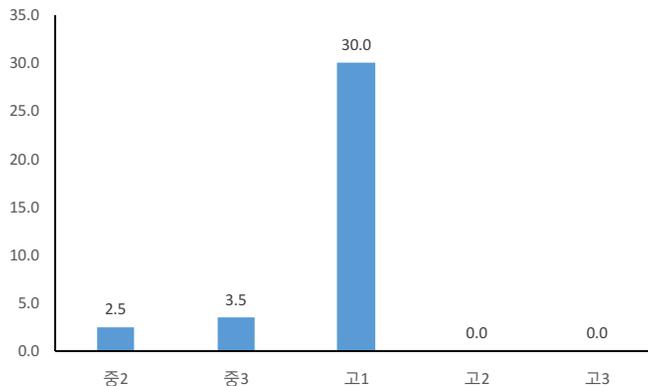
때만 경험률이 0.5%로 나타났다. 중간층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0.3%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때 성폭력 경험률이 0.1%로 나타난 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는 경험률이 0.0%로 나타났다.

표 III-30 성폭력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0.1	0.2	0.1	0.0	0.0
	여자	0.3	0.2	0.0	0.0	0.0
지역별	서울	0.0	0.5	0.0	0.0	0.0
	광역시	0.4	0.0	0.0	0.0	0.0
	시군부	0.1	0.2	0.1	0.0	0.0
부모학력	중졸이하	0.0	0.0	0.0	0.0	0.0
	고졸	0.2	0.1	0.1	0.0	0.0
	대졸이상	0.2	0.2	0.0	0.0	0.0
가구소득	상위층	0.0	0.0	0.0	0.0	0.0
	중간층	0.3	0.1	0.1	0.0	0.0
	하위층	0.0	0.5	0.0	0.0	0.0

② 성폭력 경험 빈도

성폭력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성폭력 경험률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성폭력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 때 2.5회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 때도 경험 빈도가 증가하여 3.5회로 나타났다. 성폭력 경험 빈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0회로 급증하였으나, 이는 특정 한 케이스의 성폭력 경험 빈도에 대한 결과로 이 시기에 성폭력 경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III-27】 성폭력 경험 빈도 변화

하위집단별 성폭력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중학교 3학년 때 여자의 경험 빈도는 1.00회로 감소하였고, 남자는 6.00회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시절에 여자의 성폭력 경험은 없었으나 남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30.00회로 증가한 이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중학교 3학년 때 1.00회 이후 경험 빈도가 없으며, 광역시는 중학교 2학년 때 1.67회 이후 성폭력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부 지역은 중학교 2학년 때 5.00회에서 3학년 때 4.00회로 경험 빈도가 줄어들었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 30.00회로 증가한 이후 경험 빈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성폭력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졸이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졸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3.00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 1.00회로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 30.00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험 빈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은 중학교 2학년 때 성폭력 경험 빈도가 2.00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 4.00회로 증가한 이후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폭력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상위층에서는 성폭력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층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만 경험 빈도가 4.00회로 나타났다. 중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3.50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 1.00회로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 30.00회로 증가한 이후 성폭력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성폭력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1.00 (-)	6.00(1.41)	30.00 (-)	- (-)	- (-)
	여자	3.00(2.00)	1.00(0.00)	- (-)	- (-)	- (-)
지역별	서울	- (-)	1.00 (-)	- (-)	- (-)	- (-)
	광역시	1.67(1.15)	- (-)	- (-)	- (-)	- (-)
	시군부	5.00 (-)	4.00 (4.24)	30.00 (-)	- (-)	- (-)
부모학력	중졸이하	- (-)	- (-)	- (-)	- (-)	- (-)
	고졸	3.00(2.82)	1.00 (-)	30.00 (-)	- (-)	- (-)
	대졸이상	2.00(1.41)	4.00(4.24)	- (-)	- (-)	- (-)
가구소득	상위층	- (-)	- (-)	- (-)	- (-)	- (-)
	중간층	3.50(3.00)	1.00 (-)	30.00 (-)	- (-)	- (-)
	하위층	- (-)	4.00(4.24)	- (-)	- (-)	- (-)

3. 요약

현실비행 유형별(현실비행, 지위비행, 범법행동), 비행항목별, 하위집단별(성별, 지역, 부모학력, 가구소득) 현실비행 유형 및 비행항목별 경험률 및 경험빈도를 조사하였다.

현실비행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위비행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행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범법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2학년 때는 지위비행 경험률이 11.3%, 범법행동 경험률이 10.7%로 두 비행 간 경험률이 0.6%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약 30%p(지위비행: 32.1%, 범법행동 1.9%) 차이가 났다.

현실비행 경험률은 대체로 여자보다 남자의 경험률이 높으며, 둘 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자의 현실비행 경험률은 20% 미만으로 5년간 약 7%p 증가하였으나, 남자의 현실비행 경험률은 20~40%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5년간 현실비행 경험률은 약 20%p 증가하였다. 지위비행과 범법행동 역시 여자보다 남자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실비행 경험률은 서울이 세 지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광역시(중3: 17.6%, 고1: 21.0%)와 시군부(중2: 19.4%, 고2: 27.5%, 고3: 34.0%)는 각 학년별로 경험률이 높은 지역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지위비행 역시 현실비행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의 경험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광역시: 13.6%)을 제외하고 시군부의 지위비행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법행동 경험률은 시군부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시와 시군부의 비행유형별 경험률 차이는 1~2%p 차이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현실비행 경험률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의 현실비행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대졸이상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비행 경험률 역시 부모학력 중졸이하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범법행동의 경우 고등학교 1, 2학년(중졸이하: 고1: 6.2%, 고2: 4.5%)을 제외하고는 대졸이상의 범법행동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현실비행 경험률을 살펴보면, 현실비행과 지위비행의 경험률이 하위층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위비행 경험률을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위층과 중간층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법행동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상위층이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중학교 3학년 때는 중간층,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하위층의 경험률이 가장 높으나, 가구소득별 범법행동 경험률 차이는 1~2%p 내외로 나타났다.

지위비행 중 가출을 제외한 모든 지위비행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 흡연, 성관계는 경험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무단결석은 고등학교 1학년(8.4회)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출은 중학교 2학년(5.9회)과 고등학교 3학년(5.5회) 때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모든 지위비행에서 여자보다 남자의 지위비행 경험률과 경험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출의 경우 남자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출 경험 빈도는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학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위비행 경험률은 대체로 시군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역시와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며, 실제 경험 빈도는 대체로 광역시가 더 높은 비행(흡연)도 있으며, 광역시와 시군부(음주, 가출)가 변갈에 높게 나타나는 비행도 있다. 성관계의 경우 광역시의 경험률이 높으나 경험 빈도는 대체로 시군부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로 살펴보면, 비행 경험률은 대체로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에서 높으며, 가출과 성관계의 경우 고졸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부모학력 고졸의 지위비행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지위비행 경험률은 대체로 하위층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나 경험 빈도는 중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결석 빈도는 중간층과 상위층에서 변갈아 높게 나타났으며, 가출은 중간층과 하위층에서 변갈아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관계는 중간층과 하위층이 변갈아 높게 나타나지만 경험 빈도는 대체로 중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모든 범법행동 항목들의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험 빈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경험 빈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으나, 경험 빈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범법행동(심한 놀림/조롱)도 있고 증가와 감소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범법행동(패싸움, 구타, 절도)도 있으며, 협박, 갈취 등은 특정 학년까지 경험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범법행동은 대체로 여자보다 남자의 경험률이 높았고, 경험 빈도 역시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경험 빈도도 많았다. 그러나 패싸움이나 절도의 경우 중학교 때는 남자보다 여자의 경험 빈도가 더 높았으며, 패싸움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자와 여자의 경험 빈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남자의 경험 빈도가 더 높았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남자만 패싸움 경험이 있으며, 이 경험 역시 특정 한 케이스의 경험률 및 빈도이다. 절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여자의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패싸움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절도 경험 빈도는 특정 한 케이스의 경험률 및 빈도

이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시군부의 범법행동 경험률이 높았으나 광역시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빈도 역시 광역시와 시군부의 경험 빈도가 번갈아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경험률과 경험 빈도는 비행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에서 번갈아 높은 경험률과 빈도가 나타난다. 가구소득도 역시 부모학력과 마찬가지로 상위층, 중간층, 하위층의 경험률이 범법행동별, 학년별로 번갈아 높게 나타나며, 빈도 역시 특정 가구소득 집단이 높게 나타나기 보다는 번갈아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위비행에 비해 상위층에서 비행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는 비행(따돌림, 심한 놀림/조롱, 협박, 갈취, 절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IV 장

사이버비행의 실태와 추이

1. 비행유형별 분석
2. 비행항목별 분석
3. 요약

제 IV 장 사이버비행의 실태와 추이*

1. 비행유형별 분석

제4장에서는 사이버비행의 실태와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비행의 유형을 크게 사이버사기와 사이버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사이버비행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으로, 사이버사기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이하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성별이나 나이 속임(이하 “신분 속임”),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서 사용하기(이하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채팅/게시판 등에 거짓정보 올리기(이하 “허위정보 유포”) 등을 사이버사기로 분류하였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혹은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채팅/게시판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이하 “욕설/폭언”)와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이하 “해킹”)로 분류하였다. 해킹의 경우 일반적인 사이버 비행 유형 분류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 분류 될 만큼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비행이지만 해킹이라는 행위가 타인의 컴퓨터나 웹사이트에 침투하여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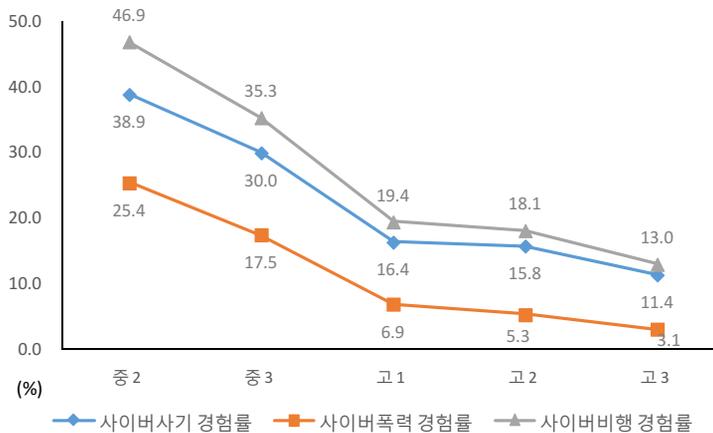
중학교 1학년 패널들의 사이버비행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에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의 사이버비행 및 사이버비행 유형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 이 장은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가 집필하였음.

1) 사이버비행의 추이

사이버비행과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을 한 적이 있는 경험률의 변화는 [그림 IV-1]과 같다. 사이버비행 경험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46.9%로 가장 높았으나 중학교 3학년 때는 약 10%p 떨어진 35.3%,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약 16%p 떨어진 19.4%의 경험률을 나타내었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 경험률은 19.4%, 18.1%, 13.0%로 중학교 시절 사이버비행 경험률 감소에 비해 감소의 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꾸준히 사이버비행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기와 사이버폭력의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이버사기의 경험률이 사이버폭력의 경험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기의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 사이버사기의 경험률이 30%대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시기의 경험률은 10%대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의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는 25.4%, 중학교 3학년 때는 17.5%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시기 경험률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사이버비행 경험률 변화

사이버비행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 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사이버비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53.1%에서 점차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87.0%로 나타났다. 사이버비행 유형 중 사이버폭력만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폭력) 모두 경험, 사이버사기만 경험 순으로 사이버비행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기만 경험 한 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0.3%p 증가한 후 다시 9.9%로 경험률이 감소(21.5% → 17.8% → 12.5% → 12.8% → 9.9%)하였다. 사이버사기와 사이버폭력을 모두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만 한 청소년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고등학교 시기에는 1%p 내외로 나타나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모두 경험한 청소년들보다 사이버폭력만 경험한 청소년이 0.1%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사이버비행 경험 유형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비행경험 없음	53.1	64.1	80.6	81.9	87.0
사이버사기만 경험	21.5	17.8	12.5	12.8	9.9
사이버폭력만 경험	8.0	5.4	3.1	2.3	1.6
모두 경험	17.4	12.1	3.8	3.0	1.5

2) 하위집단별 비교

① 성별

성별에 따른 사이버비행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사이버비행 경험률은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사이버비행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사이버비행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52.0% → 43.9% → 26.2% → 23.2% → 17.9%)하였으며, 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때 12.8%로 0.4%p 상승한 이후 다시 8.0%로 감소(41.7% → 26.6% → 12.4% → 12.8% → 8.0%)하였다.

중학교 시기의 사이버사기 경험률은 남자는 30%이상이며, 여자는 20%이상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사이버사기 경험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지속적으로 감소(43.4% → 35.5% → 21.2% → 19.7% → 15.0%)하였다. 여자의 사이버사기 경험률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이버사기 경험률이 0.5%p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34.3% → 24.4% → 11.3% → 11.7% → 7.7%)하는 추이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때 남자는 20%대로 나타났으나 여자는 중학교 2학년 때 20.8% 경험 한 후 약 12%p 감소하여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8.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때 남자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11.8%에서 8.2%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5.5%로 감소하였다. 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8%로 경험률이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0.5%p 경험률이 증가하여 2.3%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다시 0.7%로 감소하였다.

표 IV-2 사이버비행 경험률: 성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사이버비행	남자	52.0	43.9	26.2	23.2	17.9
	여자	41.7	26.6	12.4	12.8	8.0
사이버사기	남자	43.4	35.5	21.2	19.7	15.0
	여자	34.3	24.4	11.3	11.7	7.7
사이버폭력	남자	29.9	26.3	11.8	8.2	5.5
	여자	20.8	8.5	1.8	2.3	0.7

② 지역

지역별 사이버비행 경험률은 <표 IV-3>과 같다. 전체적인 사이버비행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에 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타 지역에 비해 시군부 지역의 경험률이 높았으나 점차 지역별 차이는 줄어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0.2%p 차이로 광역시가 시군부보다 사이버비행 경험률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서울지역이 14.5%로 사이버비행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 사이버비행 경험률이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1.8%p 증가한 후 다시 경험률이 감소(39.2% → 28.5% → 15.2% → 17.0% → 14.5%)하였다. 광역시와 시군부는 사이버비행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광역시: 46.8% → 33.9% → 18.9% → 18.7% → 11.1%, 시군부: 48.4% → 37.5% → 20.2% → 18.5% → 13.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기 경험률은 중학교 때는 시군부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광역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의 지역간 경험률 차이는 약 1~2%p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이버사기 경험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사이버비행의 경험률 변화추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이버사기 경험률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34.4% → 24.0% → 11.6% → 15.8% → 12.7%)하였다. 광역시와 시군부는 사이버비행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사기 경험률도 지속적으로 감소(광역시: 38.7% → 29.5% → 17.0% → 16.4% → 10.0%, 시군부: 40.0% → 31.4% → 16.5% → 15.9% → 11.9%)하였다.

사이버폭력의 경험률은 타 지역보다 시군부의 경험률이 매년 가장 높았으나 타 지역(특히 광역시)과 경험률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광역시와 시군부가 20%대이고, 서울은 17.7%로 나타났으며, 이후 경험률이 감소하여, 중학교 3학년 때는 모두 10%대의 경험률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감소하여 10%미만의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사이버폭력 경험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은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4%로 전년도 경험률(고2: 1.2%)보다 두 배 상승(17.7% → 12.5% → 6.1% → 1.2% → 2.4%) 하였다. 광역시와 시군부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다른 사이버비행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광역시: 25.9% → 16.5% → 6.4% → 4.9% → 2.8%, 시군부: 26.4% → 19.0% → 7.3% → 6.2% → 3.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사이버비행 경험률: 지역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사이버비행	서울	39.2	28.5	15.2	17.0	14.5
	광역시	46.8	33.9	18.9	18.7	11.1
	시군부	48.4	37.5	20.2	18.5	13.9
사이버사기	서울	34.4	24.0	11.6	15.8	12.7
	광역시	38.7	29.5	17.0	16.4	10.0
	시군부	40.0	31.4	16.5	15.9	11.9
사이버폭력	서울	17.7	12.5	6.1	1.2	2.4
	광역시	25.9	16.5	6.4	4.9	2.8
	시군부	26.4	19.0	7.3	6.2	3.6

③ 부모학력

부모학력별 사이버비행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이버비행 경험률은 중졸이하가 다른 부모학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비행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와 고졸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경험률이 꾸준히 감소하여, 40%대의 경험률에서 중졸이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이버비행 경험률이 10%대로 나타났으며, 고졸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험률이 10%대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경우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년도보다 0.5%p 경험률이 증가하였다가 이후 다시 경험률이 감소(48.1% → 35.4% → 18.0% → 18.5% → 12.0%)하였다.

사이버사기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부모학력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이 40.2%로 동일하게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나 이후 중졸이하의 약 6%p 감소하였고, 대졸이상은 약 10%p 감소하여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이버사기의 경험률도 대체로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의 경험률이 다른 부모학력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졸이하와 고졸의 사이버사기 경험률은 사이버비행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중졸이하: 40.2% → 36.0% → 25.8% → 20.2% → 15.9%, 고졸: 37.1% → 29.1% → 16.5% → 16.0% → 11.7%)를 보이고 있다. 중졸이하와 고졸은 둘 다 각각 약 25%p 정도 감소하였다. 대졸이상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40.2%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0.3%로 약 30%p 정도 경험률이 하락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률이 한차례 1%p 증가한 후 다시 약 5%p정도 감소(42% → 30.4% → 14.9% → 15.9% → 10.3%)하였다.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고졸에서 26.4%로 다른 부모학력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사이버폭력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중학교 2학년 때 25.3%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8.0%로 대략 17%p 감소(25.3% → 23.0% → 9.3% → 7.9% → 8.0%)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경험률이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0.1%p 증가하였다. 고졸은 중학교 2학년 때 26.4%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13%p 감소(26.4% → 19.2% → 6.9% → 5.9% → 3.0%)하였으며, 대졸이상은 중학교 2학년 때 23.4%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2.9%로 약 21%p 감소(23.4% → 15.6% → 6.4% → 4.8% → 2.9%)하였다.

표 IV-4 사이버비행 경험률: 부모학력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사이버비행	중졸이하	49.4	40.0	29.9	23.6	19.3
	고졸	44.4	35.0	19.5	18.1	13.2
	대졸이상	48.1	35.4	18.0	18.5	12.0
사이버사기	중졸이하	40.2	36.0	25.8	20.2	15.9
	고졸	37.1	29.1	16.5	16.0	11.7
	대졸이상	40.2	30.4	14.9	15.9	10.3
사이버폭력	중졸이하	25.3	23.0	9.3	7.9	8.0
	고졸	26.4	19.2	6.9	5.9	3.0
	대졸이상	23.4	15.6	6.4	4.8	2.9

④ 가구소득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가구소득이 상위층에서 사이버비행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1, 3학년 때는 하위층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상위층에서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때는 중간층과 하위층의 사이버비행 경험률 정도가 거의 유사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부서는 상위층과 하위층의 경험률 차이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사이버비행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51.0%로 절반정도가 사이버비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3.8%가 사이버비행 경험(51.0% → 36.7% → 20.7% → 21.4% → 13.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의 사이버비행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46.0%로 하위층과 경험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후 중간층의 사이버비행 경험률도 지속적으로 감소(46.0% → 35.0% → 17.3% → 16.9% → 12.5%)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률이 약 14%p 감소하였다. 하위층의 46.2%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이버비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경험률이 감소(46.2% → 35.8% → 25.8% → 20.7% → 13.9%)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13.9%가 사이버비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기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위층의 사이버사기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하위층의 사이버사기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사기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사이버사기 경험률이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차례 증가 한 이후 다시 감소(44.5% → 31.7% → 17.2% → 20.6% → 12.7%)하여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이버사기 경험률을 비교 해 보면 약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과 하위층의 사이버사기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중간층: 37.9% → 29.5% → 14.2% → 14.2% → 10.8%, 하위층: 36.5% → 30.0% → 22.6% → 17.6% → 11.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경험률을 살펴보면, 하위층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다른 가구소득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가구소득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상위층: 22.1% → 12.8% → 7.8% → 4.2% → 3.1%, 중간층 25.2% → 18.0% → 6.4% → 5.7% → 2.6%, 하위층: 29.2% → 20.8% → 8.6% → 6.2% → 5.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구소득 집단 모두 고등학교 때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이버폭력 경험률을 살펴보면, 상위층은 약 19%p, 중간층은 약 23%p, 하위층은 약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사이버비행 경험률: 가구소득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사이버비행	상위층	51.0	36.7	20.7	21.4	13.8
	중간층	46.0	35.0	17.3	16.9	12.5
	하위층	46.2	35.8	25.8	20.7	13.9
사이버사기	상위층	44.5	31.7	17.2	20.6	12.7
	중간층	37.9	29.5	14.2	14.2	10.8
	하위층	36.5	30.0	22.6	17.6	11.9
사이버폭력	상위층	22.1	12.8	7.8	4.2	3.1
	중간층	25.2	18.0	6.4	5.7	2.6
	하위층	29.2	20.8	8.6	6.2	5.8

사이버비행,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률 추이와 하위집단별 경험률 변화추이 등을 살펴보았다. 사이버비행 경험률 변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이버비행 행동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비행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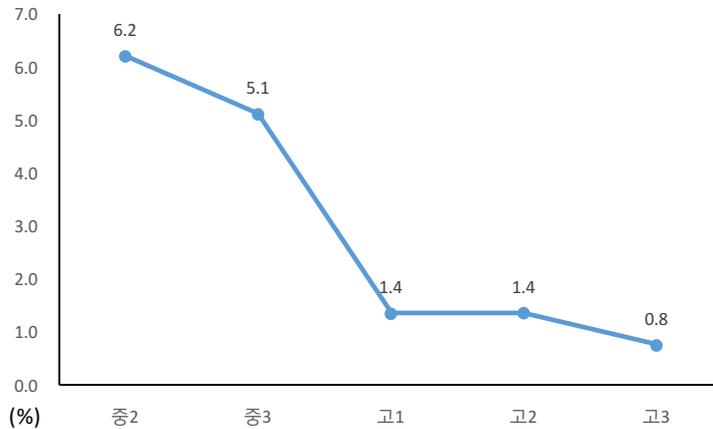
1) 사이버사기

사이버사기와 관련한 항목은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성별/나이 속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 채팅/게시판 등에 거짓정보 올린 경험 등으로 지난 1년간 경험 여부 및 1년간 경험 횟수를 바탕으로 항목별 경험률과 경험 빈도를 파악하였다.

(1)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①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률

사이버사기 중 지난 1년간 다른사람의 아이디와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중학교 2학년 때 6.2%, 3학년 때 5.1%를 경험 한 이후 고등학교 시기의 경험률은 크게 하락하여, 고등학교 1, 2학년 때 1.4%, 고등학교 3학년 때 0.8%로 나타났다.



【그림 IV-2】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 다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지속적으로 감소(8.5% → 7.9% → 2.2% → 2.1% → 1.2%)하였다. 여자의 도용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0.2%p 증가한 후 다시 감소(3.9% → 2.3% → 0.5% → 0.7% → 0.4%)하였다. 남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률이 5%p 감소하였고, 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률이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험률이 가장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 차이는 거의 1%p 내외로 사실상 지역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경험률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5.3% → 4.5% → 0.6% → 1.2% → 1.2%)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 까지 1.2%의 경험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는 지속적으로 경험률이 감소(6.7% → 5.0% → 1.8% → 1.5% → 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부의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띄고 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0.1%p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시 감소(5.9% → 5.3% → 1.3% → 1.4% → 0.5%)하였다. 서울지역은 전체적으로 약 4%p 감소하였으며, 광역시와 시군부는 약 5%p 감소하였다.

부모학력별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3학년 때를 제외하고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의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이 고졸과 대졸이상인 집단 간 차이는 1%p 미만으로 거의 유사한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부모학력별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의 중학교 때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3.4%에서 중학교 3학년 때 7.0%으로 약 2배정도 증가한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감소(3.4% → 7.0% → 3.1% → 2.2% → 0.0%)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경험률이 0.0%로 나타났다. 고졸도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1.8%로 전년도보다 0.4%p 한차례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5.6% → 5.0% → 1.4% → 1.8% → 0.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은 지속적으로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률이 감소(6.4% → 4.8% → 1.1% → 1.1% → 0.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은 전반적으로 경험률이 약 5%p 감소하였으며 대졸이상은 약 6%p 감소하였다.

가구소득별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률은 하위층의 경험률이 다른 가구소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점차 감소하여 고등학교 2학년부서는 집단 간 차이가 1%p 내외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아이디/주민번호 도용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는 경험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0.7%p 증가한 후 다시 1.5%p 감소(3.9% → 3.8% → 1.1% → 1.8% → 0.3%)하였다. 중간층의 변화 추이는 상위층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는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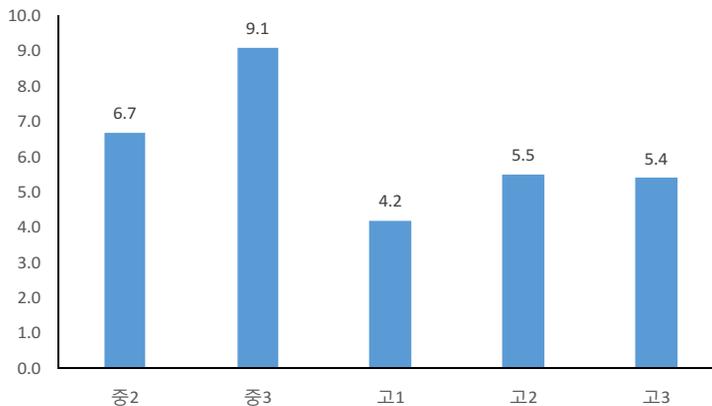
2학년 때 0.1%p 증가한 후 다시 0.6%p 감소(6.3% → 5.3% → 1.1% → 1.2% → 0.6%)하였다. 하위층의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7.2% → 5.4% → 3.5% → 1.8% → 1.7%)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IV-6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8.5	7.9	2.2	2.1	1.2
	여자	3.9	2.3	0.5	0.7	0.4
지역별	서울	5.3	4.5	0.6	1.2	1.2
	광역시	6.7	5.0	1.8	1.5	1.2
	시군부	5.9	5.3	1.3	1.4	0.5
부모학력	중졸이하	3.4	7.0	3.1	2.2	0.0
	고졸	5.6	5.0	1.4	1.8	0.9
	대졸이상	6.4	4.8	1.1	1.1	0.6
가구소득	상위층	3.9	3.8	1.1	1.8	0.3
	중간층	6.3	5.3	1.1	1.2	0.6
	하위층	7.2	5.4	3.5	1.8	1.7

②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빈도

지난 1년간 아이디/주민번호를 도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몇 회 아이디/주민번호를 도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경험 빈도는 중학교 3학년 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반해 경험 빈도는 증가와 감소(6.7회 → 9.1회 → 4.2회 → 5.5회 → 5.4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빈도 변화

성별에 따른 아이디/주민번호의 도용 경험 빈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의 도용 경험 빈도는 증가와 감소(8.16회 → 10.80회 → 4.42회 → 6.73회 → 6.25회)가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고등학교 2학년을 제외하고는 1년에 평균 약 3~4회 아이디/주민번호를 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빈도가 감소와 증가(3.68회 → 3.24회 → 3.40회 → 1.71회 → 3.00회)가 반복하여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시군부가 타지역보다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서울과 시군부는 매년 증가와 감소(서울: 3.55회 → 8.33회 → 1.00회 → 2.50회 → 2.00회, 시군부: 9.96회 → 12.19회 → 4.38회 → 7.71회 → 6.50회)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는 중학교 3학년 때 증가한 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가 증가(3.10회 → 4.42회 → 4.33회 → 2.40회 → 5.50회)하였다.

부모학력별 도용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시기에는 각각의 학력에서 한번씩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증가와 감소(3.00회 → 3.43회 → 2.67회 → 16.00회)를 반복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94회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4.80회 → 5.30회 → 5.38회 → 2.94회 → 5.50회)하여 전체적으로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도 중졸이하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빈도가 증감(9.10회 → 14.00회 → 3.82회 → 7.36회 → 6.67회)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빈도는 중학교 시기에는 중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각각의 가구소득별로 한번씩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중학교 시기에는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2.57회 → 8.40회 → 5.50회 → 2.29회 → 2.00회)하였다. 중간층의 경험 빈도는 증가와 감소(8.70회 → 10.65회 → 4.57회 → 8.29회 → 6.29회)가 반복하여 나타났다. 하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용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빈도가 증가(3.73회 → 6.91회 → 3.36회 → 3.86회 → 6.33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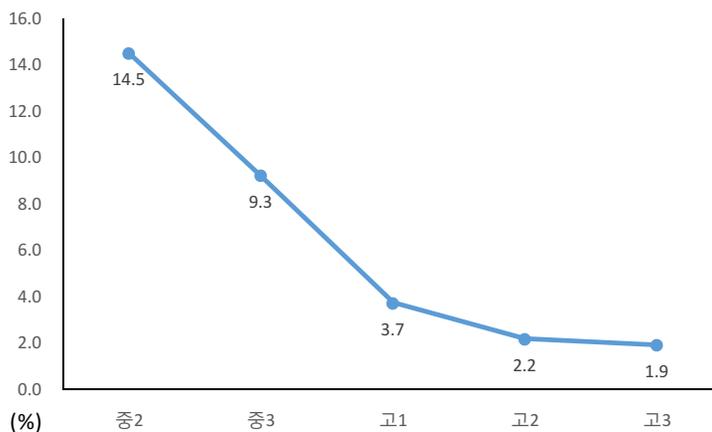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8.16(37.23)	10.80(40.04)	4.42(5.33)	6.73(13.79)	6.25(6.98)
	여자	3.68(2.63)	3.24(5.86)	3.40(3.78)	1.71(1.49)	3.00(2.30)
지역별	서울	3.55(2.87)	8.33(15.91)	1.00 (-)	2.50(0.70)	2.00(0.00)
	광역시	3.10(2.13)	4.42(6.64)	4.33(3.05)	2.40(1.57)	5.50(5.95)
	시군부	9.96(42.52)	12.19(46.24)	4.38(6.33)	7.71(15.65)	6.50(7.81)
부모학력	중졸이하	3.00(2.00)	3.43(1.61)	2.67(2.08)	16.00(19.79)	- (-)
	고졸	4.80(6.02)	5.30(8.52)	5.38(6.93)	2.94(2.38)	5.50(5.95)
	대졸이상	9.10(43.59)	14.00(51.29)	3.82(2.96)	7.36(18.16)	6.67(7.68)
가구소득	상위층	2.57(2.53)	8.40(17.74)	5.50(3.10)	2.29(0.95)	2.00 (-)
	중간층	8.70(38.58)	10.65(44.38)	4.57(6.65)	8.29(17.20)	6.29(7.06)
	하위층	3.73(3.86)	6.91(11.50)	3.36(3.07)	3.86(3.33)	6.33(6.49)

(2) 성별/나이 속임

① 성별/나이 속임 경험률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별이나 나이를 속임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경험률은 큰 폭으로 감소(14.5% → 9.3% → 3.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의 경험률 변화는 중학교 시절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으나 꾸준히 감소(3.7% → 2.2% → 1.9%)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IV-4] 성별/나이 속임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성별/나이 속임 경험률을 살펴 본 결과 중학교 2학년 때는 남자보다 여자의 경험률이 높았으나 이후 여자보다 남자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지속적으로 경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13.8% → 11.4% → 5.5% → 2.9% → 2.8%)하여 중학교 2학년 때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약 11%p 감소하였다. 여자의 경험률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15.2% → 7.1% → 1.9% → 1.5% → 1.1%)하여 중학교 2학년때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률을 비교해 보면, 약 14%p 감소하였다.

지역별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는 시군부가 15.1%로 가장 높았으나 광역시, 서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는 광역시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광역시와 시군부가 2.0%로 서울보다 0.2%p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1.8%로 경험률이 1.2%p 증가(12.9% → 6.0% → 2.4% → 0.6% → 1.8%)하였다. 광역시와 시군부는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광역시: 14.0% → 10.5% → 4.3% → 2.6% → 2.0%, 시군부: 15.1% → 9.2% → 3.5% → 2.4% → 2.0%)하였다.

부모학력별 경험률은 중학교 때는 고졸의 경험률이 다른 부모학력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학력 간 경험률의 차이는 1~3%p 내외로 특히 고졸이상과 대졸이상의 경험률의 차이는 1%p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성별/나이 속임 경험률 변화는 지속적으로 감소(중졸이하: 11.5% → 8.0% → 6.2% → 4.5% → 2.3%, 고졸: 14.6% → 9.9% → 3.6% → 2.2% → 2.1%, 대졸이상: 14.3% → 9.0% → 3.5% → 2.2% → 1.9%)하고 있다. 중졸이하는 중학교 2학년(11.5%)에서 고등학교 3학년(2.3%)까지 경험률이 9%p 감소하였으며, 고졸과 대졸이상은 약 12%p 감소하였다.

가구소득별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상위층의 성별/나이 속임 경험률이 높으며, 중간층과 하위층은 각각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다. 가구소득별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 중간층, 하위층 모두 꾸준히 경험률이 감소(상위층: 16.0% → 8.8% → 4.0% → 3.4% → 2.5%, 중간층: 14.1% → 9.8% → 3.0% → 1.9% → 1.8%, 하위층: 13.6% → 8.9% → 5.4% → 2.6% → 2.3%)하고 있으며, 상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16.0%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2.5%로 약 14%p 감소하였다. 중간층은 전체적으로 경험률이 약 12%p 감소하였으며, 하위층은 약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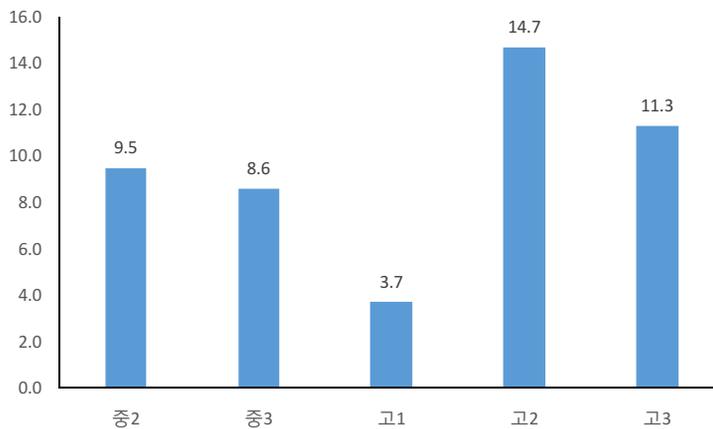
성별/나이 속임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13.8	11.4	5.5	2.9	2.8
	여자	15.2	7.1	1.9	1.5	1.1
지역별	서울	12.9	6.0	2.4	0.6	1.8
	광역시	14.0	10.5	4.3	2.6	2.0
	시군부	15.1	9.2	3.5	2.4	2.0
부모학력	중졸이하	11.5	8.0	6.2	4.5	2.3
	고졸	14.6	9.9	3.6	2.2	2.1
	대졸이상	14.3	9.0	3.5	2.2	1.9
가구소득	상위층	16.0	8.8	4.0	3.4	2.5
	중간층	14.1	9.8	3.0	1.9	1.8
	하위층	13.6	8.9	5.4	2.6	2.3

② 성별/나이 속임 경험 빈도

지난 1년간 성별/나이 속임 적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몇 회 속였는지 속임 경험 빈도를 확인한 결과 중학교 2학년 때 9.5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 8.6회, 고등학교 1학년 때 3.7회로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 빈도가 14.7회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1.3회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림 IV-5】 성별/나이 속임 경험 빈도 변화

성별에 따른 성별/나이 속임 경험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여자의 경험 빈도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중학교 3학년 때 남자의 경험 빈도는 증가하고 여자는 감소하여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남자의 경험 빈도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빈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증감(8.07회 → 10.88회 → 4.19회 → 20.61회 → 14.50회)을 반복하고 있으며, 여자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경험 빈도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10.88회 → 4.96회 → 2.50회 → 2.53회 → 3.45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서울의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시군부와 유사하였고, 이후 서울의 경험 빈도가 감소하여 중학교 3학년부터는 광역시와 시군부가 번갈아가며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은 전반적으로 감소(10.88회 → 2.67회 → 2.00회 → 5.00회 → 4.33회)하는 추이를 보인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차례 빈도가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였다. 광역시의 경험 빈도는 증가와 감소(7.91회 → 9.21회 → 3.52회 → 27.18회 → 3.15회)를 반복하였다. 시군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부턴 경험빈도가 증가(10.33회 → 9.06회 → 4.26회 → 7.50회 → 17.64회)하였다.

부모학력별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의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시기에는 부모학력이 고졸인 집단의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성별/나이숙임 경험 빈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감소와 증가(5.50회 → 3.38회 → 3.67회 → 3.25회 → 8.50회)가 반복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부모학력이 고졸인 집단도 중졸이하와 마찬가지로 감소와 증가(9.26회 → 3.85회 → 4.33회 → 24.00회 → 21.06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경험률이 급증(4.33회 → 24.00회)하면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은 증가와 감소(10.16회 → 13.51회 → 3.49회 → 8.36회 → 3.61회)가 반복하여 나타난다.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와 고졸인 집단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 빈도가 급증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졸이상은 경험빈도가 급격히 감소(13.51회 → 3.49회)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표 IV-9

성별/나이 속임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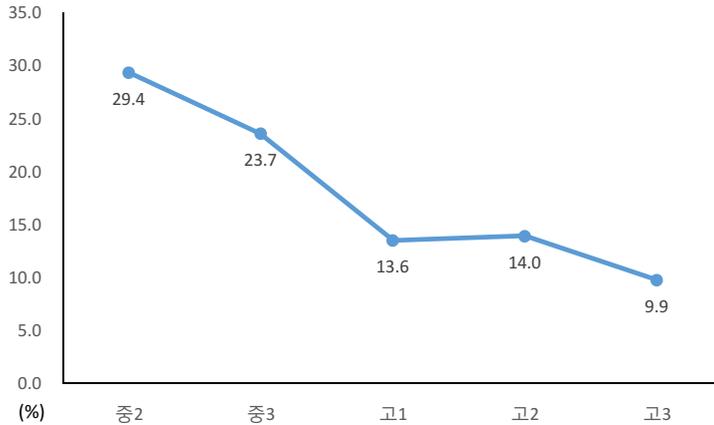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8.07(15.27)	10.88(45.63)	4.19(5.14)	20.61(65.87)	14.50(56.02)
	여자	10.88(29.02)	4.96(11.84)	2.50(1.98)	2.53(2.58)	3.45(3.38)
지역별	서울	10.88(26.83)	2.67(2.49)	2.00(0.81)	5.00 (-)	4.33(4.93)
	광역시	7.91(16.99)	9.21(41.95)	3.52(2.86)	27.18(87.41)	3.15(2.47)
	시군부	10.33(26.40)	9.06(35.58)	4.26(5.72)	7.50(16.27)	17.64(63.13)
부모학력	중졸이하	5.50(4.85)	3.38(2.97)	3.67(3.20)	3.25(1.25)	8.50(2.12)
	고졸	9.26(27.13)	3.85(3.53)	4.33(5.52)	24.00(81.11)	21.06(71.94)
	대졸이상	10.16(21.84)	13.51(52.39)	3.49(4.16)	8.36(16.09)	3.61(2.76)
가구소득	상위층	7.77(18.58)	4.91(8.75)	3.93(3.43)	6.38(6.76)	3.00(1.85)
	중간층	10.44(27.71)	10.77(46.23)	3.40(3.43)	24.87(76.33)	3.71(3.33)
	하위층	7.00(8.86)	5.71(6.08)	4.35(6.95)	2.20(1.31)	5.00(2.82)

가구소득별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표 IV-9> 참조), 중학교 때는 중간층의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이후에는 하위층과 중간층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경험 빈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상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증가한 후 다시 감소(7.77회 → 4.91회 → 3.93회 → 6.38회 → 3.00회)하였다. 중간층의 경험 빈도는 증감(10.44회 → 10.77회 → 3.40회 → 24.87회 → 3.71회)이 반복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위층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7.00회 → 5.71회 → 4.35회 → 2.20회)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5.00회로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다.

(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 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 한 결과 중학교 때는 20%대의 사용 경험률(29.4%, 23.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때는 10%대 경험률(13.6%, 14.0%, 9.9%)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경험률(29.4% → 23.7% → 13.6% → 14.0% → 9.9%)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 변화

하위집단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을 살펴보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남자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33.5%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33.5% → 28.5% → 17.4% → 17.4% → 13.1%)하였다. 여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25.3%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차례 증가한 후 다시 감소(25.3% → 18.8% → 9.7% → 10.4% → 6.6%)하였다.

지역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시군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이 높았으나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서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사용 경험률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경험률이 감소(서울: 28.7% → 19.0% → 9.8%, 광역시: 29.0% → 22.2% → 13.7%, 시군부: 30.1% → 25.5% → 14.0%)하였으나 서울과 광역시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차례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서울: 9.8% → 15.2% → 11.4%, 광역시: 13.7% → 14.1% → 9.8%)하였다. 시군부의 고등학교 시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 변화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14.0%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10.5%로 감소하였다.

부모학력별 불법 소프트웨어 경험률은 대체로 중졸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의 학력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고졸과 대졸이상의 경험률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부모학력별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경험률이 다른 부모학력 집단보다 높으나 지속적으로 감소(32.2% → 29.0% → 20.6% → 16.9% → 13.6%)하여

32.2%에서 13.6%로 약 19%p 감소하였다. 고졸과 대졸이상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지속적으로 경험률이 감소(고졸: 27.2% → 21.6% → 13.6%, 대졸이상: 31.5% → 25.3% → 12.6%)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각각 14.1%, 14.2%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시 9.8%(고졸)와 9.3%(대졸이상)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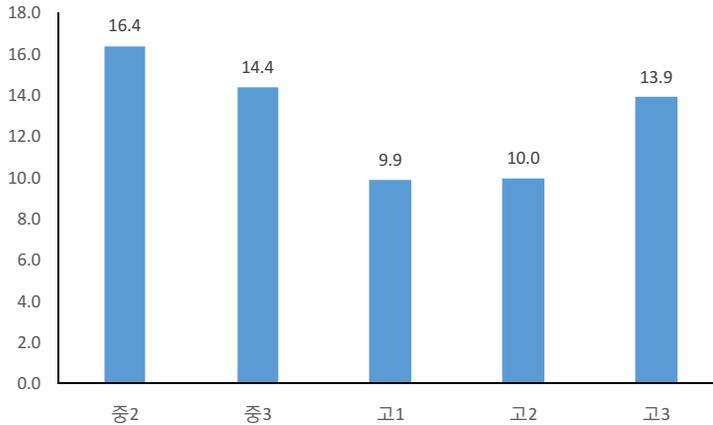
표 IV-10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33.5	28.5	17.4	17.4	13.1
	여자	25.3	18.8	9.7	10.4	6.6
지역별	서울	28.7	19.0	9.8	15.2	11.4
	광역시	29.0	22.2	13.7	14.2	8.1
	시군부	30.1	25.5	14.0	14.0	10.5
부모학력	중졸이하	32.2	29.0	20.6	16.9	13.6
	고졸	27.2	21.6	13.6	14.1	9.8
	대졸이상	31.5	25.3	12.6	14.2	9.3
가구소득	상위층	35.9	26.6	14.5	17.7	11.5
	중간층	28.4	23.1	12.1	12.9	9.3
	하위층	25.9	23.2	17.8	15.0	9.9

가구소득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표 IV-10> 참조)은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타 가구소득 집단보다 상위층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위층과 중간층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한차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상위층: 35.9% → 26.6% → 14.5% → 17.7% → 11.5%, 중간층: 28.4% → 23.1% → 12.1% → 12.9% → 9.3%)하여 중학교 2학년 때 보다 상위층에서는 약 24%p, 중간층에서는 약 19%p 감소하였다. 하위층의 경우 중학교 2학년 이후 꾸준히 감소(25.9% → 23.2% → 17.8% → 15.0% → 9.9%)하여 중학교 2학년 때 보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률은 16%p 감소하였다.

②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빈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감소(16.4회 → 14.4회 → 9.9회)한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9.9회 → 10.0회 → 13.9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빈도 변화

성별에 따른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한 빈도가 여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남자보다 여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빈도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남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용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부서는 사용 경험 빈도가 증가(17.54회 → 15.43회 → 10.90회 → 11.69회 → 13.56회)하였다. 여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사용 경험 빈도가 감소(15.03회 → 12.91회 → 8.08회 → 7.09회)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14.66회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역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군부의 사용 경험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나 고등학교 1, 3학년 때에는 광역시의 사용 경험 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경험 빈도가 증가(11.83회 → 10.41회 → 5.25회 → 6.96회 → 9.39회)하는 변화양상을 보인다. 광역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 사용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가 증가(16.46회 → 13.49회 → 10.81회 → 9.38회 → 15.29회)하였다. 시군부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17.39회 → 15.55회 → 10.02회 → 10.99회 → 14.32회)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부모학력별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고졸학력의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중졸이하에서 경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에서는 경험 빈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는 감소하고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13.68회 → 11.55회 → 22.05회 → 14.13회 → 9.67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가 증가(17.00회 → 15.10회 → 10.16회 → 9.3회 → 14.58회)하였다. 대졸이상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16.51회 → 14.46회 → 8.38회 → 10.15회 → 14.70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경험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중간층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사용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 경험 빈도가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증가(15.71회 → 14.62회 → 8.63회 → 7.63회 → 12.00회)하였다. 중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16.68회 → 13.16회 → 10.20회 → 11.33회 → 15.02회)하였다. 하위층은 중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가 증가한 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15.47회 → 19.27회 → 11.64회 → 10.04회 → 14.53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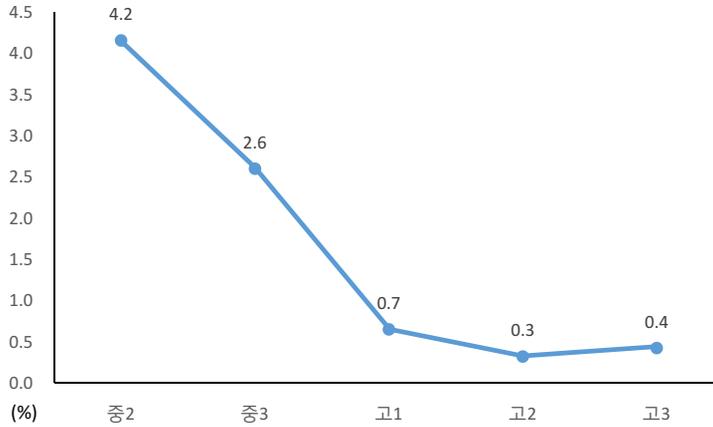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17.54(37.85)	15.43(30.75)	10.90(33.34)	11.69(21.23)	13.56(34.18)
	여자	15.03(25.98)	12.91(34.04)	8.08(13.34)	7.09(12.86)	14.66(35.95)
지역별	서울	11.83(19.02)	10.41(17.65)	5.25(4.62)	6.96(10.51)	9.39(10.45)
	광역시	16.46(33.13)	13.49(27.69)	10.81(17.88)	9.38(14.80)	15.29(31.42)
	시군부	17.39(35.75)	15.55(35.59)	10.02(33.89)	10.99(21.85)	14.32(39.19)
부모학력	중졸이하	13.68(19.87)	11.55(14.63)	22.05(54.09)	14.13(24.48)	9.67(13.24)
	고졸	17.00(36.35)	15.10(33.43)	10.16(33.42)	9.73(15.22)	14.58(38.31)
	대졸이상	16.51(32.90)	14.46(33.28)	8.38(15.03)	10.15(21.44)	14.70(35.64)
가구소득	상위층	15.72(31.15)	14.62(21.83)	8.63(15.27)	7.63(10.23)	12.00(17.06)
	중간층	16.68(35.95)	13.16(33.59)	10.20(30.90)	11.33(23.00)	15.02(40.87)
	하위층	15.47(26.94)	19.27(38.84)	11.64(32.72)	10.04(15.67)	14.53(34.27)

(4) 허위정보 유포

① 허위정보 유포 경험률

허위정보 유포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시절에는

경험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고등학교 시기에 경험률은 1%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IV-8】 허위정보 유포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허위정보 유포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경험률이 더 높다.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는 지속적으로 경험률이 감소(5.8% → 4.1% → 1.0% → 0.6% → 0.6%)하였다. 여자의 경험률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률이 증가(25% → 11% → 0.3% → 0.1% → 0.3%)하였다. 허위정보 유포를 올린 경험률은 남자와 여자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경험률이 1%이하로 나타난다.

지역별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지역 간 경험률 차이는 1%p 미만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서울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3.8%에서 3학년 때 3.0%로 감소하고 고등학교 입학 후 0.6%로 감소한 이후 고등학교 2, 3학년 때 경험률은 0.0%로 나타난다. 시군부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4.4% → 2.6% → 0.7% → 0.4% → 0.4%)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 때 거짓정보를 올린 경험률은 1%미만으로 나타난다. 광역시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경험률이 감소(3.8% → 2.5% → 0.6% → 0.3%)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0.6%로 0.3%p 증가하였다.

부모학력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학력별 경험률의 차이는 중학교 3학년 때 약 2%p 차이가 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1%p 이하로 나타났다. 학력별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중학교 2학년 때 3.4%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1.0%의 경험률을 보인 후 고등학교 2, 3학년 때의 경험률은 0.0%로 나타났다. 고졸과 대졸이상 역시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는 경험률이 감소(고졸: 3.9% → 3.1% → 0.8% → 0.4%, 대졸이상: 4.4% → 2.4% → 0.6% → 0.3%)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졸은 0.2%p, 대졸이상은 0.1%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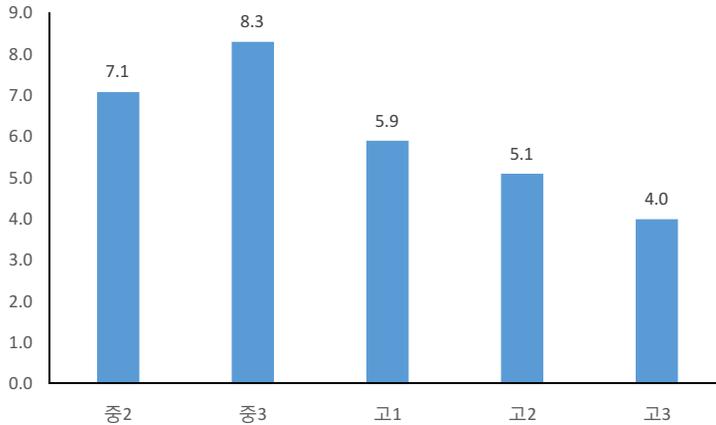
가구소득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는, 중간층의 경험률이 다른 가구소득 집단보다 허위정보 유포 경험률이 높다. 그러나 그 차이는 1~2%p 내외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거짓정보 올린 경험률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소득별 경험률은 감소(상위층: 3.1% → 2.0% → 0.3% → 0.3% → 0.6%, 중간층: 4.6% → 3.1% → 0.8% → 0.4% → 0.3%, 하위층: 3.1% → 1.9% → 0.6% → 0.3% → 0.9%)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상위층과 하위층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각각 0.3%p, 0.6%p 증가하였다.

표 IV-12 허위정보 유포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5.8	4.1	1.0	0.6	0.6
	여자	2.5	1.1	0.3	0.1	0.3
지역별	서울	3.8	3.0	0.6	0.0	0.0
	광역시	3.8	2.5	0.6	0.3	0.6
	시군부	4.4	2.6	0.7	0.4	0.4
부모학력	중졸이하	3.4	1.0	1.0	0.0	0.0
	고졸	3.9	3.1	0.8	0.4	0.6
	대졸이상	4.4	2.4	0.6	0.3	0.4
가구소득	상위층	3.1	2.0	0.3	0.3	0.6
	중간층	4.6	3.1	0.8	0.4	0.3
	하위층	3.1	1.9	0.6	0.3	0.9

② 허위정보 유포 경험 빈도

허위정보를 유포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1년간 몇 회 허위정보를 유포했는지 빈도를 살펴본 결과, 중학교 2학년 때는 7.1회, 중학교 3학년은 8.3회, 고등학교 1학년 5.9회, 2학년 5.1회, 3학년 4.0회로 나타났다. 허위정보 유포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경험 빈도는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허위정보 유포 경험 빈도 변화

성별에 따른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때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남자의 경험 빈도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빈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지속적으로 감소(8.75회 → 7.75회 → 7.00회 → 5.83회 → 4.67회)하고 있으나, 여자는 중학교 때 3.36회에서 10.58회로 크게 증가한 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2.00회, 1.00회로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2.67회로 다시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다.

지역별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광역시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시군부의 경험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은 중학교 2학년 때 경험 빈도가 5.88회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감소(5.88회 → 4.67회 → 3.00회)하였다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허위정보 유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험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때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차례 증가한 후 다시 감소(11.22회 → 8.18회 → 8.25회 → 3.50회 → 1.50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군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 빈도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험 빈도가 증가(5.48회 → 9.52회 → 5.22회 → 5.80회 → 6.00회)하였다.

부모학력별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의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년별로 중졸이하, 대졸이상, 고졸인 부모학력 집단에서 각각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경험빈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학력이 중졸이하에서는 경험 빈도가 5.00회에서 2.00회로 감소하였다가 10.00회로 다시 증가한 이후에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허위정보 유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이 고졸에서는 중학교 때 4.69회에서 5.33회로 경험 빈도가 증가한 후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는 감소(5.33회 → 5.14회 → 3.00회)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가 5.40회로 다시 증가하였다. 대졸이상은 증감(9.33회 → 12.15회 → 6.17회 → 8.00회 → 2.25회)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가구소득별 허위정보 유포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는 중간층의 경험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상위층, 2학년은 중간층, 3학년은 하위층이 다른 가구소득 집단보다 경험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4.00회 → 5.25회 → 20.00회 → 2.00회 → 1.50회)하였다. 중간층은 증감(8.48회 → 9.74회 → 5.00회 → 5.80회 → 2.50회)을 반복하였고, 하위층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3.60회 → 6.25회 → 4.00회 → 5.00회 → 7.67회)를 나타내었다.

표 IV-13 허위정보 유포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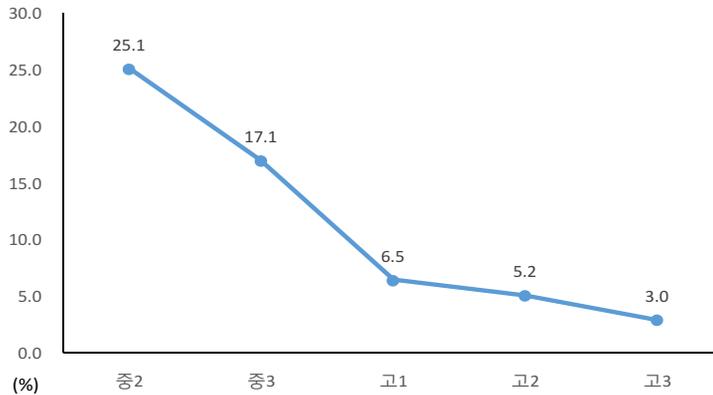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8.75(25.24)	7.75(16.03)	7.00(7.16)	5.83(7.13)	4.67(7.52)
	여자	3.36(3.16)	10.58(28.18)	2.00(1.73)	1.00 (-)	2.67(1.52)
지역별	서울	5.88(4.39)	4.67(4.17)	3.00 (-)	- (-)	- (-)
	광역시	11.22(37.85)	8.18(23.69)	8.25(8.80)	3.50(2.12)	1.50(1.00)
	시군부	5.48(8.15)	9.52(18.80)	5.22(6.24)	5.80(8.10)	6.00(7.87)
부모학력	중졸이하	5.00(4.35)	2.00 (-)	10.00 (-)	- (-)	- (-)
	고졸	4.69(5.21)	5.33(7.59)	5.14(6.66)	3.00(2.30)	5.40(8.20)
	대졸이상	9.33(29.18)	12.15(26.56)	6.17(7.62)	8.00(10.39)	2.25(1.25)
가구소득	상위층	4.00(5.45)	5.25(10.03)	20.00 (-)	2.00 (-)	1.50(0.70)
	중간층	8.48(25.21)	9.74(22.21)	5.00(6.01)	5.80(8.10)	2.50(1.29)
	하위층	3.60(3.43)	6.25(9.67)	4.00(1.41)	5.00 (-)	7.67(10.69)

2) 사이버폭력

(1) 욕설/폭언

① 욕설/폭언 사용 경험률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 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 한 결과 중학교 2학년 때 25.1%로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 감소(25.1% → 17.1% → 6.5% → 5.2% → 3.0%)하여 고등학교 때 채팅/게시판에서 욕설/폭언 사용경험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욕설/폭언 사용 경험률 변화

성별에 따른 욕설/폭언 사용경험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자의 욕설/폭언 사용 경험률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욕설/폭언 사용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경험률은 중학교 때 20% 이상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29.5% → 25.5% → 11.2% → 8.0% → 5.4%)하여 고등학교 2, 3학년 때 경험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중학교 2학년 때 20.7%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나 중학교 3학년 때 경험률이 약 12%p 감소하였다. 여자의 욕설/폭언 사용경험률은 중학교 3학년부터는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0.6%p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20.7% → 8.4% → 1.6% → 2.2% → 0.6%)하였다.

지역별 욕설/폭언 사용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광역시와 시군부가 25.9%로

가장 높은 욕설/폭언 사용 경험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부터는 광역시보다는 시군부 지역의 욕설/폭언 사용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험률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서울, 광역시, 시군부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약 15%p 감소(17.7% → 11.5% → 5.5% → 1.2% → 2.4%)하였다. 광역시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률을 살펴보면, 약 23%p 감소(25.9% → 16.1% → 6.2% → 4.7% → 2.7%)하였다. 시군부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률 차이를 보면 약 22%p 감소(25.9% → 18.7% → 6.8% → 6.1% → 3.5%)하였다.

부모학력별 욕설/폭언 사용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고졸인 집단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부터는 중졸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욕설/폭언 사용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욕설/폭언 사용경험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중졸이하의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0.1%p 증가(25.3% → 21.0% → 8.2% → 7.9% → 8.0%)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경험률을 비교 해 보면, 약 17%p 감소하였다. 고졸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까지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26.2% → 18.7% → 6.6% → 5.7% → 2.9%)하였으며, 경험률 감소의 정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26.2%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2.9%로 약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경험률도 고졸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감소(23.1% → 15.3% → 6.0% → 4.7% → 2.8%)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과 비교 해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약 20%p 감소하였다.

가구소득별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하위층의 경험률이 다른 가구소득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경험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중간층, 하위층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상위층: 21.8% → 12.3% → 7.3% → 4.2% → 3.1%, 중간층: 24.8% → 17.6% → 6.1% → 5.5% → 2.5%, 하위층: 29.2% → 20.1% → 8.3% → 6.0% → 5.5%)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상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21.8%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3.1%로 약 18%p 감소하였으며, 중간층은 약 22%p, 하위층은 약 24%p 경험률이 감소하였다.

표 IV-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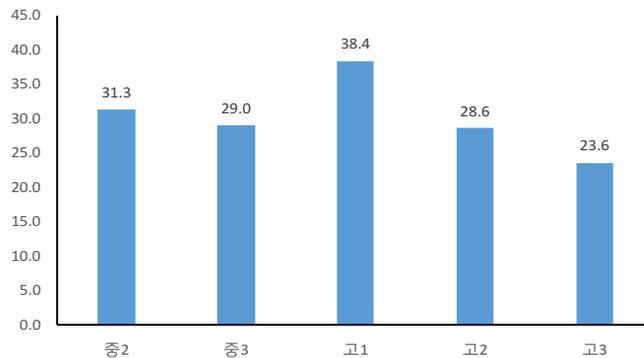
욕설/폭언 사용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29.5	25.5	11.2	8.0	5.4
	여자	20.7	8.4	1.6	2.2	0.6
지역별	서울	17.7	11.5	5.5	1.2	2.4
	광역시	25.9	16.1	6.2	4.7	2.7
	시군부	25.9	18.7	6.8	6.1	3.5
부모학력	중졸이하	25.3	21.0	8.2	7.9	8.0
	고졸	26.2	18.7	6.6	5.7	2.9
	대졸이상	23.1	15.3	6.0	4.7	2.8
가구소득	상위층	21.8	12.3	7.3	4.2	3.1
	중간층	24.8	17.6	6.1	5.5	2.5
	하위층	29.2	20.1	8.3	6.0	5.5

② 욕설/폭언 사용경험 빈도

지난 1년간 욕설/폭언 사용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그림 IV-11]과 같다.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경험 빈도는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매년 경험 빈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 38.4회로 경험 빈도가 전년도 보다 한 차례 증가(31.3회 → 29.0회 → 38.4회 → 28.6회 → 23.6회)하였다.



【그림 IV-11】 욕설/폭언 사용경험 빈도 변화

성별에 따른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전반적으로 욕설/폭언을 사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남자는 39.83회 여자는 19.26회로 약 2배정도 차이가 나며, 이후 여자의 경험 빈도는 지속적으로 감소(19.26회 → 15.16회 → 12.71회 →

12.36회 → 9.17회)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년에 욕설/폭언 사용경험 횟수가 10회 미만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때 33.64로 전년도보다 욕설/폭언 사용빈도가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 42.25회로 증가하여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 까지 욕설/폭언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9.83회 → 33.64회 → 42.25회 → 33.16회 → 25.26회). 남자들의 욕설/폭언 사용경험 빈도는 20회 ~ 40회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학년은 시군부의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감소와 증가(18.19회 → 17.84회 → 67.89회 → 1.50회 → 12.75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에 감소(26.06회 → 29.73회 → 36.74회 → 29.28회 → 18.73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시군부의 전반적인 경험 빈도는 30회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 때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7.12회로 증가한 이후 감소(36.86회 → 30.35회 → 37.12회 → 30.09회 → 26.18회)하였다.

부모학력별 경험 빈도는 중학교 2학년 때는 고졸,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중졸이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졸이상의 경험 빈도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경험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고등학교 3학년때까지는 감소(15.81회 → 34.37회 → 77.88회 → 37.50회 → 7.50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까지 감소 후 증가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33.72회 → 27.67회 → 37.86회 → 29.73회 → 17.22회)하였다. 대졸이상의 경험 빈도는 감소와 증가(31.00회 → 28.80회 → 34.00회 → 25.59회 → 33.73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욕설/폭언 사용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중간층,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하위층,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은 상위층의 욕설/폭언 사용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고등학교 1학년 까지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한차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24.40회 → 29.72회 → 49.37회 → 37.29회 → 44.00회)하였다. 중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차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35.82회 → 26.95회 → 37.30회 → 22.21회 → 20.20회)를 보이고 있으며, 하위층은 증가와 감소(22.52회 → 37.47회 → 34.44회 → 44.04회 → 15.81회)를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5

욕설/폭언 사용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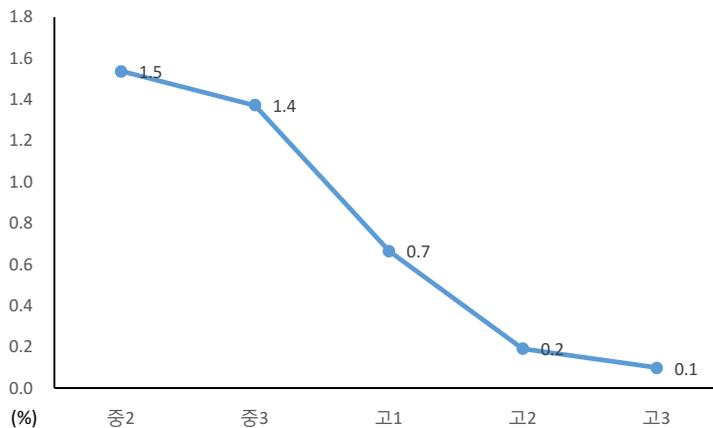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39.83(71.26)	33.64(57.74)	42.25(83.75)	33.16(54.44)	25.26(46.84)
	여자	19.26(42.45)	15.16(35.71)	12.71(23.74)	12.36(22.14)	9.17(8.54)
지역별	서울	18.19(27.83)	17.84(29.78)	67.89(95.89)	1.50(0.70)	12.75(12.25)
	광역시	26.06(56.97)	29.73(58.99)	36.74(77.26)	29.28(55.22)	18.73(26.26)
	시군부	36.86(68.11)	30.35(53.24)	37.12(79.98)	30.09(48.12)	26.18(52.40)
부모학력	중졸이하	15.81(22.72)	34.37(68.75)	77.88(134.07)	37.50(79.65)	7.50(7.36)
	고졸	33.72(64.95)	27.67(46.77)	37.86(74.22)	29.73(42.83)	17.22(22.92)
	대졸이상	31.00(62.05)	28.80(56.24)	34.00(78.34)	25.59(51.69)	33.73(62.61)
가구소득	상위층	24.40(46.29)	29.72(61.51)	49.37(99.84)	37.29(53.98)	44.00(86.75)
	중간층	35.82(69.07)	26.95(50.74)	37.30(75.20)	22.21(42.29)	20.20(29.81)
	하위층	22.52(42.08)	37.47(60.31)	34.44(74.03)	44.04(63.07)	15.81(23.73)

(2) 해킹

① 해킹 경험률

타인의 컴퓨터나 웹사이트를 해킹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 한 결과 [그림 IV-12]와 같다. 해킹의 경험률은 2%미만으로 중학교 2, 3학년 때 각각 1.5%, 1.4%의 경험률이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률이 0.7%로 떨어져, 고등학교 시기의 경험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해킹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1.5% → 1.4% → 0.7% → 0.2% → 0.1%)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률은 0.1%로 나타났다.



【그림 IV-12】 해킹 경험률 변화

하위집단별 해킹 경험률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의 해킹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27%의 경험률 이후 꾸준히 감소(27% → 2.5% → 1.1% → 0.3% → 0.1%)하였다. 여자 역시 경험률이 감소(0.4% → 0.3% → 0.2% → 0.1% → 0.1%)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여자의 해킹 경험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해킹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중학교 2학년 때는 약 2%p 차이(남자: 2.7% , 여자: 0.4%)가 났으나 이후 해킹 경험률 차이가 감소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남자와 여자 모두 0.1%로 나타났다.

지역별 해킹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서울과 광역시의 경험률이 1.4%p 차이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험률의 차이가 1%p 미만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은 중학교 2학년 때 24% 경험률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감소(24% → 1.5% → 0.6% → 0.0%)하여 고등학교 2학년부서는 경험률이 0.0%로 나타났다. 광역시는 중학교 시기에는 1.0%의 경험률을 나타냈으나 이후 감소(1.0% → 1.0% → 0.3% → 0.2% → 0.2%)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경험률은 0.2%로 나타났다. 시군부의 경험률은 고등학교 때부터 감소(1.6% → 1.6% → 0.8% → 0.3% → 0.1%)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경험률은 0.1%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경험률도 중학교 3학년 때를 제외하고 경험률 차이가 1%p 미만으로 나타나 학력 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해킹 경험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1.1%(중2)에서 3.0%(중3)로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0%로 감소한 이후 경험률은 0.0%로 나타났다. 고졸과 대졸이상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이(고졸: 1.7% → 1.4% → 0.5% → 0.2% → 0.1%, 대졸이상: 1.4% → 1.3% → 0.7% → 0.2% → 0.1%)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해킹 경험률도 중학교 2학년 때 1.2%p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구소득별 해킹 경험률 차이는 0.5%p미만으로 가구소득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경험률 변화 추이를 보면, 우선 상위층은 경험률이 0.6%에서 1.8%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0.6% → 1.8% → 0.5% → 0.0% → 0.0%)하여 고등학교 2, 3학년 때 경험률이 0.0%로 나타났다. 중간층은 중학교 2학년 때 1.8% 경험률 이후 꾸준히 감소(1.8% → 1.3% → 0.7% → 0.3% → 0.1%)하였다. 하위층은 상위층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때 한 차례 경험률이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 진학 이후 해킹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1.4% → 1.6% → 0.6% → 0.3%)하였다.

표 IV-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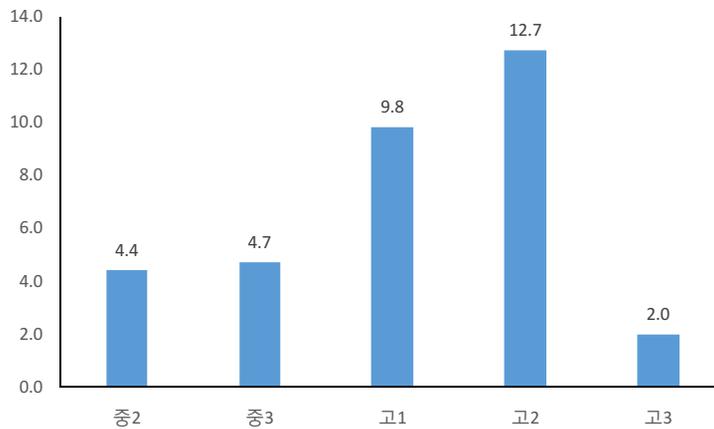
해킹 경험률: 하위집단별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남자	2.7	2.5	1.1	0.3	0.1
	여자	0.4	0.3	0.2	0.1	0.1
지역별	서울	2.4	1.5	0.6	0.0	0.0
	광역시	1.0	1.0	0.3	0.2	0.2
	시군부	1.6	1.6	0.8	0.3	0.1
부모학력	중졸이하	1.1	3.0	1.0	0.0	0.0
	고졸	1.7	1.4	0.5	0.2	0.1
	대졸이상	1.4	1.3	0.7	0.2	0.1
가구소득	상위층	0.6	1.8	0.5	0.0	0.0
	중간층	1.8	1.3	0.7	0.3	0.1
	하위층	1.4	1.6	0.6	0.3	0.3

② 해킹 경험 빈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웹사이트를 해킹한 빈도는 해킹 경험률과 다르게 나타났다.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으나 경험빈도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해킹 경험 빈도 변화

성별에 따른 해킹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남자의 해킹 경험 빈도가 여자보다 더 많으며, 남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해킹 경험 빈도가 꾸준히 증가(4.58회 → 5.07회 → 11.08회 → 16.33회)하고 여자는 감소와 증가(3.25회 → 2.00회 → 2.50회 → 2.00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해킹 경험 빈도의 차이는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해킹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을 제외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시군부의 해킹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광역시와 시군부의 해킹 경험 빈도가 2.00회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해킹 경험 빈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은 3.20회에서 1.67회로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5.00회로 증가한 이후 해킹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3.00회로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00회로 다시 감소(8.14회 → 1.86회 → 1.00회 → 3.00회 → 2.00회)하였다. 시군부의 해킹 경험 빈도는 고등학교 2학년 까지 꾸준히 증가(3.67회 → 6.25회 → 12.80회 → 16.00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 3학년 경험 빈도가 2.00회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부모학력별 해킹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고졸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대졸이상의 해킹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고졸과 대졸이상의 경험 빈도가 2.00회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해킹 경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1.00회에서 3.00회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1.00회로 감소한 후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의 경험 빈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은 중학교 3학년 때 6.77회로 증가한 이후 고등학교 때는 경험 빈도가 지속적으로 감소(5.06회 → 6.77회 → 3.80회 → 3.00회 → 2.00회)하였다. 대졸이상은 4.47회에서 3.29회로 감소한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증가(4.47회 → 3.29회 → 16.43회 → 22.50회)하는 추세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2.00회로 감소하였다.

가구소득별 해킹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중간층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하위층의 해킹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해킹 경험 빈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3.00회에서 2.29회로 해킹 경험 빈도가 감소하였다가 3.00회로 증가한 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경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는 경험 빈도가 감소(5.00회 → 4.69회 → 3.00회)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16.00회로 한차례 크게 증가한 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2.00회의 경험 빈도를 나타내었다. 하위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경험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경험 빈도가 감소(2.80회 → 7.43회 → 51.00회 → 3.00회 → 2.00회)하였다.

표 IV-17

해킹 경험 빈도: 하위집단별

(단위 : 회)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4.58(5.34)	5.07(7.12)	11.08(28.11)	16.33(23.09)	2.00 (-)
	여자	3.25(3.30)	2.00(1.00)	2.50(2.12)	2.00 (-)	2.00 (-)
지역별	서울	3.20(2.86)	1.67(1.15)	5.00 (-)	- (-)	- (-)
	광역시	8.14(8.23)	1.86(1.46)	1.00(0.00)	3.00 (-)	2.00 (-)
	시군부	3.67(4.06)	6.25(7.94)	12.80(30.75)	16.00(23.38)	2.00 (-)
부모학력	중졸이하	1.00 (-)	3.00(3.46)	1.00 (-)	- (-)	- (-)
	고졸	5.06(6.06)	6.77(9.84)	3.80(3.56)	3.00(0.00)	2.00 (-)
	대졸이상	4.47(4.67)	3.29(2.30)	16.43(36.88)	22.50(20.50)	2.00 (-)
가구소득	상위층	3.00(2.82)	2.29(1.25)	3.00(2.82)	- (-)	- (-)
	중간층	5.00(5.61)	4.69(6.43)	3.00(2.87)	16.00(23.38)	2.00 (-)
	하위층	2.80(4.05)	7.43(10.19)	51.00(69.29)	3.00 (-)	2.00 (-)

3. 요약

사이버비행,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경험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시기의 경험률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기와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중학교 시기에는 약 13%p 차이가 나타나고, 고등학교 1, 2 학년 때 경험률 차이는 약 10%p,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약 8%p로 사이버사기와 사이버폭력 경험률 차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기만 경험한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21.5%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9.9%로 5년 동안 약 11%p 감소하였으며, 사이버폭력만 경험한 경우는 5년 간 약 6%p 감소하였다. 사이버사기와 사이버폭력 모두를 경험 한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17.4%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5%로 5년간 약 16%p 감소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까지는 사이버폭력만 경험한 비율보다 모두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사이버폭력만 경험한 집단과 모두 경험한 집단 간 차이가 줄어들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사이버폭력만 경험한 집단이 모두 경험한 집단보다 0.1%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비행과 관련하여 여자보다 남자의 사이버비행,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모두 높았으며, 성별 경험률 차이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이버비행 경험률을 살펴보면, 대체로 시군부의 사이버비행,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높으나 광역시와 거의 유사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이버비행과 고등학교 1, 2학년 때 사이버사기 경험률은 시군부보다 광역시나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로도 대체로 중졸이하의 사이버비행,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높으나 중학교 때 부모학력간 사이버비행 경험률 차이는 5%p 내외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사이버비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사이버비행과 사이버사기는 상위층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사이버폭력은 하위층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사기 비행항목별 하위집단 간 경험률 및 빈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경험률이나 경험빈도가 높으나 중학교 2학년 때 성별/나이 속임 경험률이나 빈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빈도도 여자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정보 유포 경험 빈도 역시 중학교 3학년 때는 남자보다 여자의 경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험률과 경험빈도는 대체로

광역시와 시군부의 경험률이나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학력은 비행항목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사이버사기 경험률은 중졸이하와 고졸이 높으며, 경험 빈도는 대졸이상과 고졸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상위층의 사이버사기 경험률이 높으며, 경험 빈도는 중간층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비행항목은 총 두 항목으로 하위집단 간 경험률 및 빈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성별은 남자의 경험률과 경험 빈도가 모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시군부의 욕설/폭언 사용 경험률, 해킹 경험률 및 경험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욕설/폭언 사용 경험률은 광역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은 욕설/폭언 사용 경험률 및 경험 빈도는 중졸이하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해킹은 경험률은 부모학력별로 번갈아 높게 나타나며, 경험빈도는 대체로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욕설/폭언 사용 경험률은 하위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 빈도는 상위층이 높게 나타났다. 해킹의 경우 대체로 중간층의 경험률이 높았으나 타 집단과 차이가 크지 않았고, 경험 빈도는 중간층과 하위층에서 번갈아 높게 나타났다.

제 V 장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관계

1. 비행 경험률과 비행 특성 비교
2.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인과관계 분석
3. 요약

제 V 장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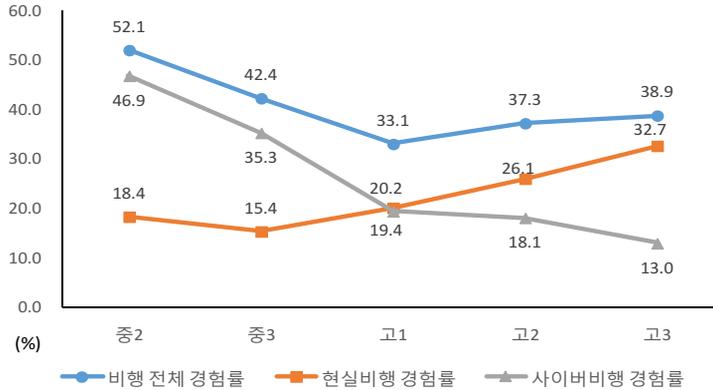
1. 비행 경험률과 비행 특성 비교

1) 비행 경험률 비교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경험률의 학령별 추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V-1]과 같다. 현실비행의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18.4%에서 다음 해 15.4%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32.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비행의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46.9%, 3학년 때 35.3%로서 높은 수준이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19.4%)부터 감소 추세를 나타내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13.0%에 머물렀다. 학령이 높아감에 따라 현실비행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사이버비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고등학교 진학이 이러한 변화의 기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을 포괄하는 전체 비행의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시기가 52.1%로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 감소한 뒤 고 2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 장은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그림 V-1】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학령별 추이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경험유형별 추이는 <표 V-1>과 같다. 현실비행만 경험한 사례는 중학교 2학년이 5.1%, 3학년이 6.9%로서 소수였다가 고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10%를 상회한 뒤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25.9%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반면 사이버비행만 경험한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33.7%에 달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6.1%에 머물렀다.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을 모두 경험한 사례는 중학교 2학년 때 13.2%였다가 고등학생 시기 3년 동안에는 그 절반 수준인 6%대를 유지하였다.

표 V-1 비행의 경험유형 (단위 : %)

	중2	중3	고1	고2	고3
현실/사이버비행 모두 미경험	48.0	57.8	66.9	62.7	61.1
현실비행만 경험	5.1	6.9	13.7	19.2	25.9
사이버비행만 경험	33.7	26.8	13.0	11.2	6.1
현실/사이버비행 모두 경험	13.2	8.5	6.4	6.9	6.9

비행의 세부 항목별 경험률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표 V-2>와 같다. 학령이 올라갈수록 경험률이 증가한 경우와 그 반대로 점진적으로 감소한 경우의 두가지 대조적인 변화 패턴이 발견된다.

현실비행의 경우 지위비행은 가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즉,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기간 동안 음주 경험률은 4.7%에서 27.3%로 다섯 배 이상, 흡연 경험률(6.2% → 11.2%)과 무단결석 경험률(3.2% → 6.3%)도 약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경험률은 해당 사례가 소수여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증가 추세(0.1 → 1.8%)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범법행동과 사이버비행의 항목들은 경험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사이버비행 경험률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표 V-2 비행의 항목별 경험률 (단위 : %)

	학령별 경험률					전기간 경험률
	중2	중3	고1	고2	고3	
현실비행	18.4	15.4	20.1	26.1	32.7	52.4
지위비행	11.3	12.1	17.8	25.3	32.1	47.6
흡연	6.2	6.5	9.0	11.0	11.2	18.8
음주	4.7	7.1	12.9	21.2	27.3	39.9
무단결석	3.2	3.6	3.5	3.9	6.3	12.9
가출	2.6	2.4	1.8	2.3	0.9	7.2
성관계	0.1	0.2	0.5	1.4	1.8	3.0
범법행동	10.7	5.3	4.6	3.0	1.9	18.1
집단따돌림	3.1	0.7	0.7	0.05	0.05	4.3
심한 놀림/조롱	6.2	3.9	3.7	2.1	1.5	12.7
패싸움	0.7	0.4	0.3	0.2	0.0	1.3
구타	3.1	0.6	0.7	0.6	0.5	4.6
협박	1.0	0.4	0.1	0.2	0.2	1.6
갈취	1.5	0.7	0.2	0.1	0.1	2.2
절도	0.7	0.5	0.3	0.2	0.05	1.6
성폭력	0.2	0.2	0.05	0.0	0.0	0.5
사이버비행	46.9	35.3	19.4	18.1	13.0	64.6
사기형	38.9	30.0	16.4	15.8	11.4	57.2
허위정보 유포	4.2	2.6	0.7	0.3	0.4	7.3
아이디 도용	6.2	5.1	1.4	1.4	0.8	11.0
신분 속임	14.5	9.3	3.7	2.2	1.9	22.4
불법SW	29.4	23.7	13.6	14.0	9.9	47.9
폭력형	25.4	17.5	6.9	5.3	3.1	38.2
욕설/폭언	25.1	17.1	6.5	5.2	3.0	37.7
해킹	1.5	1.4	0.7	0.2	0.1	3.1

2) 비행 경험 특성 비교

(1) 비행 시작시기와 경험년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기간 중 처음 비행을 경험한 시기¹⁷⁾는 다음 <표 V-3>과 같다. 현실비행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경험한 사례가 44.2%, 3학년 때가 18.3%로서 전체의 약 60%가 중학생 시기에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비행의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경험한 사례가 76.2%로서 3학년 때(16.5%)를 포함하면 90% 이상이 중학생 때 처음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시기에 사이버비행의 경험이 현실비행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행의 하위유형별로는 현실비행은 불법행동의 시작 시기가 지위비행보다 빠르지만, 사이버비행의 하위유형 간에는 시작 시기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행의 항목별 시작 시기의 평균값¹⁸⁾을 비교해보면, 집단따돌림(1.39)이 가장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고, 이어서 욕설/폭언*(1.40, 이하 사이버비행 항목은 *부호 병기), 갈취(1.44), 신분 속임*(1.46), 허위정보 유포*(1.49), 구타와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각각 1.51), 아이디 도용*(1.57), 협박(1.64), 성폭력과 해킹*(각각 1.67), 심한 놀림/조롱(1.79), 패싸움(1.81), 절도(1.91)가 중학교 2학년 때, 흡연(2.26), 가출(2.27), 무단결석(2.37)이 중학교 3학년 때, 음주(3.03)와 성관계(3.58)가 가장 늦은 시기인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이버비행 항목의 시작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지만, 집단따돌림과 갈취는 다른 현실비행 항목과 비교하여 예외적으로 이른 시기에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7)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CYPs 중1 패널 조사는 중학교 2학년 때 시작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비행 “시작 시기”는 조사 기간(중2 ~ 고3) 중 처음 비행을 경험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애 첫 비행 경험 시기와는 구분된다.
- 18) 각 비행항목별 처음 경험 시기를 리코드(중2= 1 ~ 고3= 5)한 뒤 산출한 평균값으로서, 수치가 낮을수록 일찍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V-3

비행항목별 시작시기

(단위 : %)

	비행항목별 시작시기					평균값	
	중2	중3	고1	고2	고3	M	SD
현실비행	44.2	18.3	19.6	8.2	9.7	2.21	1.34
지위비행	32.1	19.6	23.8	11.1	13.4	2.54	1.39
흡연	38.1	22.2	23.2	8.1	8.4	2.26	1.28
음주	17.1	18.3	28.5	16.3	19.7	3.03	1.35
무단결석	32.4	24.8	21.6	15.3	5.9	2.37	1.24
가출	38.3	21.4	17.5	20.8	1.9	2.27	1.23
성관계	5.3	10.5	21.1	47.4	15.8	3.58	1.06
범법행동	62.6	18.7	12.8	5.1	0.8	1.63	.94
집단따돌림	74.7	11.6	13.7	0.0	0.0	1.39	.72
심한 놀림/조롱	53.4	22.2	17.3	6.4	0.8	1.79	.99
패싸움	53.1	21.9	15.6	9.4	0.0	1.81	1.03
구타	71.4	12.2	10.2	6.1	0.0	1.51	.91
협박	63.9	19.4	8.3	5.6	2.8	1.64	1.05
갈취	67.3	25.0	3.8	3.8	0.0	1.44	.75
절도	46.9	25.0	18.8	9.4	0.0	1.91	1.03
성폭력	44.4	44.4	11.1	0.0	0.0	1.67	.71
사이버비행	76.2	16.5	4.6	2.4	0.2	1.34	.70
사이버 사기	71.9	19.7	5.3	2.8	0.3	1.40	.75
허위정보 유포	60.9	31.4	5.8	1.9	0.0	1.49	.70
아이디 도용	58.7	30.6	5.4	5.4	0.0	1.57	.82
신분속임	66.9	23.8	6.3	2.6	0.4	1.46	.76
불법SW 다운로드	66.2	22.3	6.4	4.6	0.4	1.51	.84
사이버 폭력	69.7	22.4	6.0	1.7	0.2	1.40	.70
욕설/폭언	70.0	22.3	5.7	1.7	0.2	1.40	.70
해킹	50.0	34.3	14.3	1.4	0.0	1.67	.77

(2) 비행 경험년수

청소년들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기간 중에 몇 년에 걸쳐 비행을 경험했는지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V-4>와 같다.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모두 1년인 경우가 약 40% 정도이고, 5년 간 지속적으로 경험한 비율도 5% 안팎으로서 비행의 지속 기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비행의 하위유형별로는 현실비행에서는 지위비행이 범법행동보다, 사이버비행

에서는 사이버 사기가 사이버 폭력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비행항목별 경험년수 (단위 : %)

	비행항목별 경험년수					평균값	
	1년	2년	3년	4년	5년	M	SD
현실비행	40.8	26.7	17.1	9.6	5.9	2.13	1.21
지위비행	43.4	26.9	16.4	8.4	4.8	2.04	1.17
흡연	37.7	26.2	18.2	10.2	7.7	2.24	1.27
음주	49.2	29.3	13.7	5.9	2.0	1.82	1.00
무단결석	72.2	16.9	8.9	2.0	-	1.41	.74
가출	73.2	21.7	4.3	0.7	-	1.33	.59
성관계	77.2	17.5	5.3	-	-	1.28	.56
범법행동	71.1	19.8	6.9	2.0	0.3	1.41	.73
집단따돌림	94.0	6.0	-	-	-	1.06	.24
심한 놀림/조롱	71.0	20.0	7.8	0.8	0.4	1.40	.70
패싸움	84.6	15.4	-	-	-	1.15	.37
구타	85.2	12.5	2.3	-	-	1.17	.43
협박	90.3	9.7	-	-	-	1.10	.30
갈취	93.0	7.0	-	-	-	1.07	.26
절도	90.0	3.3	3.3	3.3	-	1.20	.66
성폭력	100.0	-	-	-	-	1.00	.00
사이버비행	39.9	28.9	16.7	9.6	4.9	2.11	1.18
사이버 사기	42.6	29.8	15.7	7.6	4.4	2.01	1.13
허위정보 유포	87.9	9.3	2.9	-	-	1.15	.43
아이디 도용	73.1	19.8	5.2	0.5	1.4	1.37	.73
신분 속임	70.8	21.8	4.9	2.1	0.5	1.40	.72
불법SW 다운로드	46.6	27.2	15.0	6.9	4.3	1.95	1.13
사이버 폭력	61.4	26.0	8.4	3.8	0.4	1.56	.83
욕설/폭언	62.6	25.0	8.6	3.4	0.4	1.54	.82
해킹	83.3	8.3	8.3	-	-	1.25	.60

비행의 항목별 경험년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흡연이 2.24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서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1.95; 이하 * 표시항목은 사이버비행), 음주(1.82), 욕설/폭언*(1.54)이 2년 미만이었으며, 무단결석(1.41), 심한 놀림/조롱과 신분 속임*(각각 1.40), 아이디 도용*(1.37),

가출(1.33), 성관계(1.28), 해킹*(1.25), 절도(1.20), 구타(1.17), 패싸움과 허위정보 유포*(각각 1.15), 협박(1.10), 갈취(1.07), 집단따돌림(1.06), 성폭력(1.00)은 1년 남짓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현실비행 항목에서는 흡연과 음주가, 사이버비행 항목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와 욕설/폭언이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는 중독성 있는 비행임을 알 수 있다.

(3) 비행의 동반관계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행을 경험하게 된다.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경험하는 비행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 비행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비행 유형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성장단계에 따라서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는 중학교 2학년(<표 V-5>), 고등학교 2학년(<표 V-6>)의 두 시기에 나타난 비행의 동반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분석의 편의상 특정 비행의 경험자 중 30% 이상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다른 형태의 비행을 경험했을 경우 두 비행은 동반비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먼저 중학생 시기에 나타나는 비행유형과 항목 간의 관계(<표 V-5>)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비행의 대부분은 사이버비행을 동반하고 있다. 성폭력을 제외한 현실비행의 모든 항목별 경험자 중 상당수가 온라인 욕설/폭언,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이버비행을 한 청소년 중 소수만이 현실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현실비행과 비교하여 사이버비행의 항목 간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동반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버비행 항목들은 대부분 둘 이상이 다른 유형의 사이버비행을 동반하고 있다.

셋째, 현실비행의 흡연과 음주, 심한 놀림/조롱과 사이버비행의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욕설/폭언은 많은 대다수 비행 항목들의 동반비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시기의 비행 간 동반관계를 보면, 중학교 시기와는 구분되는 뚜렷한 변화양상이 발견된다.

첫째, 현실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 중 소수만이 동시에 사이버비행을 하는 한편, 현실

비행의 항목간 상호 동반관계는 중학교 시기보다 강화되었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의 비행이 사이버비행보다는 현실비행으로 집중화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비행 항목 간의 강한 동반 관계가 약화되는 한편, 현실비행의 항목 간 동반 관계는 지위비행으로, 특히 흡연과 음주로 집중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흡연과 음주는 대부분의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항목의 동반비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흡연과 음주는 고등학생의 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비행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 , 30% 이상은 음영처리)

	현실비행																			사이버비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현실 비행	1. 흡연	-	39.7	14.9	20.6	1.4	11.3	17.7	5.7	14.2	5.7	12.8	5.0	0.7	8.5	17.0	27.7	44.7	48.9	3.5				
	2. 음주	52.3	-	22.4	18.7	0.9	13.1	17.8	6.5	14.0	7.5	15.0	6.5	1.9	10.4	17.9	34.9	44.3	56.6	2.8				
	3. 무단결석	29.2	33.3	-	29.2	1.4	13.9	20.8	9.7	16.7	6.9	12.5	5.6	0.0	8.3	16.7	22.2	33.3	40.3	1.4				
	4. 기출	49.2	33.9	35.6	-	1.7	15.3	25.4	3.4	11.9	5.1	15.3	5.1	1.7	5.1	18.6	25.4	35.6	35.6	5.1				
	5. 성관계	100.0	50.0	50.0	50.0	-	50.0	50.0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50.0	50.0	0.0				
	6. 집단따돌림	22.5	19.7	14.1	12.7	1.4	-	50.7	8.5	19.7	18.3	14.1	7.0	1.4	9.9	16.9	31.0	56.3	53.5	4.2				
	7. 심한 놀림/조롱	17.6	13.4	10.6	10.6	0.7	25.4	-	4.9	18.3	9.9	14.8	3.5	2.1	11.3	12.7	26.8	50.7	60.6	4.2				
	8. 패싸움	47.1	41.2	41.2	11.8	0.0	35.3	41.2	-	47.1	23.5	23.5	11.8	0.0	17.6	17.6	11.8	35.3	58.8	11.8				
	9. 구타	28.6	21.4	17.1	10.0	0.0	20.0	37.1	11.4	-	18.6	17.1	4.3	0.0	8.6	10.0	25.7	47.1	55.7	5.7				
	10. 협박	34.8	34.8	21.7	13.0	0.0	56.5	60.9	17.4	56.5	-	30.4	21.7	0.0	21.7	21.7	47.8	52.2	56.5	13.0				
	11. 갈취	51.4	45.7	25.7	25.7	2.9	28.6	60.0	11.4	34.3	20.0	-	11.4	8.6	22.9	14.3	37.1	60.0	57.1	2.9				
	12. 절도	46.7	46.7	26.7	20.0	0.0	33.3	33.3	13.3	20.0	33.3	26.7	-	0.0	26.7	40.0	33.3	80.0	73.3	0.0				
	13. 성폭력	25.0	50.0	0.0	25.0	25.0	25.0	75.0	0.0	0.0	0.0	75.0	0.0	-	0.0	0.0	25.0	75.0	25.0	0.0				
사이버 비행	14. 허위정보	12.6	11.6	6.3	3.2	0.0	7.4	16.8	3.2	6.3	5.3	8.4	4.2	0.0	-	45.3	57.9	65.3	67.4	20.0				
	15. 아이디 도용	16.9	13.4	8.5	7.7	0.0	8.5	12.7	2.1	4.9	3.5	3.5	4.2	0.0	30.3	-	45.1	61.3	57.0	16.2				
	16. 신분속임	11.8	11.2	4.8	4.5	0.0	6.6	11.5	0.6	5.4	3.3	3.9	1.5	0.3	16.6	19.3	-	50.8	61.3	7.3				
	17. 불법SW	9.4	7.0	3.6	3.1	0.1	6.0	10.7	0.9	4.9	1.8	3.1	1.8	0.4	9.2	13.0	25.0	-	41.1	4.3				
	18. 욕설/폭언	12.0	10.5	5.1	3.7	0.2	6.6	15.0	1.7	6.8	2.3	3.5	1.9	0.2	11.2	14.1	35.4	48.2	-	5.1				
	19. 해킹	14.3	8.6	2.9	8.6	0.0	8.6	17.1	5.7	11.4	8.6	2.9	0.0	0.0	54.3	65.7	68.6	82.9	82.9	-				

표 V-6 비행항목별 동반비행 : 고2 시기

(단위 : % , 30% 이상은 음영처리)

	현실비행																			사이비비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현실 비행	1. 흡연	-	78.2	19.7	11.8	8.3	0.4	8.3	1.7	3.9	1.7	0.9	0.4	0.0	0.4	3.9	3.1	17.9	10.5	0.4				
	2. 음주	40.3	-	11.3	7.0	5.6	0.2	6.1	0.7	2.3	0.9	0.7	0.5	0.0	0.5	3.2	4.3	18.5	8.3	0.5				
	3. 무단결석	55.6	61.7	-	29.6	9.9	1.2	9.9	1.2	12.3	1.2	1.2	1.2	0.0	0.0	2.5	6.2	14.8	6.2	0.0				
	4. 기출	56.2	64.6	50.0	-	10.4	0.0	14.6	0.0	6.2	4.2	0.0	8.3	0.0	2.1	4.2	4.2	16.7	8.3	0.0				
	5. 성관계	63.3	83.3	26.7	16.7	-	0.0	13.3	3.3	13.3	0.0	0.0	3.3	0.0	0.0	3.3	10.0	13.3	13.3	0.0				
	6. 집단따돌림	100.0	100.0	100.0	0.0	0.0	-	10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7. 심한 놀림/조롱	43.2	61.4	18.2	15.9	9.1	2.3	-	2.3	9.1	4.5	2.3	2.3	0.0	2.3	0.0	6.8	20.5	25.0	0.0				
	8. 패싸움	80.0	60.0	20.0	0.0	20.0	0.0	20.0	-	0.0	0.0	0.0	0.0	0.0	0.0	0.0	0.0	20.0	40.0	0.0				
	9. 구타	69.2	76.9	76.9	23.1	30.8	7.7	30.8	0.0	-	15.4	7.7	15.4	0.0	0.0	0.0	0.0	23.1	7.7	0.0				
	10. 협박	100.0	100.0	25.0	50.0	0.0	0.0	50.0	0.0	50.0	-	0.0	0.0	0.0	0.0	0.0	0.0	25.0	25.0	0.0				
	11. 갈취	66.7	100.0	33.3	0.0	0.0	33.3	33.3	0.0	33.3	0.0	-	0.0	0.0	0.0	0.0	0.0	0.0	0.0	0.0				
	12. 절도	20.0	40.0	20.0	80.0	20.0	0.0	20.0	0.0	40.0	0.0	0.0	-	0.0	0.0	0.0	20.0	60.0	20.0	0.0				
	13. 성폭력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이비 비행	14. 허위정보	14.3	28.6	0.0	14.3	0.0	14.3	0.0	14.3	0.0	0.0	0.0	0.0	-	42.9	42.9	85.7	71.4	14.3				
		15. 아이디 도용	31.0	48.3	6.9	6.9	3.4	0.0	0.0	0.0	0.0	0.0	0.0	0.0	10.3	-	24.1	65.5	27.6	10.3				
		16. 신분속임	15.2	41.3	10.9	4.3	6.5	0.0	6.5	0.0	0.0	0.0	2.2	0.0	6.5	15.2	-	34.8	45.7	2.2				
		17. 불법SW	14.0	28.0	4.1	2.7	1.4	0.0	3.1	0.3	1.0	0.3	0.0	1.0	2.0	6.5	5.5	-	16.4	1.4				
		18. 욕설/폭언	22.2	34.3	4.6	3.7	3.7	0.0	10.2	1.9	0.9	0.9	0.0	0.9	0.0	4.6	7.4	19.4	44.4	-	0.9			
		19. 해킹	25.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75.0	25.0	100.0	25.0	-			

2.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인과관계 분석¹⁹⁾

1) 분석방법

청소년기의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어떤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지는 이론적,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종단조사 자료가 드물 뿐 아니라, 비행을 조사한 경우에도 두가지 유형의 비행을 같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KCYPS는 중1 패널 조사 2차년도(2011년)부터 현실비행과 함께 사이버비행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6차년도(2015년)까지 5개년 간에 걸친 종단자료를 구축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청소년기를 포괄하는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궤적을 함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유형의 비행 간 인과관계를 구명하는 최적의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인과적 연관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4가지의 대립되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KCYPS 중1 패널의 종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한다.

가설 1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사이에는 인과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설 2 : 현실비행은 사이버비행에 대하여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 사이버비행은 현실비행에 대하여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은 서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

두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하나인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 개의 측정값(측정변인)을 이용해서 추출된 공통분산을 변인(잠재변인)으로 사용하여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통제할 수 있고,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통계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세희, 2007: 275).

19)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에 발표한 “고교생 시기의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인과관계”(이중원, 2016)의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차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시점을 달리하여 반복 측정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횡단자료 분석과는 달리 측정된 변인과 경로가 시간이 경과하여도 동일한 구인을 한다는 종단적 구인동일성(Taris, 200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구인동일성을 측정동일성(시점을 달리하여 측정된 동일 변인이 같은 개념을 측정한 것인지), 경로동일성(변인 간 인과적 효과가 시간이 경과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오차 공분산 동일성(특정 시점의 변인 간 관계가 시간이 경과하여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의 순으로 검증하였다. 검증의 방법은 각각 요인적재치, 회귀계수, 오차 공분산계수에 동일화제약을 가하고 이전 모형에 비해서 적합도가 향상되었을 경우 동일성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비교와 평가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TLI(Tucker-Lewis index)를 기준으로 하였고, 보완적으로 χ^2 과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활용하였다. RMSEA와 TLI는 모형의 자료 부합도와 함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서로 다른 모형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적합도의 평가는 RMSEA는 .05 미만, TLI는 .90 이상(Hu & Bentler, 1999)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였다. χ^2 은 표본의 크기와 정규성에 민감하고, CFI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홍세희, 2007)가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같은 모형의 비교에만 활용하였다.

모형의 미지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많이 사용되지만, 자료에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결측치의 대체 없이 불완전한 자료의 분석이 가능한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에 투입될 잠재변인인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관측변인은 다음 <표 V-7>과 같다. KCYPS에서는 제2~6차 조사 기간 중 모두 20개 비행항목의 경험빈도를 측정하였는데, 이중 2차년도 조사에서 누락된 “도박”과 6차년도에 경험 사례가 없는 “성폭력”을 제외한 18개 항목의 비행빈도를 리코드²⁰⁾ 하여 관측변인을 구성하였다.

관측변인의 수는 3개 이상이 권장되는데(Bentler & Chou, 1987), 측정치가 너무 많을 경우 모형의 단순화와 적합도의 향상을 위하여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의 유형 구분과 항목별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묶음을 통해 현실비행 3개(약물비행, 지위비행, 범법행동), 사이버비행 3개(사기형비행A, 사기형비행B, 폭력형비행)의 모두 6개의

20) 비행빈도는 척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에 따라 모두 3단계로 리코드하였다: 흡연은 “경험 없음” “1년에 ()회” “하루에 ()회”, 음주는 “경험 없음” “1년에 ()회” “한달에 ()회”으로, 현실비행의 다른 항목들은 “경험 없음” “1~2회” “3회 이상”으로, 사이버 비행의 모든 항목들은 “경험 없음” “1~5회” “6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관측변인²⁾을 설정하였다.

현실비행 중 흡연과 음주는 지위비행에 속하지만 약물 사용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지위비행과는 다른 측정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관측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사이버비행의 한 유형인 사기형비행은 신분 관련 항목과 다른 항목을 구분하여 2개의 관측변인으로 분리하였다.

표 V-7 연구모형의 잠재변인, 관측변인 구성

잠재변인	관측변인	구성항목(비행빈도)
현실비행	약물비행	흡연, 음주
	지위비행	무단결석, 기출, 성관계
	범법행동	심한 놀림/조롱, 왕따, 패싸움, 구타, 협박, 갈취, 절도
사이버비행	사기형비행A	아이디 도용, 신분 속임
	사기형비행B	허위정보 유포, 불법SW 다운로드
	폭력형비행	욕설/폭언, 해킹

연구모형의 구성은 전체 조사자료를 하나의 모형으로 분석하지 않고 중학생 시기(제2~3차 조사)와 고교생 시기(제4~6차 조사)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리사회에서 학교는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규범과 관행을 배우고 또래집단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생활공간으로서, 진학에 따른 환경의 변화가 비행의 형태와 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형의 시기 구분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따라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관계가 어떤 유사성과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결과

(1) 중학생 시기의 인과모형 분석

중학생 시기에 측정된 변인의 평균값과 상관관계는 <표 V-8>, <표 V-9>와 같다. 비행빈도의 변화를 보면, 약물비행과 지위비행은 증가한 반면, 범법행동과 사이버 비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유형 간 상관관계는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서, 약물비행과 지위비행 간, 사기형비행과 폭력형비행 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2) 관측변인의 변량은 해당 변인을 구성하는 비행항목의 빈도를 합산한 뒤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수준이었다.

표 V-8 변인의 평균값 : 중학생 시기

		중2			중3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현실비행	약물비행	2279	.068	.26	2253	.095	.33
	지위비행	2276	.025	.13	2243	.027	.14
	범법행동	2275	.032	.11	2245	.013	.07
사이버비행	사기형비행A	2276	.131	.32	2251	.084	.26
	사기형비행B	2272	.242	.40	2245	.182	.35
	폭력형비행	2259	.207	.39	2236	.14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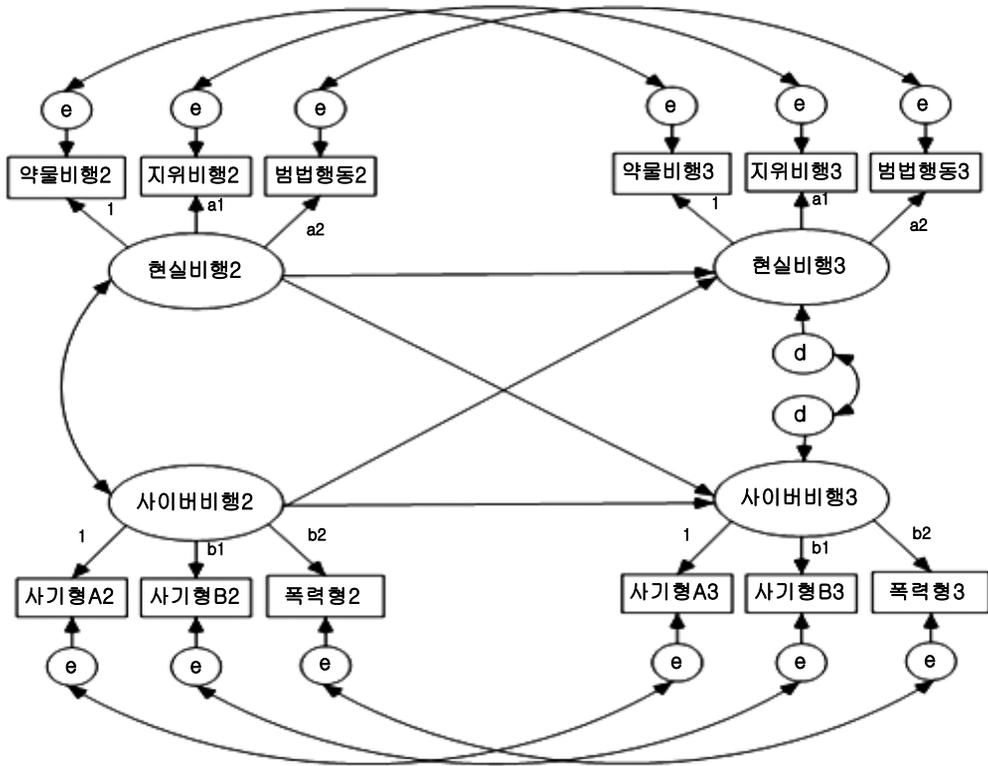
표 V-9 변인 간 상관관계 : 중학생 시기

	2	3	4	5	6	7	8	9	10	11	12
1. 약물비행2	.44***	.33***	.27***	.24***	.14***	.14***	.10***	.10***	.06**	.15***	.10***
2. 약물비행3	1	.21***	.45***	.17***	.25***	.09***	.12***	.09***	.10***	.10***	.16***
3. 지위비행2		1	.32***	.20***	.07**	.06**	.03	.01	.03	.05*	.07**
4. 지위비행3			1	.11***	.14***	.08***	.03	.05*	.06**	.06**	.12***
5. 범법행동2				1	.27***	.13***	.16***	.15***	.10***	.22***	.17***
6. 범법행동3					1	.08***	.16***	.09***	.15***	.14***	.17***
7. 사기형비행A2						1	.29***	.33***	.15***	.39***	.15***
8. 사기형비행A3							1	.16***	.32***	.22***	.37***
9. 사기형비행B2								1	.33***	.29***	.15***
10. 사기형비행B3									1	.18***	.36***
11. 폭력형비행2										1	.28***
12. 폭력형비행3											1

* p < .05, ** p < .01, *** p < .001

중학교 2~3학년 시기의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V-2]와 같다. 각각 3개의 관측변인으로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잠재변인을 구성하였고, 잠재변수에 척도를 부여하기 위해 요인적재치 중 하나를 1로 고정하였다. 시점을 달리하여 측정된 잠재변인

간에는 인과경로를, 관측변인의 오차항 간에는 공분산 경로를 설정하였고, 동일 시점의 잠재변인 (3차는 오차항) 간에도 공분산 경로를 설정하였다.



【그림 V-2】 구인동일성 검증 모형 : 중학생 시기

먼저 연구모형의 구인동일성을 검증하기로 한다. 중학생 시기에는 두 차례만 조사가 실시되어 잠재변인 간 인과경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측정동일성 검증만 가능하다. 시점을 달리하여 조사된 잠재변인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모형 1)과 현실비행의 요인적재치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2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형 2의 적합도가 기저모형보다 나빠져서($\Delta RMSEA = .006$, $\Delta TLI = -.025$), 현실비행의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측정동일성이 부분적으로 성립하더라도 분석이 가능²²⁾하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은 요인적재치 중 하나에만 동일화제약을 가한 수정모형(모형 2.1, 모형 2.2)을 다시 설정하였다.

이 두 가지의 수정모형을 비교한 결과, 모형 2.2는 기저모형보다 적합도가 나빴지만($\Delta RMSEA = .007$, $\Delta TLI = -.026$), 모형 2.1은 좋아져서($\Delta RMSEA = -.001$, $\Delta TLI = .002$) 현실비행은 부분동일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 2.1에 추가하여 사이버비행의 요인적재치에 동일화제약을 가했을 때(모형 3) 적합도가 다시 좋아져서($\Delta RMSEA = .000$, $\Delta TLI = .001$) 사이버비행의 측정동일성도 성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 : 아무런 동일화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모형 2 : 현실비행의 요인적재치에 동일화제약(a1, a2)을 가한 모형

모형 2.1 : 지위비행의 요인적재치에만 동일화제약(a1)을 가한 모형

모형 2.2 : 범법행동의 요인적재치에만 동일화제약(a2)을 가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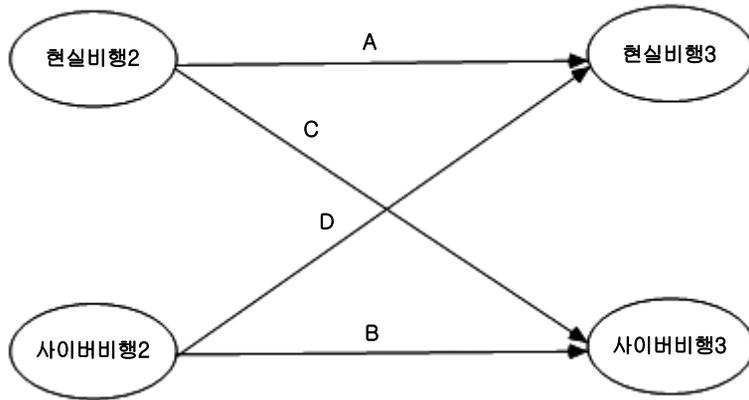
모형 3 : 모형 2.1에 추가하여 사이버비행의 요인적재치에 동일화제약(b1, b2)을 가한 모형

표 V-10 구인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 : 중학생 시기

	χ^2	df	RMSEA	TLI	CFI
M1. 기본모형	215.874	42	.042	.922	.958
M2. 현실비행의 요인적재치 제약	286.219	44	.048	.897	.942
M2.1 지위비행의 요인적재치만 제약	216.954	43	.041	.924	.958
M2.2 범법행동의 요인적재치만 제약	280.822	43	.049	.896	.943
M3. 사이버비행의 요인적재치 제약	224.426	45	.041	.925	.957

이상의 모형비교를 통해 측정동일성의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중학생 시기에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이 어떠한 인과적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그림 V-3]의 연구모형(관측변인과 잠재변인 간 공분산은 그림에서 생략)을 통해 검증하기로 한다. 두 변인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가설은 4가지로서 인과경로의 조합을 통해 각각의 가설을 지지하는 네 가지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22) 분석 가능한 부분동일성의 기준은 요인적재치의 절반 이상(Reise, Widaman, & Pugh, 1993), 또는 고정된 요인적재치 외에 다른 하나만이라도 동일성이 충족(Byrne, Shavelson, & Muthen, 1989)되는 경우이다(이순목, 김한조, 2011 에서 재인용).



【그림 V-3】 인과관계 검증 모형 : 중학생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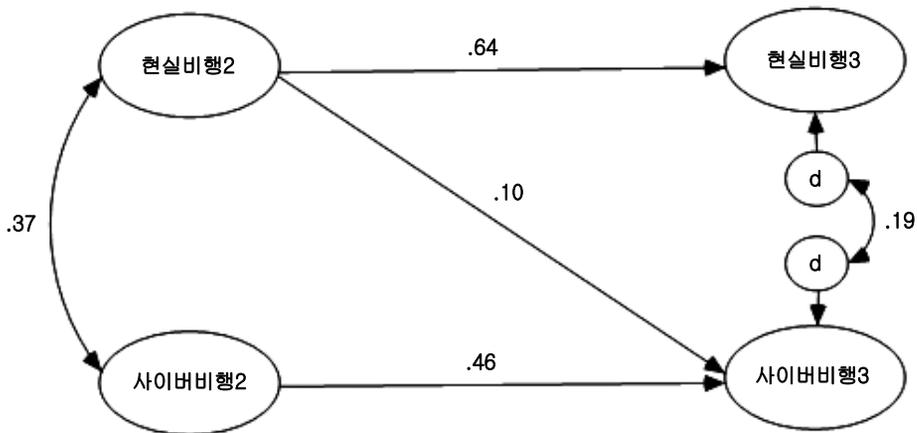
- 모형 1 : 동일 변인간의 자기회귀 효과 경로(A, B)만을 설정한 모형으로, 현실비행과 사이버 비행 간에는 유의미한 인과적 관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H1)을 지지한다.
- 모형 2 : 모형 1에 사이버비행에 대한 현실비행의 교차지연 효과 경로(C)를 설정한 모형으로, 현실비행이 사이버비행에 대하여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H2)을 지지한다.
- 모형 3 : 모형 1에 현실비행에 대한 사이버비행의 교차지연 효과 경로(D)를 설정한 모형으로, 사이버비행이 현실비행에 대하여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H3)을 지지한다.
- 모형 4 : 자기회귀 효과 경로(A, B)와 교차지연 효과 경로(C, D)를 모두 설정한 모형으로,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은 서로 인과적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가설(H4)을 지지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면, 먼저 자유도가 같은 모형 2와 모형 3은 χ^2 과 CFI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다. 두 지표 모두 모형 2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현실비행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이 그 반대의 방향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는 모형 1, 모형 4과 비교한 경우에도 모두 더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Delta RMSEA = .000$, $\Delta TLI = .001$; $\Delta RMSEA = .000$, $\Delta TLI = .002$). 따라서 모형 2는 두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으로서 RMSEA(.05 미만)와 TLI, CFI(.09 이상) 모두 좋은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학생 시기에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간에는 인과적 연관이 존재하고, 사이버비행에 대한 현실비행의 인과적 효과가 그 반대방향의 경우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V-11 인과관계 모형의 적합도 지수 : 중학생 시기

	χ^2	df	RMSEA	TLI	CFI
M1. 자기회귀 모형	231.654	47	.041	.926	.956
M2. 현실비행 → 사이버비행 모형	224.445	46	.041	.927	.957
M3. 사이버비행 → 현실비행 모형	231.600	46	.041	.924	.955
M4 . 상호영향 모형	224.426	45	.041	.925	.957

모형 2의 모수 추정치는 [그림 V-4]과 같다. 중2 시기의 현실비행이 중3 시기의 사이버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실비행의 자기회귀 효과가 사이버비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다시 비행을 되풀이할 확률은 현실비행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 계수는 표준화 추정치이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그림 V-4】 인과관계 모형의 모수 추정 : 중학생 시기

(2) 고등학교 시기의 인과모형 분석

고등학교 1~3학년 시기에 측정된 변인의 평균값과 상관관계는 <표 V-12>, <표 >과 같다. 비행빈도의 변화를 보면, 약물비행과 지위비행은 증가하였고, 범법행동과 사이버 비행은 감소하여 중학생 시기와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V-12 변인의 평균값 : 고교생 시기

		고1			고2			고3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현실비행	약물비행	2108	.157	.42	2084	.240	.52	2055	.300	.56
	지위비행	2106	.027	.13	2086	.032	.15	2055	.045	.18
	범법행동	2105	.012	.07	2090	.007	.05	2056	.006	.05
사이버비행	사기형비행A	2108	.029	.14	2091	.021	.13	2055	.016	.12
	사기형비행B	2105	.094	.26	2088	.094	.25	2053	.070	.23
	폭력형비행	2103	.053	.21	2085	.040	.18	2053	.02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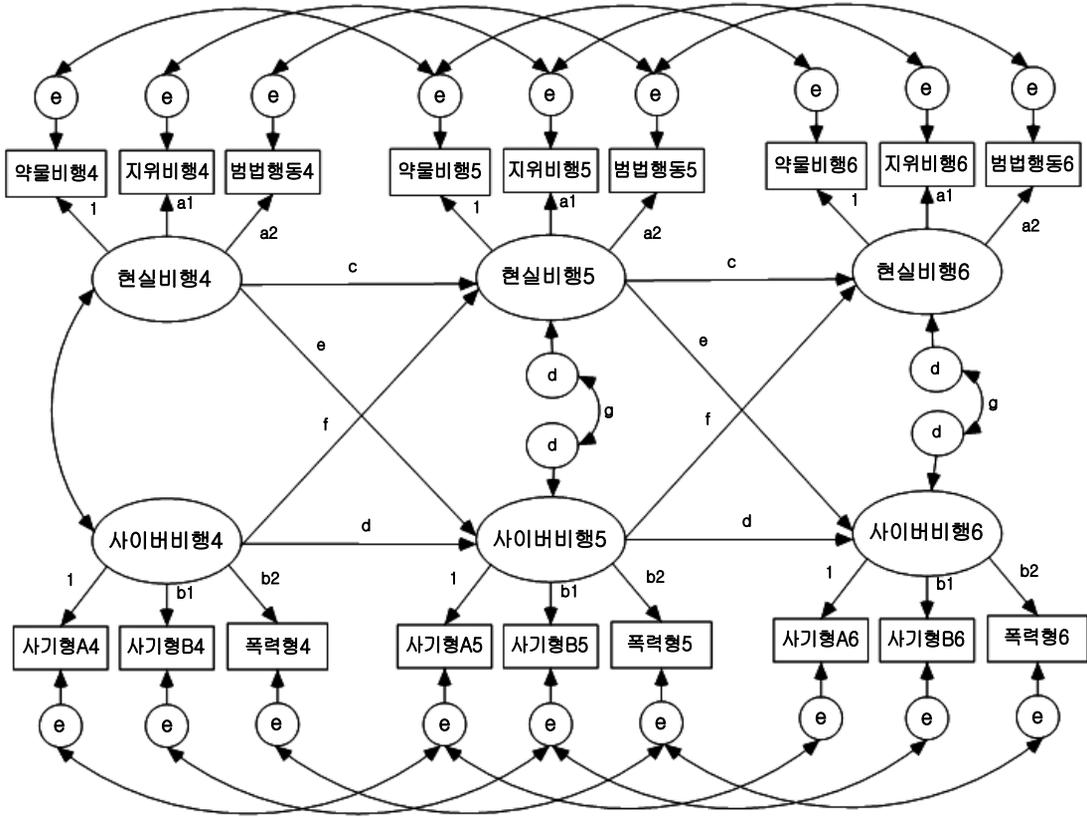
변인 간의 상관관계(<표 V-13>)는 대부분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현실비행과 사이버 비행 항목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특히 범법행동과 사이버 비행 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V-13 변인 간 상관관계 : 고교생 시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악물비행4	.56***	.48***	.37***	.22***	.26***	.19***	.14***	.05*	.09***	.07**	.08***	.03	.04	-.01	.07**	.09***	.09***
2. 악물비행5	1	.62***	.25***	.34***	.26***	.16***	.21***	.11***	.07**	.07**	.11***	.03	.06*	.01	.07**	.09***	.11***
3. 악물비행6		1	.21***	.28***	.34***	.12***	.18***	.13***	.07**	.04*	.11***	.04*	.07**	.07**	.08***	.08***	.13***
4. 지위비행4			1	.33***	.26***	.20***	.10***	.03	.04	.01	.08***	.05*	-.03	.01	.05*	.01	.06**
5. 지위비행5				1	.40***	.13***	.27***	.15***	.07**	.06**	.12***	.01	.01	.02	.02	.05*	.10***
6. 지위비행6					1	.14***	.18***	.22***	.07**	.05*	.20***	.01	.00	.08**	.08***	.00	.08***
7. 범법행동4						1	.35***	.14***	.15***	.04	.11***	.07**	.01	.04	.19***	.04	.09***
8. 범법행동5							1	.26***	.11***	.03	.12***	.03	.03	.08***	.07**	.10***	.17***
9. 범법행동6								1	.18**	.02	.24*	.06**	.06**	.13**	.12**	.06**	.12**
10. 사기형비행A4									1	.32***	.27***	.27***	.14***	.15***	.35***	.19***	.14***
11. 사기형비행A5										1	.22***	.09***	.21***	.12***	.18***	.33***	.19***
12. 사기형비행A6											1	.14***	.08***	.26***	.15***	.16***	.30***
13. 사기형비행B4												1	.40***	.32***	.25***	.10***	.08***
14. 사기형비행B5													1	.34***	.14***	.22***	.07**
15. 사기형비행B6														1	.16***	.09***	.20***
16. 폭력형비행4															1	.26***	.21***
17. 폭력형비행5																1	.23***
18. 폭력형비행6																	1

* p < .05, ** p < .01, *** p < .001

고등학교 1~3학년 시기의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V-5]와 같다. 모두 세 차례 조사가 실시되어 중학생 시기의 모형과는 달리 측정동일성뿐만 아니라 경로동일성과 오차공분산 동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림 V-5] 구인동일성 검증 모형 : 고교생 시기

연구모형이 구인동일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요인적재치와 회귀계수, 오차공분산에 순차적으로 동일화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다음 8가지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1 : 아무런 동일화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기저모형)

모형 2 : 현실비행 관측변인들의 요인적재치에 동일화제약(a1, a2)을 가한 모형

모형 3 : 모형 2에 추가하여 사이버비행 관측변인들의 요인적재치에 동일화제약(b1, b2)을 가한 모형

모형 4 : 모형 3에 추가하여 현실비행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제약(c)을 가한 모형

모형 5 : 모형 4에 추가하여 사이버비행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제약(d)을 가한 모형

모형 6 : 모형 5에 추가하여 현실비행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화제약(e)을 가한 모형

모형 7 : 모형 6에 추가하여 사이버비행의 현실비행에 대한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화제약(f)을 가한 모형

모형 8 : 모형 7에 추가하여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간 오차 공분산에 동일화제약(g)을 가한 모형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면, 먼저 기저모형(모형 1)에서 관측변인들의 요인적재치에 대한 동일화제약이 추가될수록(모형 2~3) RMSEA는 증가하지 않았고(.054→.054→.053) TLI는 감소하지 않아서(.828→.828→.832) 적합도가 향상되었다. 따라서 시간을 달리하여 측정된 두 잠재변인의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다.

표 V-14 구인동일성 검증 모형의 적합도 지수 : 고교생 시기

	χ^2	df	RMSEA	TLI	CFI
M1. 기본모형	875.124	112	.054	.828	.887
M2. 현실비행 요인적재치 제약	907.341	116	.054	.828	.883
M3. 사이버비행 요인적재치 제약	919.501	120	.053	.832	.882
M4. 현실비행 자기회귀계수 제약	923.827	121	.053	.833	.882
M5. 사이버비행 자기회귀계수 제약	923.827	122	.053	.834	.882
M6. 현실비행→사이버비행 교차회귀계수 제약	928.327	123	.053	.835	.881
M7. 사이버비행→현실비행 교차회귀계수 제약	929.529	124	.053	.836	.881
M8. 오차항 공분산 제약	933.879	125	.052	.837	.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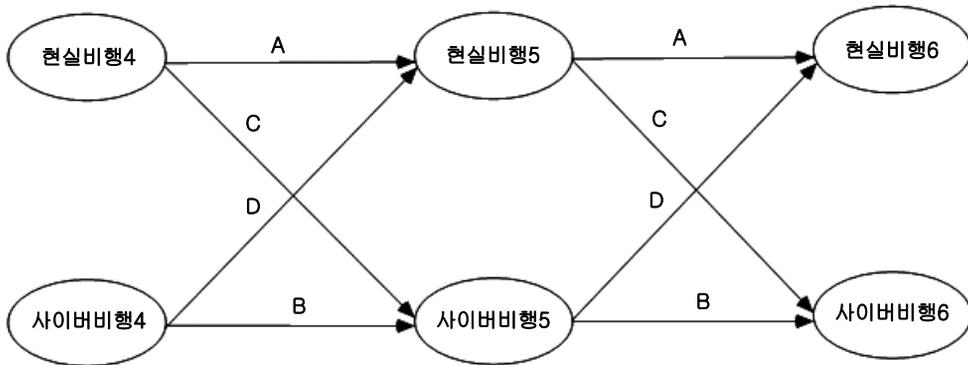
다음으로 모형 3에서 잠재변인들의 자기회귀계수에 순차적으로 동일화제약을 추가할수록(모형 4~5), RMSEA는 변함이 없었고(.053 → .053 → .053) TLI는 지속적으로 증가(.832 → .833 → .834)하였다. 이어서 모형 5에서 잠재변인 간 교차지연 경로에 순차적으로 동일화제약을 추가한 경우(모형 6 ~ 모형 7)에도 RMSEA는 변함이 없었고(.053 → .053 → .053) TLI는 지속적으로 증가(.834 → .835 → .836)하였다. 두 경로 모두 동일화제약을 통하여 적합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경로동일성이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7에서 두 잠재변인의 오차 공분산계수에 동일화제약을 추가했을 때(모형 8), RMSEA는 감소하였고(.053→.052) TLI는 증가하여(.836→.837) 적합도가 향상되었다. 모형 8을 통해 연구모형은 측정동일성과 경로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구인동일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으로 모형 8을 활용하여 두 변인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인과적관계에 있는지, 있다면 어느 변인이 선행변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V-6](관측변인과 공분산 경로는 생략)은 두 변인 간에 존재하는 인과적 연관을 나타낸 것으로서, 경로의 조합을 통해 다음 4가지 경쟁 가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 모형 1 : 동일 변인간의 자기회귀 효과 경로(A, B)만을 설정한 모형으로,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간에는 유의미한 인과적 관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H1)을 지지한다.
- 모형 2 : 모형 1에 사이버비행에 대한 현실비행의 교차지연 효과 경로(C)를 설정한 모형으로, 현실비행이 사이버비행에 대하여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H2)을 지지한다.
- 모형 3 : 모형 1에 현실비행에 대한 사이버비행의 교차지연 효과 경로(D)를 설정한 모형으로, 사이버비행이 현실비행에 대하여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H3)을 지지한다.
- 모형 4 : 자기회귀 효과 경로(A, B)와 교차지연 효과 경로(C, D)를 모두 설정한 모형으로,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은 서로 인과적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가설(H4)을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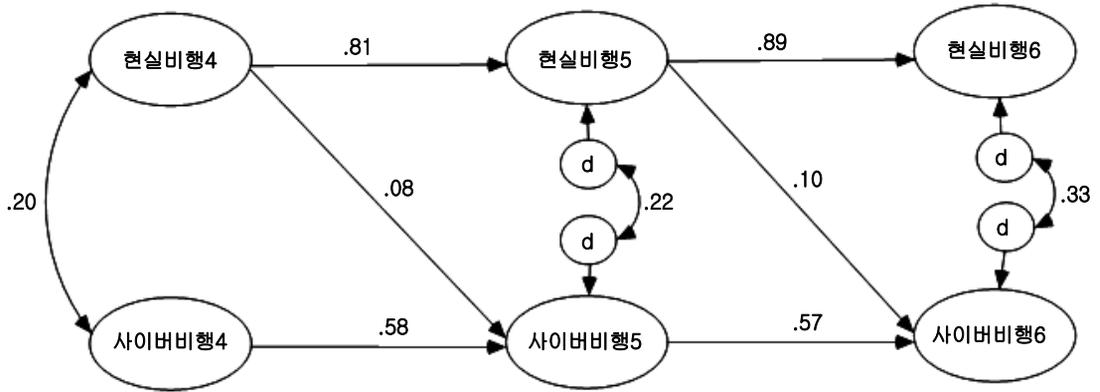
【그림 V-6】 인과관계 검증 모형 : 고교생 시기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면, 먼저 모형 2와 모형 3은 자유도가 같으므로 χ^2 과 CFI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다. 모형 2가 χ^2 이 작고 CFI가 크기 때문에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현실비행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이 그 반대의 방향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는 모형 1, 모형 4과 비교한 경우에도 모두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Delta RMSEA = .000$, $\Delta TLI = .001$; $\Delta RMSEA = .000$, $\Delta TLI = .001$), 네가지 경쟁모형 중 가장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교생 시기에도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간에는 인과적 연관이 존재하고, 현실비행이 사이버비행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임이 확인되었다. 고교생 시기에는 중학생때에 비해 사이버비행이 감소하고 현실비행의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지만, 두 비행 간의 인과적 연관은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5 **인과관계 검증 모형의 적합도 지수 : 고교생 시기**

	χ^2	df	RMSEA	TLI	CFI
M1. 자기회귀 모형	947.903	127	.052	.837	.879
M2. 현실비행 → 사이버비행 모형	934.125	126	.052	.838	.881
M3. 사이버비행 → 현실비행 모형	947.791	126	.053	.835	.879
M4 . 상호영향 모형	933.879	125	.052	.837	.881

고교생 시기의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최적 모형인 모형 2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 [그림 V-7]과 같이 나타났다. 현실비행의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은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 계수는 표준화 추정치이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그림 V-7】 인과관계 모형의 모수 추정 : 고교생 시기

3. 요약

이 장에서는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경험률과 비행 특성을 비교하는 한편,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두 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행경험률과 비행특성 비교

먼저 비행 경험률을 비교해 보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기간 동안 학령이 높아감에 따라 현실비행은 점진적으로 증가(18.4%→32.7%)하는 한편, 사이버비행은 급격하게 감소(46.9%→13.0%)하는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의 비행이 중학생 시기에는 사이버비행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고등학교 진학과 더불어 현실비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을 포괄하는 전체 비행의 경험률은 중학생 시기에 감소(52.1%→42.4%)하였다가 고등학생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3.1%→37.3%→38.9%).

중학생 때 처음 비행을 경험한 비율은 사이버비행이 90% 이상(중2: 76.2%, 중3: 16.5%)인 반면, 현실비행은 60% 수준(중2: 44.2%, 중3: 18.3%)에 머물렀다. 비행의 항목별로는 집단따돌림이 가장 일찍 시작되었고, 이어서 욕설/폭언*(이하 사이버비행 항목은 * 표시 병기), 갈취, 신분속임*, 허위정보 유포* 등의 순이었고 흡연과 음주, 성관계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조사기간 중 청소년이 비행을 경험한 년수는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모두 1년인 경우가 40% 정도였고, 5년 간 지속적으로 경험한 비율이 5% 안팎으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 비행의 항목별로는 흡연의 경험년수가 가장 길었고, 이어서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음주, 욕설/폭언*, 무단결석 등의 순이었고, 협박, 갈취,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범법행동의 경험년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중학생 시기에 현실비행은 대부분 사이버비행을 동반하였지만, 고등학생 시기에는 사이버비행의 감소와 더불어 현실비행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비행에 동반하여 나타날 확률이 높은 비행은 중학생 때는 흡연과 음주, 심한 놀림/조롱,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욕설/폭언* 등이었지만, 고등학생 때는 흡연과 음주의 두 항목으로 줄어들었다. 흡연과 음주는 중·고등학생 시기 청소년들의 비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비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과관계 분석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인과적 관련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인과성의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구인동일성을 검증한 뒤, 두 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학생 시기(2~3학년)와 고등학생 시기(1~3학년)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 시기의 연구모형은 잠재변인 중 사이버비행은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으나 현실비행 측정동일성의 요건을 부분적으로 충족하였다. 두 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네 가지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사이에는 인과적 연관이 존재하고 현실비행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인과적 효과가 그 반대방향의 인과적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시기의 연구모형은 구인동일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시간을 달리하여 측정된 잠재변인과 경로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두 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네 가지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중학생 시기와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현실비행은 사이버비행의 선행요인으로서, 현실비행을 많이 하게 되면 사이버비행의 빈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대책은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현실비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사이버비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 VI 장

결 론

1. 연구요약
2. 정책방향 제언

제 VI 장
결론*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종합적인 실태와 추이를 파악하고 두 비행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학술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의 중학교 2학년(2011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2015년)에 이르는 5개년 간에 걸친 종단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실비행

청소년들의 현실비행 추이를 살펴 본 결과, 청소년들의 현실비행은 증가하고 있다. 현실비행 구성요소인 지위비행과 범법행동의 경험률은 조사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이후 지위비행은 증가하고, 범법행동은 감소하여 점차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험 빈도는 비행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하위 비행 경험률의 변화와 경험 빈도의 변화는 각기 다른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비행, 지위비행, 범법행동 모두 여자보다 남자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경험 빈도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위비행 중 가출 경험률은 남자가 높았으나 경험빈도는 대체로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법행동 중 패싸움이나 절도의 경우 중학교 때 경험 빈도는 남자보다 여자의 경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비행에서 남자의 비행 경험률이나 빈도가 더 높으나 모든 비행과, 모든 학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 이 장은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가 공동집필하였음.

않으며, 비행이나 연령적 특성에 따라 경험률이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행에 관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ly & Chesney, 1988, 홍태경, 류준혁, 2011: 117 재인용). 성별에 따른 비행행동의 차이를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남자의 비행이 좀 더 용인되고, 비행행동이 남자다움으로 간주되는 반면, 여자의 비행은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덜 수용적이기 때문에 남녀 간 비행에 차이(정익중, 2005, 양은별 외, 2014)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지역별 비행 경험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비행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대체로 시군부의 경험률이 높으나 광역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빈도 역시 시군부와 광역시가 번갈아 높게 나타나며, 대체로 비행의 빈도는 광역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 간 비행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서울과 서울 외(광역시, 시군부) 지역 간에는 경험률과 경험 빈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윤옥경(2008)의 연구 결과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서울 외(광역시, 시군부) 지역사회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모학력 및 가구소득과 관련해서 우선 부모학력은 대체로 중졸이하의 비행 경험률이 다른 부모학력보다 전반적으로 높으나 범법행동 중 일부 비행(따돌림, 갈취, 절도, 성폭력)은 대졸이상 이 다른 부모학력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경험 빈도는 고졸과 대졸이상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지위비행은 하위층에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경험 빈도는 중간층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범법행동은 가구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지위비행에 비해 범법행동의 비행 항목 중 상위층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는 비행(따돌림, 심한/놀림 조롱, 협박, 갈취, 절도)이 많았으며, 특히 갈취와 절도의 경우 상위층의 경험률과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범법행동 경험 빈도는 상위층과 중간층에서 번갈아 높게 나타났다.

모든 비행에서 부모학력이 낮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험률과 빈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으며, 비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비행에 있어 객관적인 지표 외 다른 가족과 관련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 따라 경험하는 비행의 유형이나 경험한 비행의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행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2) 사이버비행

사이버비행 경험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사이버불링 관련 연구들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사이버불링 경험률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이후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결과(안성진 외, 2015)와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비행과 관련하여 경험률은 중학교 2학년 때 약 46%로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사이버비행을 한 적이 있으며, 사이버 사기만 한 청소년들이 약 22%, 사이버사기와 사이버비행을 모두 한 청소년들은 약 17%로 나타났다.

사이버비행과 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도 현실비행과 마찬가지로 여자보다 남자의 경험률과 경험빈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사이버사기와 관련하여 특정 학년의 특정 사이버사기 비행의 경험률 혹은 경험 빈도(중2 신분속임 경험률, 중3 허위정보 유포, 고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가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녀 차이를 남자가 여자보다 인터넷 사용에 부정적인 사용가능성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김경은, 윤희미, 2012).

지역의 경우 현실비행과 마찬가지로 시군부의 전반적인 사이버비행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광역시와 유사하였고,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광역시에서의 사이버사기 경험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사기 중 아이디 도용과 신분 속임 경험률은 광역시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이버비행과 관련한 경험 빈도는 시군부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이버비행은 현실비행과 달리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비행으로 사이버비행과 관련하여 지역의 어떠한 특성이 사이버 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사이버비행으로 이어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모학력은 중졸이하의 사이버비행 경험률이 높으나 대체로 학력 간 차가 5%p 내외로 크지 않게 나타났다. 비행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에 속하는 사이버비행 항목들의 경험률이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사이버사기 경험 빈도는 대졸이상과 고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에서 욕이나 욕설/폭언 사용은 경험률이나 경험 빈도 모두 중졸이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해킹은 고졸에서의 경험률이 대체로 높으나 경험 빈도는 대체로 대졸이상에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이버비행과 사이버사기 경험률은 상위층이 높게 나타났고, 사이버폭력은 하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항목별 경험률과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경험률은 상위층이 높고, 경험 빈도는 중간층이 높으며, 사이버폭력에서 해킹은

중간층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비행은 현실비행보다 부모학력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경험 빈도는 대체로 고졸과 대졸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에서는 상위층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가 크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익명성이 보장되고, 접근하기 쉬운 사이버공간에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김경은, 윤희미, 2012).

3)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관계

청소년들이 비행 경험률은 학령의 증가에 따라 현실비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사이버비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의 비행이 중학생 시기에는 사이버비행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고등학교 진학과 더불어 현실비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인터넷 매체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그 활용도가 높은 것이 주된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이 비행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는 사이버비행이 현실비행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 때 처음 비행을 경험한 비율은 사이버비행이 90% 이상인 반면, 현실비행은 60% 수준에 머물렀다. 비행의 항목별로는 집단따돌림이 가장 일찍 시작되었고, 이어서 욕설/폭언* (이하 사이버비행은 * 표시 병기), 갈취, 신분 속임*, 허위정보 유포* 등의 순이었고 흡연과 음주, 성관계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조사기간(중2 ~ 고3) 중 청소년들이 비행을 경험한 년수는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모두 1년인 경우가 40% 정도였고, 5년 간 지속적으로 경험한 비율이 5% 안팎으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 비행의 항목별로는 흡연의 경험년수가 가장 길었고, 이어서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음주, 욕설/폭언*, 무단결석 등의 순이었고, 협박, 갈취,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범법행동의 경험년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중학생 때 현실비행은 대부분 사이버비행을 동반하였지만, 고등학생 때는 사이버비행의 감소와 더불어 현실비행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비행에 동반하여 나타날 확률이 높은 비행은 중학생 때는 흡연과 음주, 심한 놀림/조롱,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욕설/폭언* 등이었지만, 고등학생 때는 흡연과 음주의 두 항목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흡연과 음주는 중·고등학생 시기 청소년들의 비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비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인과적 관련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인과성의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구인동일성을 검증한 뒤, 두 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 고교생 시기의 연구모형은 구인동일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간을 달리하여 측정된 잠재변인과 경로의 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두 비행 간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해 현실비행이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즉, 중학생과 고교생 시기 모두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간에는 인과적 연관이 존재하고, 현실비행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대책은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현실비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사이버비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정책방향 제언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청소년비행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대응하는 비행예방 교육 수립

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따라 비행의 유형과 형태는 큰 변화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2 ~ 고3 기간 동안 사이버비행은 46.9%에서 13.0%로 크게 감소했지만, 현실비행은 18.4%에서 3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생이 많이 한 비행은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29.4%)와 온라인 욕설/폭언(25.1%)이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은 음주(27.3%)와 흡연(11.2%) 경험자가 많았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비행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중학생과 고교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비행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대응하는 비행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기의 비행이 사이버비행에서부터 시작됨을 고려하여 중학생에게는 컴퓨터, 휴대전화 등 매체활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고등학생에게는 흡연과 음주, 성관계 등 그들이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따른 비행의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대상별 특성에 부합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가정배경에 따른 낙인효과 방지 대책 마련

우리사회에서 가정의 구조적 배경은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결손 가정,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하위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중간층이나 상위층 청소년들에 비해 현실비행의 경험률은 높았지만, 사이버비행의 경험률은 상위층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정배경에 기초한 청소년비행의 고정관념이 반드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취약한 가정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낙인을 부여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행이론의 하나인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서는 한 개인이 지닌 속성보다는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비행·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낙인이론의 관점은 특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의 낮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불만과 좌절감이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학교는 청소년들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서 가정배경에 따른 차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교에서 수집하는 학생의 신상정보 - 가족 구성이나 부모의 연령, 학력과 직업, 가정의 소득수준, 주거형태 등 - 가 과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인지, 불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없는지,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청소년 사이버 멘토(cybermentor) 프로그램 도입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PC와 같은 정보통신매체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사귀고 게임을 즐긴다. 이와 같은 정보·휴식의 기능 외에 인터넷은 현실의 억압된 욕구를 분출하는 비행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중학생은 현실 공간에서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사이버비행 경험률은 2학년이 46.9%, 3학년이 35.3%로서 현실비행 경험률(각각 18.4%, 15.4%)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비행 대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비행 대응 프로그램은 대부분 오프라인 중심으로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에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이 언제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비행 관련 대응방안으로 영국의 한 단체(Beatbullying)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멘토(cybermentor) 프로그램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안성진 외, 2015).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에 시달리는 또래 청소년에게 조언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도 부모나 교사와 상담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 또래 친구와 대화를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행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사이버멘토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경훈, 최수미 (2013).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4), 55-85.
- 강소영, 정철우 (2013). 청소년 문화활동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9(3), 5-25.
- 구귀남, 김태균 (2013). 부모의 학대 방임, 청소년체험활동이 학생비행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73-91.
- 김경은, 윤희미 (2012).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용인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련성. **한국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선아 (2013).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다문화수용성이 내외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35, 59-89.
- 김성훈 (2015). 청소년 최초 비행 요인에 대한 다층생존분석 연구.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38-359.
- 김예성, 안재진 (2015). 사춘기 성숙시기에 따른 여자청소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41, 39-63.
- 김은향, 이자명 (2013). 학교폭력 리질리언스 모형탐색: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적응 촉진 요인을 중심으로.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669-685.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광대경, 박정선, 이동원, 박철휘(2013). **청소년비행론** (3판). 서울: 청목출판사.
- 김재철, 성경주, 조현경 (2013). 청소년의 부모학대피해경험, 학교폭력피해경험, 인터넷 중독과 공격성간의 관계.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650-665.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연구보고

- 10-R01).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금 (2013).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비행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265-278.
- 김혜금 (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단기종단 연구.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14.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2004). **형사정책**(제11판).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훈, 이유나 (2014). 청소년비행에 있어 피해-가해 연계의 변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23-143.
- 박순지 (2015). 가정학대 피해가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주, 최말옥 (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학회지**, 18(4), 219-238.
- 박재근 (2012). 학교폭력이 피해청소년들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807-833.
- 박혜숙, 김양곤 (2013). 청소년의 가정환경 특성과 또래환경 특성이 비행(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정서문제(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805-827.
- 서명석, 양혜진 (2012). 팬덤활동과 매체활동이 청소년의 일탈에 미치는 영향: 일탈친구 접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854-878.
- 서봉언, 윤미정, 김미희, 김경식 (2012).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 탐색: 성별 다집단 분석.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391-407.
- 서봉언, 김경식 (2014). 청소년 사이버 욕설의 영향 요인 분석: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45-157.
- 서윤, 김현숙 (2013).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지속성 및 정도가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690-708.
- 선우현정, 이희선 (2014).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교사-학생 관계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1), 149-166.
- 신태섭, 이현주, 권희경 (2012). 저소득층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참여가 정서문제와

-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357-368.
- 심현진. (2014). **청소년의 미시체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휴대폰의존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성진, 이창호, 조운오, 오인수, 김봉범, 김경희 외(2015). **사이버불링의 이해와 대책**. 경기: 교육과학사.
- 양상민 (2015). **학교폭력 집단유형별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은별, 진미선, 오수경, 박시하, 정의중(2014). 청소년의 성역할고정관념이 낙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35(5), 99-111.
- 옥정 (2013). 학대경험이 청소년 비행행동과 비행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교사관계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281-295.
- 윤옥경 (2008).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력 비교. **교정연구**, 38, 107-138.
- 이경상, 이순래, 박철현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1: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년비행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12-R1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기정, 김영식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집단 결정 요인 분석 연구: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을 중심으로.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83-101.
- 이석영, 이택호, 한운선. (2014). 체육운동시간이 청소년의 외현화·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73-188
- 이순래, 이경상 (2010). 생활긴장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4), 5-32.
- 이순래, 광대경, 기광도, 김상원, 류준혁, 박정선 외 (2010). **현대사회와 범죄** (제2판). 서울: 청목출판사.
- 이순래 (2013). 고정효과(fixed effects)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633-647.
- 이순래, 박철현, 이경상. (2012).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153-176.

- 이순희, 허만세 (2015).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중단적 인과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7(2), 241-264.
- 이인선, 최지현 (2014).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259-281.
- 이종원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청소년의 학업 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연구보고 13-R1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 (2014). 성인용 매체 몰입과 성비행의 인과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4 리서치브리프 제3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 황진구, 모상현, 정은주, 강현철 외 (20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 : 사업보고서**.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주연, 전종설 (2015).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및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91-3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지영, 이호준 (2015).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행동 감소 효과 분석.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 419-440.
- 이희정, 황선영 (2012). 청소년의 ADHD 성향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411-428.
- 이희정, 황선영 (2013). 사이버 비행이 1년 후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244-262.
- 임선아 (2014).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행경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비교. **청소년학연구**, 21(9), 79-100.
- 임선아 (2014). 인터넷 사용유형이 사회심리문제, 학교적응,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58-170.
- 임재연, 이선숙, 박종효 (2014).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과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02-120.
- 임정아 (201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참여활동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 Hirschild의**

-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홍빈 (2015). 중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아동학대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익중 (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16(1), 35-76.
- 최제영, 선미숙, 장선희(2016). 중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2), 325-352.
- 조예진, 주혜원, 현명호 (2015). 부정적 양육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비행피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2), 59-81.
- 조주영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유형 변화 및 사회정서변인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명현, 염보아 (2015). 학교폭력피해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611-632.
- 최재용, 한보영, 이운호. (2014). 청소년 지위비행 원인의 성별비교: 일반범죄이론들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8(1), 35-65.
- 최지영, 김재철 (2015). 청소년의 오프라인 비행과 온라인 비행의 발달궤적유형 및 영향요인 탐색.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11-322.
- 최해경 (201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양상과 비행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태경, 류준혁(201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8(3), 113-138.
-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gnew, Robert. (2016). A theory of crime resistance and susceptibility. *Criminology*, 54(3), 181-211.
- Bentler, P. M., Chou. C.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Research*, 16(1): 78-117.
-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e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466.
- Chae, S. E., Son, C., Keum, J., & Young, D. R. (2012). Effects of parenting types o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delinquency mediated by students' life satisfaction.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431-453.
- Hirschi, Travis.(1969). *Causes of delinquency*. Be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o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Reise, S. P., Widaman, K. F., & Pugh, R. H. (199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Two approaches for exploring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14, 552-566.
- Taris, T. W. (2002). *A primer in longitudinal data analysis*. Thousands Oaks, CA: Sage.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real and cyber juvenile delinquencies and figure out a causal relation between the two deviant behaviors. 'Real delinquency' refers to a problematic behavior which occurs in a space of daily living such as school and home, while 'cyber delinquency' is defined as a wrongful act which happens in virtual reality, using communication media such as computer and mobile phone. The longitudinal survey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from 2011 to 2015 were used and analyzed.

Then, the study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While adolescents' experience of real delinquency gradually increased over time, their experience of cyber delinquency sharply dropped. In other words, cyber delinquency was most common during middle school, and it evolved into real delinquency after entering high school.

During middle school years, the experience of both real and cyber delinquencies was quite often. In high school, on the contrary, real delinquency was mostly detected. In particula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smoking and drinking would take place along with other real or cyber delinquency. In addition, they lasted relatively long.

In terms of experience of juvenile delinquency by family background, boys were higher than girls in both real and cyber delinquencies. In residence area, 'city/county' was greater than Seoul. In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middle school graduates or lower' was higher than 'high school graduates' and 'college graduates or higher.' In terms of the experience of real delinquency by household income, 'low household income' was higher than 'medium household income' and 'high household income.' In contrast, the experience of cyber delinquency was higher in 'high household income.'

During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a causal relation was found between real and cyber delinquencies. In addition, the effect of real delinquency on cyber delinquency was greater than the influence of cyber delinquency on real delinquency. In terms of a probability of repeating the same delinquency, furthermore, real delinquency was higher than cyber one. Therefore, real delinquency is relatively higher than cyber one in terms of persistence.

Based on the said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policies designed to prevent and respond to juvenile delinquency.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최용환·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김한별·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총괄보고서 / 김영지·유설희·이민희·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총괄보고서 / 양계민·윤민중·신현옥·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윤민중·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Ⅲ / 강경균·이윤주·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성윤숙·유성렬·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모상현·강현철·정윤미·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이순래·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I : IEA ICCS 2016 - 초·중·고등 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I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 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I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 · 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 · 정은진 · 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 정은진 · 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 · 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 · 유한구 · 채창균 · 오승근 · 김유나 · 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II / 성윤숙 · 김경준 · 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 · 황여정 · 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모상현 · 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 ·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 · 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 · 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 · 오해섭 · 윤철경 · 김경준 · 최용환 · 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윤주 · 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 · 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 · 모상현 · 유성렬 · 김진석 · 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 · 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 · 김지경 · 이윤주 · 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박선영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 · 박선영 · 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 · 성은모 · 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장근영 · 김지경 · 하형석
- 16-R59 2016년 동직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 · 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시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이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17-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31-8 94330

979-11-5654-104-2 (세트)



연구보고 16-R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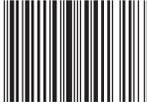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Ⅲ :

기초분석보고서Ⅰ-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4330
9 791156 541318
ISBN 979-11-5654-131-8
ISBN 979-11-5654-104-2 (세트)